

2016 인문떡집

11학번

만든이: 권효연 손채은

김민정 김예림 김태우 노영빈 서명아 서하린 송륜근

안다연 이가원 장우정 조익준 조하한 최형규 한승희

목차

1. 일정
2. 인문학캠프
 - 언어
 - 통일
 - 민주화
 - 종교
 - 농사
3. 소감
4. 활동사진

요일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주제	언어	통일	민주화운동	종교	농사 & FTA	농사 & FTA	X
이칭	저마다	대방역 오케이 게스트 하우스	대방역 오케이 게스트 하우스	학교	학교	학교	미정
오전	<p><구로청소년 문화의집> 10:30~ 온수역에서 소집 11:00~ 특정 단어 제한 토론</p>	<p><오두산 전망대, 임진각> 09:30~ 출발 10:30~ 오두산 전망대 미션 11:30~ 임진각 관람</p>	<p><남영동 대공분실, 명동성당> 11:00~ 출발 11:30~ 남영동 대공분실 관람 12:00~ 이동 12:30~ 명동성당 관람</p>	<p><덕산 문화센터> 10:00~ 태생 강의 "종교공부가 필요한 이유"</p>	<p><학교> 아침먹기</p>	<p><성열셀 발 학교 강당> 09:30~ 성열셀 얘기 듣고 발 돌려보기+이동 10:30~ 범수부도널 강의 11:30~ 발제 "이상적인 농업과 현실적인 농업"</p>	<p>점으로</p>
점심	13:00~ 도시락	12:30~ 도시락	13:00~ 외식	12:00~ 외식(만두국)		12:30~ 학교(라면)	
오후	<p><구로청소년 문화의집> 14:00~ 번역 프로그램 15:00~ 마무리 활동 1 16:30~ 휴식 & 간식 17:00~ 마무리 활동 2</p>	<p><하자센터> 13:30~ 이동 14:30~ 휴식 15:00~ 통일 강의(유영호 강사님) 17:00~ 통일 PPT 강의</p>	<p><서대문 역사관> 14:00~ 이동 14:30~ 서대문 역사관 관람 16:00~ 학교로</p>	<p><덕산 문화센터> 14:00~ 영화 '사이버' 시청 15:30~ 발제 "사람이 종교를 찾는 두 가지 관점"</p>	<p><학교 음악실> 13:30~ 영화 '자면농' 시청 14:30~ 발제 "농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 16:30~ 논,밭 걷기(자연 견수성 기르기)</p>	<p><학교 강당> 13:30~ 학교 농사 교육과정 개편 논의해보기+마무리 간담회 14:30~ 휴식+글쓰기 16:30~ 인문학 캠프 총 마무리 시간 "각자에게 인문학 캠프란"</p>	
저녁	19:00~ 외식	18:00~ 외식(병양생면)	학교	학교	17:30~ 조별로 만들어 먹기	18:00~ 고기 파티	가정 학습
밤	X	<p><하자센터> 19:00~ 토론</p>	미정	<p><덕산 문화센터> 19:00~ 발제 "다신교적 사고로 보는 나의 신념" 20:00~ 글쓰기 "나와 종교" 21:00~ 간담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종교를 받아드려야 할까"</p>	<p><학교 음악실> 19:30~ 마무리 간담회 "앞으로 농업에 대해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21:00~ 기숙사로 이동</p>	<p>재미난 활동</p>	
숙소	대방역 오케이 게스트 하우스	대방역 오케이 게스트 하우스	학교	숙숙 펜션	학교	학교	

*일정표상 표기된 29일엔 범국민 박근혜 퇴진 시위를 위해 서울에 다녀왔음. 31일 월요일 점심에 학교로 돌아와 남은 일정을 소화함.

언어

-

말은 달리는 힘이 있지! 히힝

효연 영빈 룬근 가원

-주제 정하기

이전에 정한 주제인 '언어의 힘'은 급하게 발표하기 위해 정한 거라, 예전에 했던 주제 프로젝트와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주제적이고 생산적으로 다시 주제를 정해보자는 얘기를 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게 되었고, 우선 각자 인문학 캠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얻고, 하고 싶은지 글을 적어 나누기로 하였다.

-총주 모임

·윤근

내가 생각하는 인문학이란?

- 그저 특출 나지 않은 하나의 학문
- 아는 지식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 모든 배움이 사실은 인문학

우리는 왜 인문학 캠프를 하는가

- 서로 토론하며 한층 더 생각해보기 위해서
- 재미도 있고 나와 다른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서

·영빈

●인문학 캠프를 통해 하고 싶은 것

맨 처음 인문학 캠프를 머릿 속에서 그려보게 되었을 때는 감이 없어서 단순히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등 일반학교의 교과목 같은 내용들을 성인이 되어, 내가 대학에 가지 않는다면 아마 하지 않을 공부들을 깊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 인터넷을 가게 되면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선동되고 생각이 심기는 것에 집중하여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해 내가 문제 의식을 느끼고 내 삶에는 일정 부분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나만 그렇게 살기엔 세상 사람들이 너무 꿈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신호위반, 제천간디학교라도 꿈에서 깨워주고 싶었다.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내가 멋진 강연을 하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깨워주고 싶었다. 막연하게 조금 일찍 깨우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깨워줘야 한다'는 일종의 부담감과 압박감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전에 인문학 주제를 정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여러 가지만 선택되었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내가 가져가는 주제에 친구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우면서도 오기로 끝까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안산에서 모여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집중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재밌게 즐기며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다. 현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도 좋다. 친구들과 재밌게 수다도 떨고 진지하게 얘기도 하면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인문학 캠프에서 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 유지하고 싶다.

●인문학 캠프를 통해 얻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과 얻고 싶은 것은 연결고리가 많아 거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더 적어보면, 깊은 생각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면서 진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졸업 후에는 느끼지 못할 주어진 환경과 시간에 고마워하며 아주 깊게 이 시간을 온 몸으로 느끼고 싶다. 청소년, 학생이라는 것에 대해 미련함 아쉬움 속상함 후회됨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싶다. 너무 소중하기에 소중했으면 한다.

•나는 얼마큼 인문학 캠프를 하고 싶은가

인문학 캠프를 처음 생각했을 때부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 싶었다.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의 마지막이자 6년 학교생활을 마무리하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흔히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한 개에만 집중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하려 했다. 그렇기에 신호위반이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데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다. 나는 어쩌면 인문학 캠프보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잘 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인문학 캠프를 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학기에 하는 활동을 잘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잘하고 싶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외로도 저마다 생각하는 인문학 캠프에 대해 써온 글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를 한층 더 알 수 있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언어와 관련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얘기들

우리말이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말의 범위가 뭘까. 한자도 우리말인가? 그러면 우리말은 어떻게 번역하는 걸까. 번역을 할 때 외국 사람한테 맞춰줘야 하는 걸까? 떡볶이를 발음 표기대로 써야 할까 매운 떡 볶음 음식이라고 써야 할까. 떡볶이는 고유 명사인가 등, 저마다가지고 있던 언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고, 결론은 없었지만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나 생각들을 서슴없이 나누고 같이 고민해보고 주제를 위해 막연하게 얘기해볼 수 있었다.

-영화 <트라이브>

트라이브는 말 못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영화 내내 말소리가 없다. 이 영화는 대사도, 자막도 없다. 하지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사랑'과 '증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언어와 관련된 영화를 무작정 찾다가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설정에 끌려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에서 말소리가 없다보니 보는 관객들의 말소리가 생겨났다. 영화에서는 말 못하는 사람들의 내용보단 범죄와 사랑에 대한 얘기가 주여서 우리 조가 원했던 생각들과 다른 내용이었다. 이에 아쉬움을 느끼고 다른 활동을 또 해보기로 하였다.

-책 <1984>

<1984>는 빅 브라더 라는 자에 의해 세계가 새로운 언어로 통일되는 이야기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언어는 사용하면 안 되며,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대항할 수 있는 단어들은 하나로 합쳐 '안 좋은 것' 이라고 새롭게 단어를 뜻하는 등, 언어 제한·억압을 담은 책이다.

다같이 '신어의 원리'라는 부록 부분을 읽었다. 신어의 원리는 빅 브라더 가 만든 새로운 언어,

신어의 언어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내용에는 특정 단어들을 하나로 묶어 생각을 통제하는 등 언어 제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의 모습을 살펴보는 활동을 하였고, 더는 시간을 늦춰서 안 될 거라는 생각과 조원들도 활동에 만족하여 주제를 정하기로 하였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언어로 보는 문화’ ‘언어의 역사’ ‘언어의 권력’을 우리가 여전히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계 공용어?

〈세계 공용어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이제까지 나왔던 관심사들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세계 공용어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정했고, 그 밑으로 관심사를 정리해 소주제 세 가지를 정했다. 소주제는 ‘언어의 힘’, ‘단어의 역사’, ‘언어가 반영하는 문화’이다. 각 소주제를 일주일 씩, 총 3주를 공부하고,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공용어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것이 계획이었다.

첫 번째로 ‘언어의 힘’에서는 식민지배로 인해 언어를 뺏긴 나라를 예시로 말이 통일되면 오는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래서 식민지 전쟁당시 가장 많은 식민지를 두었던 지배국 네 나라(영국, 미국, 스페인, 프랑스)를 각자 하나씩 맡아, 각 나라가 지배했던 식민지의 언어적인 피해를 공부했다. 더불어 언어 피해로 인해 자신의 문화를 얼마나 잃었는지 알아보았다. 여기서 미국은 약간 다른 맥락으로 식민지배가 아닌 경제력으로 언어를 지배한 경우를 알아보기 위해 공부했다.

‘단어의 역사’에서는 ‘히트다, 히트’, ‘샌드위치(샌드위치 백작)’와 같은 단어의 어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다. 특히 우리말의 어원을 중심에 두고 한자어, 외래어, 콩글리쉬 등을 순 우리말과 비교를 하는 작업도 계획에 두었다. 또한 여기서 ‘순 우리말을 왜 써야하는가’, ‘우리말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독일엔 우리말의 ‘ 쌤통’과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는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쌤통’은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넘어졌을 때와 같이 장난스럽게 쓰이는 반면, ‘샤덴 프로이데’는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의 라이벌이 큰 부상을 입었을 때와 같이 남의 큰 불행을 즐기는 말이다. 우리는 같은 의미인데도, 세기가 다른 상황에 쓰이는 단어들을 찾아 ‘언어가 반영하는 문화’를 알아보려고 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작아 6월호에서 본 ‘빗낫뜬다’라는 말이 있다. 빗낫은 비의 얼굴이란 옛말이다. 김용택 시인의 어머니는 ‘빗낫뜬다’라고 하면서, 장독을 덮고 일을 나갔다고 한다. 옛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의 얼굴을 미리 보고 대비를 한 것이다.

이렇듯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고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언어를 알아가다 보면 이전 세대의 문화와 환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언어가 문화를 반영했다면 이것이 세계 공용어를 쓰면 안된다는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1주차 주제인 ‘언어에 힘’에 대한 공부에 들어갔다. 각자 맡은 나라의 식민지에 대해 인터넷과 책으로 공부했다. 비정상회담 광복절 특집 ‘식민 역사와 독립’편을 다 같이 보기도 했다. 또 임의로 찬반을 정해 글을 써 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에 대해 공부한 내용 중, 언어의 부분은 극히 적었다.

영국에게 식민지배를 받아온 인도의 경우 영어가 22개의 공용어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의회, 행정부, 사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는 공용어로 영어를 쓰고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여러 나라에 지배를 받아온 필리핀에 경우, 따갈로그어가 공용어이긴 하지만 교육에서의 활용도는 영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고급교육일수록 두드러진다. 출판물 종류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입말이 많이 쓰이는 만화책, 소설 등의 비율은 필리핀어가, 교육, 과학, 기술 서적 등은 영어로 출판된다.

이러한 정도의 지식 이외에는 얻은 것이 없었고, 조원 모두가 대주제와 소주제를 연결 지어 공부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주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만이 있었다. 또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한 가지 주제를 공부하기에 너무 적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우리는 주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번외로 공부했던 것-

작은 언어가 큰 언어에게 굴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만다린을 모두가 받아들여 영어도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논리적인 결론이다. 영어를 보존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많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여기에서 세 가지만 제시해보려 한다.

첫째, 둘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중언어 사용자나 다중언어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중언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지적 이점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모국어의 어휘력이 풍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택한 삶을 누리듯이, 하나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른 언어를 알기 때문에 삶이 풍성해진다. 언어마다 고유한 장점이 있다. 어떤 사물을 표현하거나,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데 상대적으로 쉬운 언어가 있다. 논란이 많지만 사피어-워프 가설이 맞다면, 언어의 구조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면 세상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언어의 소멸은 소수집단의 자유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선택권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둘째, 언어는 인간 정신이 창조해낸 가장 복잡한 작품이다. 언어마다 소리와 구조가 다르고 사고의 패턴이 다르다. 따라서 한 언어가 사라지면 언어 자체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문학과 문화 및 지식이 언어로 표현된다. 언어를 상실하면 그 언어로 표현된 문학과 문화와 지식도 대부분 상실한다. 언어마다 숫자체제, 기억장치, 공간의 방위체계도 다르다. 예컨대 숫자는 영어보다 웨일스어나 만다린으로 세는 게 더 쉽다. 전통사회는 주변에서 자생하는 수많은 식물과 동물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사회의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생물학적 정보가 담긴 백과사전이 사라지는 셈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만다린으로 번역될 수야 있겠지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번역된 만다린으로만 읽힌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의 소멸을 인류의 손해라고 생각할 것이다. 부족사회 사람들도 자체의 고유한 구전문학을 지니고 있다. 그런 문학의 상실도 인류에게는 손해이다.

셋째, 국가 정체성의 중추로서 언어는 한 국가 내에서의 소수민족들에게는 물론이고 그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도 생존이나 소멸이나를 뜻한다. 2차대전 초기, 즉 1940년 5월과 6월 영국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당시 나치군의 침략에 저항하던 프랑스군이 괴멸되고 있었고, 히틀러는 이미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와 베네룩스를 점령한 뒤였으며, 이탈리아와 일본과러시아가 히틀러와 동맹이나 협약을 맺을 상태였다. 또 미국은 여전히 중립을 고수하고 있었다. 독일의 압박한 침략을 영국이 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영국 정부 내에서도 영국이 가망 없는 저항을 시도하느니 히틀러와 어떤 식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940년 5월 13일과 6월 4일, 윈스턴 처칠은 하원의사당에서 연설했다. 이 두 번의 영어 연설은 20세기 가장 자주 인용되고 가장 인상적인 연설로 여겨진다. 그 후, 영국은 항복도 타협도 하지 않고 집요하게 싸웠고, 1년 후에는 러시아와 미국을 차례로 동맹군에 끌어들였다. 그리고 5년 후에는 히틀러를 물리쳤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운명 지워진 것이 아니었다. 만약 1940년에 유럽에서 큰 언어들이 작은 언어들을 완전히 흡수해서 영국은 비롯해 유럽의 모든 국가가 서유럽에서 가장 큰 언어, 즉 독일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처칠이 하원의사당에서 영어가 아닌 독일어로 연설을 했다면 1940년 6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처칠의 연설이 번역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독일어로 번역된 처칠의 연설은 영어만큼 감동적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영어가 영국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에 맞서 싸우게 독려했던 모든 것의 대리자였다는 것이다. 영어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수천 년 동안 독자적으로 구축한 문화와 역사, 갓 시작된 민주주의, 그리고 영국이란 정체성의 후예라는 걸 뜻한다. 영어를 말한다는 것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의 다른 국가들과 정치적 이상이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1940년 6월에 영어를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걸 뜻했다. 누구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1940년 6월 영국이 이미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영국인들이 히틀러에게 저항했을까 의심스럽다. 언어적 정체성의 보존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어제까지의 세계』 중 여러 언어로 말하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수언어가 소수언어를 삼켜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공감했고, 소수언어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다. 현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는 단연 영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잘 쓸 줄 알면 더욱 많은 경제력을 얻게 된다. 결국 우리말 대신 영어를 더 중요시하는 사태가 오고 말았고 우리말은 점점 잊혀가고 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경제력을 얻기 위해 우리말을 버리고 영어를 쓰면 안되는 걸까? 우리말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

-가정학습

9월 12일, 가정학습 날이었다. 할머니 댁에 내려간 룬근을 제외한 셋이 합정에 모였다. 소주제 공부할 계획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소주제는 '제국의 언어', '우리말이란 무엇인가', '말에 담긴 문화'. 이중 제국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던 중이었다. 계획대로라면 가정학습 가기 전에 공부 가 모두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조원들이 주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했고,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어중간하게 공부가 중단 된 상태였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 헛갈려하고 있다는 데에 모두 동의 했다. 때문에 가정학습의 회의는 '왜 무엇을 공부할지 헛갈려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였다.

우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써야 하나?'라는 물음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각각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같이 인문학을 해나가기 위해선 공통점을 찾아 공부의 맥락을 만들어야 했다. 영어가 어떻게 힘을 가졌는지, 우리말이 무엇인지, 말은 어떤 문화를 반영하는지, 언어는 어떻게 힘이 되는지 알고 싶던 우리는 앞선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을 엮을 수 있다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우리가 참 욕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심 있던 소주제를 살리면서 큰 주제를 공부하려다보니, 정확히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헛갈

렸던 것이다. 때문에 소주제 대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써야 하나?'라는 큰 주제 하나만 살리기로 결정하고 가정학습 회의는 끝났다.

-졸업생 만남

민망했던 졸업생 만남에서, 우리 조는 큰 감명을 받았다!

“우리 삶과 맞닿아 있고, 하고 싶은 주제로 공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우리는, 큰 주제 하나를 가져가는 것에서 노선을 바꾸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써야 하나?'라는 주제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삶과도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질문은 우리의 소주제를 모으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소주제 속에서 삶과 맞닿아 있는 질문을 골라냈다. '우리말을 꼭 지켜야 할까?'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뚜렷이는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가지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리 조 중 누구도 '우리말을 꼭 지켜야 할까?'라는 질문에 뚜렷한 이유를 대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했던 '우리말'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공부해 보기로 했다.

-우리말

초기에 우선 책을 읽으며 궁금증과 지식의 깊이를 늘리기 위해 각자 관련된 책을 읽게 되었다. 그 중 한 책을 소개한다.

〈한국어가 사라진다면?〉

이 책은 영어 공용화를 시행할 경우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가상으로 꾸며보고 있다. 영어 공용화를 실시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글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또 영어공용화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독자들에게 명확하고도 쉽게 보여준다.

책 읽는 활동 전에는 '우리말을 꼭 지켜야 할까?'라는 질문에 어떤 부분이 대립되고, 어떤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 모두 감을 잡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책을 읽으며 주장을 풍부하게 접한 뒤, '우리말을 꼭 지켜야 할까?'의 대립을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리 조는 우리말에 열이 담겨있다는 '민족주의'에도, 영어의 경제문화적 가치를 바라보고 세계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세계주의'에도 정확히 동의되지 않았다. 때문에 두 주장을 공부하는 것을 갈래로 잡고, 인터뷰와 책 읽기를 시작했다.

-장경준 교수님 인터뷰

그로인해 언어학 교수이시자 이전에 주제로 잡았던 세계공용어(에스페란토어)를 사용하실 줄 아는 우정이 아버지인, 장경준 교수님을 찾아뵙게 되었다. 밑은 인터뷰 전문이다.

Q. 에스페란토어에 대해서

A. 배우기 쉬운 언어이다 내가 일상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에스페란토어를 배우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 에스페란토어는 폴란드 출신의 안과 의사 '루도비코 라자로 자멘호프'(1859~

1917)박사가 인조 언어이다. 그 당시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가 나뉘서 점령 중 이었는데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들은 모이면 자주 다투고 있었다. 자멘호프 박사는 이렇게 자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각자들의 국어들을 사용하고 각자 갖고 있는 종교도 달라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멘호프는 다들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고 그래서 각자 언어들은 존중하면서 만났을 때는 중립적인 언어를 쓰기를 원했다. 그래서 자멘호프 박사는 중립적이며 인공적인 언어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에스페란토어였다.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국어인 폴란드어 이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다. 여기다 학교에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영어를 배웠고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리투아니아어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다고 한다. 그래서 공용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배운 언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유럽계 언어는 인도의 북부, 산크리스트어에서부터 시작 되었다는 점이였다. 그래서 유럽의 공통 된 어휘들을 모아서 기본 어휘로 정하고 문법은 여러 언어의 문법을 살펴서 공통 되는 것, 간단한 것으로 문법 체계를 만들었다. (문법의 불규칙 부분을 없앴다.) 그래서 유럽 쪽 사람들은 굉장히 배우기 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멘호프 박사가 만든 이 언어는 중립적 공통어로서 가장 가치 있는 언어라고 나는 평가한다. 한 가지 그냥 이야기로는 주시경 선생이 영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페란토어를 할 줄 알았던 사람 이었다고 한다.

Q. 에스페란토어 자체가 서양, 유럽 쪽 나라들의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아시아 쪽에서도 쓰기 쉬운 언어 인가요?

A. 확실히 유럽 쪽에 맞춰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들을 반영 해보자고 한다면 문법을 통일해서 사용하는 건 가능 할지 모르겠지만 어휘의 통일은 불가능 하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들의 어휘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에스페란토어가 없다고 가정하여 다시 공용어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휘는 인도 유럽어 기준으로 기본 어휘를 삼을 수밖에 없을 거 같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제일 적을 것이다. 그리고 자멘호프 때를 보자면 1887년이 에스페란토어 공표 년도 인데 그 당시의 세계라고 하면 아마 자신들이 지내는 유럽 국가들만 생각했을 것이지 아시아 쪽을 생각 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해 보인다.

Q. 한글의 정의와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순 우리말이 우리말이랑 다른 점은 무엇 인가요? 이 한반도에서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있던 말들이 순 우리말인지 아니면 조선 시대 때 사용했던 말들이 순 우리말인지 대체 순 우리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 한글의 어휘는 굉장히 어족을 정하기가 어려운 언어이며 고립적이고 독립적이다. 그래서 임꺽정 소설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거기 보면 지금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많은 어휘들이 나온다. 그래서 심지어는 임꺽정에서 나온 어휘들만 모아놓은 사전이 따로 있을 정도 이다. 그 당시 어휘와 지금의 어휘는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비교해 보아라. 그 때의 어휘를 대체하는 지금의 어휘는 대부분 한자어에서 가져온 것이다. 지금은 이제 외래어로 대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자어는 외래어라고 기원적으로 보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외래어라고 보기 힘들어 졌다. 그래서 지금 언어를 분류 할 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를 한다. 임꺽정 소설을 읽어보며 그 당시 언어문화와 우리의 언어문화를 견주어서 비교를 해봐라. 어떤 언어에는 그 나라의, 지역의 문화가 있는데 그런 다른 문화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언어이다. 이 땅에 살아오며 모인 역사와 지혜가 모인 것이 우리의 한글인데 이것들을 버릴 때는 풍토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 정말 다른 언어

가 필요할 때인데 그렇지 않으면서 한글을 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역사와 지혜들을 버린다는 것이다. 물론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한국어가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말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한글의 모습이 잘 담겨있는 문학들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거 같다.

Q. 방언도 독립된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는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주도의 말은 어떻게 분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한국어 안에 여러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의 총체가 한국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과 서울 말이 다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언어가 서울말이다. 이건 정책적인 표준어일 뿐이고 한국어라는 건 모든 지역의 말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말을 봤을 때 방언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중 사안 중 하나가 의사소통역이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정치적인 결속력도 한나라의 방언을 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분리를 해버린다면 방언이 아닌 외국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어와 네덜란드어는 서로 방언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지만 각자는 외국어라고 본다.

Q. 말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단순한 소통의 도구? 혹은?)

A. 임격정을 읽어봐

Q. 우리나라 신세대 사람들은 고유어에 대해 촌스럽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상당히 유치하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쪽 써온 어휘가 있는데 외부에서 새로운 어휘가 들어오면 당연히 새롭고 신선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어휘를 사용 할 것인지 말건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사물과 개념을 여러 어휘로 사용할 수 있는데 때 자리 마다 어휘를 맞춰서 사용 하면 될 일이다. 예를 들자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소젖을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에서 소젖을 먹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유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고 외래어가 들어와서 밀크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우유를 마실 때 '너 쇠젖 마시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표현인가 라는 것이다. 그래서 말의 흐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Q. 언어도 인간처럼 혼혈어를 얻기도 하고, 새로운 국적을 얻기도 하는데 지나치게 우리말을 고집하면 우리말의 빈혈 현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올바른 고유어의 사용이란?

A. 중요한 것은 체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임격정 읽어보라,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나 소중함을 알아보고 언중들인 우리가 지켜야 할지 말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오염되기 전의 한글이 들어있는 문학 작품들을 읽어봐야 한다.

Q. 저희가 책을 읽다 보니 한글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 쪽에서 늘 민족의 열이나 정신이 담겼다는 이런 민족주의적 얘기가 많은데 저희는 사실 그저 고리타분하고 별로 설득력이 없고 공감어 잘 가지 못해서요, 민족주의로 한글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민족주의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시대 바뀐 지금은 그 얘기는 왜 나왔을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

• 장경준 교수님과 만남 후 조원들의 소감

이가원 : 일단 학문적인 관점으로서의 언어를 듣게 돼서 좋았습니다.

권효연 : 민족적인 관점의 우리말 지키기라는 것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서 좋았고 임격정 읽어봐야겠다고 우리말 지키기 겨레 모임을 굳이 안 만나도 좋겠다.

송륜근 : 언어의 관련 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와 많은 자료들 조원들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던 거 같다.

노영빈 : 에스페란토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되어서 좋았다. 주신 책도 잘 읽어봐야겠다. 우리말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많은 참고는 되었다.

• 장경준 교수님을 만나고 언어조의 흐름

- 임격정을 읽고 그 당시 어휘들을 익힌 후에 우리가 녹취 한 것들을 보면서 어휘들을 비교해서 아이들에게도 그 당시 어휘들 알려주고 직접 비교하고 사용해보게 하면서 평가를 듣고 이런 느낌들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해보는 것 (+언어감각 기르기 녹여내기)

- 일제의 탄압 알아보기 (+ 1984같은 방식을 녹여 내서)

- 아예 다른 장소로 가서 우리가 쓰는 말들이 달라질 것인지 확인 해보기 (녹취)

- 사전 캠프 녹취, 생활 녹취, 임격정의 어휘를 가지고 비교 분석

- 우리 반 애들이 잘 모르는 생태적인 말을 찾아오는 것이다.

- 화합 프로그램을 중요시 하자.

이렇듯 현재 우리의 본 캠프를 계획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우리말을 왜 지키는지 이해할 수 없던 우리는, 우리말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다. 이오덕학교, 국립국어원 등 후보가 여럿 있었지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택했다. 작아는 창간 20돌째 자연의 흐름을 담은 우리말 달이름을 쓰고, 우리말을 살려쓰려 노력하는 곳이다. 밑은 인터뷰 전문이다.

·작아에서 우리말 달이름, 직책이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우리말을 살려 쓰려 하나요?

말이라는 언어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말과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소통이 있다. 이 소통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통하는 기재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문자와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자는 변하지 않고 그 문자로 존재한다. 하지만 말은 끊임없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 왔다. 말은 역사나 정치,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고, 소통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말은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볼 수 있다.

또 말은 우리 삶과 시공간을 담고 있다. 때문에 멀고, 어떤 뜻도 담지 않은 1월, 2월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과 우리의 흐름을 반영한 달 이름을 쓴다. 단순히 국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 생태 환경을 사랑하게 되는 다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 속에 문화가 들어있는 거 같기는 한데 그것을 정확히 입증 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일들이 있나요?

-아프리카 꼬뜨뚜아르 족은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로 더 이상 민족 언어가 이어지지 못 하면서, 후투티라는 새로 파종시기, 비내리는 날을 예측하던 언어가 사라졌다. 그러한 생태적 문화를 잃어버리며 프랑스의 방식이 아닌, 꼬뜨뚜아르 족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잃었다.

-우리나라에서 생긴 언어들은 다른 민족의 언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느낌과 문화가 있다.

-우리가 쓰는 단어에는 겪고 느꼈던 경험들이 담겨있다. 사전적인 의미 외에 본인의 뜻, 공동체가 부여한 뜻이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영어와는 다르게 우리말의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우리가 쌓아온 의미가 함축되어 다가올 수 있다.

• 우리말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우리말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김용택 시인도 그랬고 나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우리말이라는 것이, 세대와 세대가 접촉할 기회를 만드는 것 같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말이 잘 내려왔다. 대가족 문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핵가족화 되어가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옛말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세대가 생겼다. 시골에서 자연과 같이 활동했던 어른들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는 감나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혹은 그 감나무 하나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말들이 실제로 표현 되면서, 내가 쓰는 말이라는 것이 소통을 넘어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다.

• 은어나 외래어, 유행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 세대가 가진 우리말에 대한 애착 문제라기보다는, 세대 경험하는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말(유행어 혹은 외래어)들이 어느 하나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언어도 언어의 유행이 있다. 물론 그런 언어들은 계속 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런 언어가 원래 기존의 언어들을 밀어내고 망가뜨린다면 문제지만, 그것의 존재를 하나의 문화로 바라보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말을 쓸 수 있는데도 한자, 영어 등을 쓰는 문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민족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약간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이야기로 들려서요)

-민족주의 적으로 우리말을 지키자고 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자칫 국수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우리를 더 높은 위치에 두고 다른 나라를 떠미는 시선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우리끼리,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다른 민족을 밀어내는 '배타성'을 가지는 것이다. 때문에 다소 폭력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민족, 얼 보다는 언어가 주는 덩어리적인 감성으로 다가오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나는 민족의 정신이라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 언어를 지킨다는 것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생태 언어를 예로 들어서 전복들을 가리키는 많은 단어들에 있는데 그 말을 지킨다고 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 4대강으로 인해서 강에 살고 있던 각시붕어와 조개 등의 생물들이 사라졌다. 그렇게 그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개네들을 부르는 말과, 내가 강에 찾아가 표현하던 단어들 사라지면서 자연과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끊기게 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강이 어떤 이미지일까? 강과 관련된 단어를 몇 가지나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을 잃어버리며, 우리는 강도 잃어버린

다.

- 언어를 지키다는 것은, 지금 쓰이지 않게 된 언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말한다. 사라져가는 강 속 생물을 부르는 말을 지키려면, 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 차용어 한자가 우리말의 기초가 되었는데, 우리말을 지킬 때 한자로 되어 있는 언어도 지켜야 하나요?

- 순수한 우리말, 그건 100%는 불가능 할 거 같다. 이게 한문으로 표현 되었다, 아니다 문제가 아닐 것 같다. 우리말 중에 한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빼고 나면 우리말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다면 사용 하겠지만 한자든 우리말이든 우리가 쓰고 있는 한 단어. 예를 들어 '가족'이란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문화를 지키는 것이 더 먼저 일 거 같다.

-다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배우다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럼 먼저 우리의 모국어를 존중해주고 다른 나라의 언어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녀와서

'우리말을 꼭 지켜야 하나?'라는 주장에 민족주의적, 세계주의적인 의견 밖에 접하지 못했던 우리는, 작아를 다녀와 생태주의적 입장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말이 자연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문화를 담고 있다는 작아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였다. 또 '우리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도 해결할 수 있었다. 도구는 한자말일지라도, 그 위에 쌓은 것은 우리의 문화이기에 한자말을 모두 배척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모았다.

새로운 입장을 접하며 민족주의, 세계주의 두 가지 관점으로 공부하기로 했던 것에서 방향을 틀어야 했다.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민족주의와 생태주의라는 두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생각을 더 이어나가다 보니, 민족주의적인 입장과 생태주의적인 입장에는 '말은 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다.'라는 합의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족주의는 '얼', '민족성'이라는 점, 생태주의는 '자연과의 연결점', '시공간, 문화'이라는 점에서 소통의 도구만이 아닌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 한다. 이 앎을 통해, '우리말을 꼭 지켜야 하나?'라는 질문과 함께 '말은 소통의 도구일 뿐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인문학 사전 캠프

인문학 사전 캠프 일정

- 날짜 : 2016년 10월 17일
- 장소 : 월악산 하늘재 국립공원

내용	
12:45 ~ 13:30	점심 식사 (학교)
오 후	13:30 ~ 14:10 장소 이동
	14:10 ~ 17:00 '단어 찾아 삼만 리' 프로그램 진행
	17:00 ~ 17:40 학교로 이동
	17:40~18:40 저녁 식사
18:50~20:00	소강당에 모여서 사전캠프 소감 나누기
비 고	언어 조 13:00 사전 출발

-말과 주변환경의 연결성

프로그램 명 : '단어 찾아 삼만 리'

• 배경

'작은 것이 아름답다.'출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통해 자연과 내가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것, 말엔 문화·정치·사회 등을 담고 있다는 주장하셨고, 조원들은 동감했다. 이 주장은 '말은

소통의 도구 이외의 많은 것을 담고 있다'와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본 캠프에서 '말은 소통의 도구 이외의 많은 것을 담고 있다.'를 기본으로 잡고, '단순한 도구가 아닌 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때문에 말은 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께 이해하고 갈 필요성을 느꼈다.

• 진행

1. 각 조마다 숲 속을 돌아다니며, '산 속 생물 이름'과 '산에 대한 표현'이 적힌 카드를 찾는다.

2. 조마다 찾은 카드들을 모두 사용해 한 편의 시를 만든다.

3. 모두의 투표를 통해 가장 잘 만든 시를 가져온 조가 우승!

• 목적

현재 우리가 지내는 곳과 다른 환경(장소)에서 생활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진다.'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한다.(녹취본은 연구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말을 통해 자연과 관계 맺을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의미

산을 돌아다니며 산 속 생물 이름과 산에 대한 표현을 찾는다. 그를 통해 우리는 산을 더 상상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된 생물 이름과 표현으로 인해 산과 내가 관계 맺을 수 있음을 체험해 본다.

예산: 간식 50,000원

-소감

• 조익준 : 핸드폰을 걷으니까 주위 환경에 집중하게 되고 생활 속 욕설이 없어졌다. 공기가 좋아서 좋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몰랐던 단어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 김민정 : 장소가 주는 역할이 큰 거 같다. 장소만으로 얻는 단어도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몰랐던 예쁜 우리말들을 알 수 있었고 옆 사람과 대화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서명아 : 장소와 나눠준 단어들에 대한 연결성이 생겨서 공감이 커지는 거 같다.

• 장우정 : 언어 조가 의도한 대로 온 거 같다. 핸드폰을 쓰지 않아서 애들과도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강제적으로라도 주변들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특정 공간 안에서 하니까 훨씬 생태적 연결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

• 이가원 : 무의식 속에서 나오던 욕이 많이 않나온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문장에 한번씩 욕을 했었는데 / 이전 세대들은 산에서 많이 살면서 산과 관련된 많은 말들을 사용했었을 텐데 이제 우리 세대는 그런 말들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 세대들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 서하린 : 나도 욕 안했어

• 최형규 : 핸드폰을 안 써서 좋았고 장소가 받은 먹고 들어간 거 같고 언어 조가 의도한대로 잘 흘러간 거 같다.

• 김예림 : 앞 얘기들과 언어 조 계속 하는 거 보면서 잊혀져 가는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졌다. 앞에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참 예쁜 단어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언어 조가 이

번을 통해서 잊혀진 단어를 통한 문화들도 공부 해봤으면 좋겠다.

인문학 본 캠프

인문학 본 캠프 일정

- 날짜 : 2016년 10월 25일
- 장소 : 구로 청소년 문화의집

		내용
오전	10:30~	구로 청소년 문화의집 도착
	11:00~	사전 캠프 일깨우기 본 캠프 시작 선언
	11:10~	‘씻! 그 말만은 하지 마’ 프로그램 진행
	12:40~	프로그램 소감
오후	13:00~	점심
	14:00~	번역 프로그램 & 소감
	15:00~	마무리리 1 -말의 힘(영향력, 권력 폭력)
	15:30~	마무리리 1 -말이 담고 있는 문화
	16:00~	마무리리1 -말과 주변 환경의 연결성
	16:30~	휴식 & 간식
	17:00~	마무리리2 -글쓰고 나누기
밤	19:00~	저녁
	20:00~	대방역오케이 게스트하우스로 이동

	21:00~	게스트 하우스에서 휴식
비고	• 숙소 : 대방역오케이 게스트하우스	

-말의 권력

프로그램 명: 씯! 그 말만은 하지 마 (특정 언어 제한 토론)

• 배경

‘말은 소통의 도구 이외에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전캠프가 ‘말은 자연과 관계 맺음의 다리가 된다.’, ‘말은 시간, 공간, 문화 등을 반영한다.’라고 대답했다면, 이 프로그램은 ‘말에는 힘이 있다.’라 대답한다.

우리는 『1984-신어의 원리』를 읽으며 ‘말은 사고를 제한하는 힘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신호위반 친구들과 몸소 경험해보기로 하였다. 더불어 다음 질문인 ‘앞으로 어떤 말을 써야 하나?’라는 질문에 다가가 본다.

• 진행

1. 토론 전에 선정한 사용 금지 단어들을 알려준 후 하나의 토론 주제로 진행한다.
2. 단, 금지 단어의 선정 기준은 특정 주장을 제한할 수 있는 단어들로 이룬다.
3. 사용 금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마무리 짓는다.

목적: ‘언어로부터 오는 권력과 힘’을 반 전체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토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실험해본다.

• 목적

‘말은 사고를 제한하는 힘도 가진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몸소 느끼며, ‘앞으로 어떤 말을 써야 하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

-아래는 프로그램 당시 사용한 금지된 단어들을 묶어놓은 문서입니다.

특정 단어 제한 토론

신어 사전

공동체 → 집단 : 공동체를 격하 시키는 목적으로 공동체 단어 이외에 다른 하나의 동아리나 이런 단어들도 모두 집단이라고 표현

소속원, 일원, 구성원 → 집단원 : 집단이란 표현 만 있으므로,

스탑, 멈추다, 중지하다, 중단하다 → 잠시, 잠시만 : 여러 행동들을 멈추고 중지 시키는 단어들을 잠시, 잠시만으로 통일한다. 잠시는 행동들을 중지하기는 하지만 그리 강압적이지 않은 어감의 표현

회의 → 모임 : 회의라는 다소 진중한 분위기의 단어를 격하 시키는 목적. 회의 뿐만 아닌 다른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들을 모두 모임이라고 칭함

이기주의, 이기적, 개인주의 → 자주성 : 개인을 부정적으로 표현 하는 단어들을 모아서 자주성이라는 개개인의 존중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변경

사생활 → 자아실현 : 사생활이라는 다소 폐쇄적인 표현보다는 좀 더 뜻을 격상하고자 하는 의미로 변경

사건, 일 → 일 : 사건이라는 단어는 범죄 쪽의 무거운 어감이 들어 있다고 판단, 일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무언가의 문제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

가해자, 범인 → 제공자 : 언어 순화의 목적

피해자 → 손해자 : 피해자라는 단어는 너무 극단적이고 범죄와 연류 되어 무거운 단어라고 판단, 순화의 목적으로 손해자 라고 대체

피해 → 손해 : 일상생활에 그 닥 큰 불편함이 없는 정도. 손해 이상의 표현은 없다.

고통, 아픔, 슬픔 → 불편 : 일상에 약간의 지장이 있는 정도의 강도. 이 이상의 표현은 없다.

의무, 필요 → 요망 : 의무나 필요 같은 강압성이 있는 단어들을 순화 하고 자 대체 요망은 개인이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요지를 주는 정도의 표현

도난, 절도, 강도 → 손실 : 약간의 재산 손해. 이 이상의 표현 없음

폭력 :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불편해져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갈 정도의 강도

싸움, 논쟁, 전쟁 → 의견 충돌 : 부정적이고 썩 단어들을 미화, 순화 하고자 하는 목적

-말이 담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 명 : 번역 프로그램

• 배경

여러 문화권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사용되는 등 문화의 영향에 따라 말의 용도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 또한 다른 문화 속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닌 말들을 찾아보자. 자신이 속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말들을 이해해보자.

• 진행

1. 정호쌤과 함께 준비한 영어 문장들을 저마다 번역하기(영어 문장은 우리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내용들로 준비했다.)
2. 한 문장씩 저마다 어떻게 번역했는지 얘기하기
3. 어떻게 번역했는지 듣고나선 원래 사용되던 문장의 의미를 공유하고 왜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함.
4. 와중에는 직접 우리가 사는 문화권에 맞춰 우리들의 말로 번역해보기.

-당시 진행했던 문제지와 풀이

*David and Goliath situation.

*다윗과 골리앗 = 달걀로 바위치기

성경에서 상대국에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는 다윗이라는 자가 골리앗에 도전한 이야기.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가 안되는 승부, 결과가 뻔한 승부를 표현한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달걀로 바위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It' s (all) Hebrew[Greek] to me.

*그것은 나에게 히브리어이다. =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적었는데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보편적인 언어지만 현재는 어려운 언어가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The Judas kiss.

*유다의 키스 = 이중적인 호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나중에 군병들에게 예수를 잡아가라는 신호로 예수에게 입을 맞췄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며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위험에 빠트리려고 하는 이중적인 호의를 뜻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악어의 눈물이 있다. 악어의 눈물은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난 후 눈물을 흘린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 이도 위선적인 행위를 뜻한다.

Scapegoat

*속죄의 양(염소) = 희생양

성경에서 자신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염소를 태워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양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선 속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뜻을 가진 말이 우리말에도 있다. 희생양 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실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양의 이미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며 생겨난 말이라 할 수 있다. 희생양은 희생이 되어 제물로 바쳐지는 양을 뜻한다.

As old as Adam

*매우 오래된, 진부한 =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담이라는 자가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만큼 오래되었다는 뜻이니, 매우 오래되거나 진부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옛날 얘기의 앞에 붙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라는 말로 해석 가능하다.

cross one' s fingers (I'll cross my fingers for you.)

*너에게 행운을 빈다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cross)란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해석되는 내용에서 대신해 속죄해준다 라는 의미로 행운을 빈다 라고 해석된다.

An eye for an eye

*눈에는 눈 = 눈에는 눈

같은 뜻이다. 이 말은 사실 자신이 당한 것 이상의 지나친 보복을 하지 못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자신이 당한 만큼 그대로 복수해 주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세상의 소금 =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한국에도 있는 표현이다. 유래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 역시 성경에서 나온 얘기로 유래가 성경이라 생각할 수 있다. 빛과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세상에 유익한 존재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

No Cross, No Crown = No pain, No gai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

십자가형이 있었다. 십자가형은 가장 강한 형벌이다. 예수가 다른 이들을 대신해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이에 십자가(cross)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로 두 문장은 같은 뜻이다. 또한 cross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지 생각해보자. 축구를 좋아한다면 크로스 올린다 라는 등 기독교인이 많은 서양 문화권이 아니라면 쉽게 cross라는 말 자체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 내지 못할 것이다.

•비유

How much green you got on you

너 초록 얼마나 가지고 있니 = 너 얼마 가지고 있니

미국 지폐는 다 초록색으로 만들어져있다. 우리말에도 너 배춧잎 몇 장 있어라고 말하듯(만원=배춧잎) 미국에서도 초록색=지폐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속담

People who live in glass houses should not throw stones

*유리 집에 사는 사람은 돌을 던져서는 안된다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돌은 던진다는 말이 비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리 집에 사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지 못하고 돌을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미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자신이 몸에 똥칠해놓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티끌 같은 겨가 묻은 상대를 나무란다는 뜻이다.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닭이 부화하기 전까지는 세지 마라 = 김칫국 마시지 말아라

병아리(닭)가 알에서 나오기 전에는 병아리인지 다른 동물인지 알 수 없다. 혹은 부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얘기는 우리말에도 같은 표현이 있다. 김칫국 마시지 말아라 라는 속담인데, 이 속담은 떡 주기 전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아라 가 원문이다. 이 말은 떡을 먹고 잘 넘기기 위해 김칫국을 마셔야 하는데 떡을 먹기도 전에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행동, 설레발친다고 번역할 수 있다.

a watched pot never boils

*지켜보는 주전자는 쪼체 잘 안 끓는다 = ?

보채면 보챌수록 더 더디게 느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모두들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나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같이 한 번 번역해보자.

-말이 무엇인지 총정리

마무의리1 (말의 위험성 3가지)

1.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태·환경·문화·사회 등, 다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
2. 특정 단어를 제한하는 등 말이 가진 힘·권력성이 있다.
3.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처럼 말은 폭력성이 있다.

• 진행

1. 자연관련 경험, 문화 관련 경험 나누기(감동 받았던 것, 자연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느꼈던 것, 숲, 강, 바다의 생물과 조우했던 것, 등)
2. 언어 권력 관련 피피티 보여준 후, 언어 권력 관련 이야기 나누기(외국에 나가있을 때 영어가 권력이 된다는 것을 느낀 것,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함을 느낌, 법원에서 법관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함 등.)

• 목적

우리가 여태 했던 활동들이 결국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하나, 라는 고민에서 왔고 고민을 하게 된 배경에는 말의 위험성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의 위험성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각자의 경험 또는 자료를 통해 앞으로 얘기할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하나,를 고민해보는 의도이다.

2번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로 말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싹! 그 말만은 하지 마’가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삶에서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는 것.

1번 프로그램의 경우 사라지는 말인 ‘생태적인 말’, ‘옛 문화 관련 말’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이도록 그것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어 본다.

-본 캠프에서 공유한 내용

• 독점 단어

특정집단이 언어를 독점한 다양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식민지배, 조선, 16세기 종교개혁 등 우리가 공부한 것 내에서 이 세가지 예시를 가져왔다.

첫번째는 우리가 세계공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있을 때 함께 공부했던 식민지배로 인해 ‘언어적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다. 영국에게 식민지배를 받아온 인도의 경우, 22개의 공용어에는 영어가 해당하지 않았지만, 의회, 행정부, 사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는 공용어로 영어를 쓰고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여러 나라에 지배를 받아온 필리핀에 경우, 따갈로그어가 공용어이긴 하지만 교육에서의 활용도는 영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고급교육일수록 두드러진다. 출판물 종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입말이 많이 쓰이는 만화책, 소설 등의 비율은 필리핀어가, 교육, 과학, 기술 서적 등은 영어로 출판된다. 이런 경우를 볼 때 대중과 사회적 문제나 기술적인 부분 사이의 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들 알고 있듯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배경 역시 특정 계층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언어 때문이다. 이때까지는 글이란 특정계층 사람들만이 배울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에 세종대왕이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을 안쓰럽게 여겨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게된다. 하지만 처음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양반들에게 천대받는 글이었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그 과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어쨌거나 양반과 평민이 쓰는 글이 달랐으니 계층의 격차가 멀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16세기 당시 유럽의 교회들은 신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다수의 민중은 교회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권력을 쥐게 된다. 교회는 어떻게 신을 독점할 수 있었을까. 신의 말씀을 담은 성서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을 포함한 극소수에 해당하는 당시의 지배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랬기에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면죄부를 파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가능했다. 루터는 이런 위선적인 교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서를 민중의 손에’라는 대담한 구호를 내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가 시작한 것이 바로 성서의 독일어 번역이다. 대다수의 민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가 아닌,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독일어)로 번역하여 성도가 언제 어디서나 성서를 가까이할 뿐 아니라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다음 의사용어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대중이 있을까. 의사용어 뿐 아니라 많은 기술적인 용어들이나 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닌 외래어나 한자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도 필리핀이나 인도, 과거와 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순우리말만을 고집하여 다른 외래어를 배척하지는 말아야하지만 반대로 필요 없는 부분에서 억지로 외래어를 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내가 의사용어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푸코가 지적했듯이 ‘언어의 독점이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 특정집단 비하단어 (이름 붙이는 것에는 어떤 힘이 있나?)

애초에 A씨와 F씨는 서로 다른 존재이다. 그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잘못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특정집단 비하 단어'는 이 사람들에게서 '여성', '학생', '노인' 부분을 끄집어내어 덩어리로 묶고, 그들 집단 중 누군가의 일을 덩어리들이 한 짓으로 만든다. 타고난 것에 전혀 상관없는 특질을 가져다 붙이는 것이다.

몽퐁그려 이름 붙이게 되면, 그 단어의 유통이 쉬워진다. 이 쉬운 유통이 일으키는 문제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다시 '김치녀'로 예를 들어보자. 이 단어는 '남자, 혹은 부모에게 경제적인 의존을 하고', '사치를 부리는' 여성을 뜻하는 말이다. 김치녀가 계속 통용되자 '김치녀'라는 단어는 기호화 되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는 단어도 있다.) 김치녀라 판단할 수 있는 '이미지'가 생겼다는 말이다.

김치녀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여성의 이미지가 따라붙었다. 이러한 기호화는 특정 집단을 욕하기 쉽게 만든다. '저 여자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네?' 하는 단서 만으로도 당신은 '저 여자 김치녀네?'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쉬운 혐오는 되도록 '김치녀'의 이미지에 다가가지 않도록 '자기검열'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사회 주류가 세운 기준에서 벗어나가지 않도록 본인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어는 유통될수록 타고난 것과 '특질'이 서로 연관 있다는 고정관념을 튼튼하게 만든다. '김치녀'라는 단어로 예를 들어보자. '사치'도, '경제력 의지'도 여성의 특성이 아니다. 하지만 최초에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여자'로 몽퐁그려 '김치녀'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고정관념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다.

• 말과 사고의 관계

〈사피어-워프 가설〉

'말을 함으로써 내가 사고하는가'

'사고함으로써 내가 말을 하는가'

(1)동일설: 말과 사고는 동일하다는 것이며 사고란 마음 속의 말이라 어떤 생각이건 자신에게 하는 말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왓슨(J. B. Watson)과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그러하다. 그러나 말 없는 생각, 말 없이 진행되는 운동이나 예술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반대할 수도 있다. 물론 동일설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말없는 생각이란 있을 수 없고, 말없이 진행되는 운동이나 예술 행위도 의식 속으로는 끊임없이 독백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2)상이설: 말과 사고는 상이하다는 것으로 상호 독립적이라고 보는데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사고 우위설: 사고가 말보다 선행적이라서 말은 사고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전통적 견해가 대개 이러하다. 이에 따르면 말 없이도 사고는 가능하다는 것인데 피아제(J. Piaget), 스타인버그(D. D. Steinberg) 등이 주장한다. 가령 아동이 말을 배우기 전에도 사고는 존재한다거나 농아가 말은 못해도 이해하는 사고 능력은 있다는 점, 거짓말하면서 상대방 눈치보듯 말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운다. 또한 동일한 언어 사용자라도 여러 사고 방식

이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언어 사용자라도 동일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말과 사고는 상이하다고 본다.

②언어 우위설: 사고보다 언어가 앞선다는 것으로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 방식을 결정하고 주도한다는 사피어-워프의 언어 상대성 이론이 이에 속한다. 이것은 일찍이 독일에서 싹튼 홀볼트의 언어 세계관설이 발전한 것으로 언어를 통해서 객관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 세계라기보다는 언어에 반영된 주관 세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사고의 기본으로 사고를 지배하며 자연 현상의 이해는 사용 어휘에 영향받는다고 한다. 에스키모족에게는 눈에 관한 어휘가 20여 가지가 있다는 것도 그런 변별 어휘가 있음으로 인해 그런 어휘가 없는 종족의 경우보다 눈에 관한 한 어휘 수효만큼 사고가 분화,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③상호 의존설: 이는 위 ①과 ②의 절충설로 언어와 사고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견해이며 러시아의 비고츠키(L. S. Vygotsky)가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와 사고 능력은 유아기에 평행적으로 발달하다가 점차 사고와 언어 능력이 합쳐져 사고는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는 사고에 의해 논리적이 된다고 한다. 대체로 사고 없는 언어를 생각할 수 없고 언어 없는 사고는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사고의 확장을 통해 언어의 세계를 확대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일부 사람들이 두 주장의 결론으로 주장하는 것은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다.

*객관세계: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한 모든 것을 뜻함.

*주관세계: 객관세계가 아닌 언어에 반영된 세계라고 바라봄.

*언어의 상대성 이론: 우리는 언어를 통해 객관세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세계라기보다는 언어에 반영된 주관세계라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인 무지개색이 일곱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색깔을 분류하는 말이 일곱 가지이기 때문이다. 즉, 서로 인접하고 있는 색, 예컨대 녹색과 청색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경계선은 아주 녹색도, 청색도 아니다. 그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런 모호한 색깔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 프리즘을 통해 나타나는 색은 수십, 수백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반대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종류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짐바브웨(Zimbabwe) 국민 중 80% 이상이 사용하는 쇼나(Shona) 말에서 무지개색은 오직 세 가지 색만으로 표현된다. 빨강과 주홍 그리고 자주색을 한 카테고리 보아 'Cipswuka'라고 부르며, 청색과 초록의 일부를 한 가지 색으로 보아서 'Citema'라 부르며, 초록의 연한 부분과 노란색을 한 가지로 보아서 'Cicena'라고 부른다.

이들은 우리가 일곱 가지로 보는 색을 세 가지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비로소 인식한다는 것을 언어의 상대성 이론이라 한다.

〈말과 사고의 관계 발제〉

언어를 생태적으로 살리는 방법부터 얘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그렇기 위해 ‘강’이라는 단어를 예시로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강’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강’에서 뛰놀던 기억, ‘강’에 있는 생물을 먹은 기억 등이 떠오르는 반면, 요새는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녹조가 떠다니는 이미지만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강’이라는 말을 살려보려 한다. 우선 ‘강’이란 말을 살리려면 ‘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하고, ‘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선 ‘강’을 되살려 나와 ‘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강’을 말하는 것은 ‘강’을 보존하는 것이며, 더불어 ‘강’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하면 ‘강’ 이외의 ‘강’과 연관된 것들도 말하게(살리게) 되는 등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을 살리기 위해 ‘강’과 관련된 이미지를 상상해보다보니 ‘여울’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는 ‘강’에서 ‘여울’이라는 말을 발견했으니 ‘강’과 연결된 나는 자연스레 ‘여울’과도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언어적 연결고리’라고 표현하고, 말을 보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뿌리는 언어를 생태적인 시선과 ‘말과 사고의 관계’를 통해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언어를 생태적으로 살리는 방법에서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 강을 살려낸다고 했었다. 이는 자신의 ‘사고’가 ‘강’을 말하기 위해서 ‘언어적 연결고리’를 지으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말’을 하기 위해선 ‘사고’를 해야 하고, ‘사고’를 위해선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말’과 ‘사고’,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은 계속해서 예시를 든 ‘강’의 생존성을 좌우하는 영향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엔 우리 세대의 ‘언어적 연결고리’를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우리 세대는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과거의 언어와 ‘언어적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다. 이 상황에 놓인 우리들은 ‘과거의 언어와 다시 연결되어야 하나?’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살펴보면 ‘말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다양한 주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주장을 얘기해보자. 첫째로 말은 도구적인 의미로 취급되어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가진 사람들은 말은 우리들의 사고, 즉 생각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생각을 서로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주장은 ‘말에는 소통 이외에도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말’은

우리들이 '사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나의 '사고'는 그릇의 문양이다. 따라서 이 문양이 새겨진 그릇은 나의 주변 환경에 근거한 온갖 만물을 담아낸다는 주장이다.

이 두 주장에서 말과 사고의 관계를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면, '말'은 자신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 '말'은 자신의 '사고'를 담은 그릇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사고'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흔히 '사고'는 자신의 주변환경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고 사상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고'가 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알아보자.

〈1984〉라는 책을 봐도 '말'과 '사고'의 관계를 알 수 있다. 〈1984〉는 빅 브라더 라는 자에 의해 세계가 새로운 언어로 통일되는 이야기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언어는 사용하면 안 되며,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대항할 수 있는 단어들은 하나로 합쳐 '안 좋은 것' 이라고 새롭게 단어를 뜻하는 등, 언어 제한·억압을 담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에선 특정 단어를 제한하면 그에 대한 생각이 막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반면에 특정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 그에 대한 생각이 풍부해지는지 알아보자.

특정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위해선 특정 단어의 이미지와 상상력을 키워주어야, 특정 단어는 물론 특정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도 애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과의 '언어적 연결고리'가 짙어져 '사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고'는 다시 '말'로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모습을 보아 '말'과 '사고'의 관계는 계란과 닭의 관계와 비슷하며,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애매한 것처럼, 말과 사고도 어떤 것이 먼저인지 구분하기 애매하다. 하지만 '말'은 '사고'에 영향을 줄뿐이며, '말'을 하기 위해선 '사고'가 먼저 존재해야 하기에 '사고'가 있고 그 후에 '말'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말'과 '사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향뿐만 아니라, '말'이 가진 힘(영향력·권력)에 대해 의심하고 두려워해야 하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마무리리2 (언어조 본 캠프 마무리 글쓰기)

김예림

〈말은 무엇인가〉

나에게 말이란 '사고'라기 보다 '표현'에 가깝다. 왜냐면 오래 생각하고 오래 고쳐 쓸 수 있는 글과 다르게 말은 즉각적이고 목소리, 단어, 그 상황의 분위기에 맞춰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어렵고 무섭다. 내게는 어려운 표현이다. 그래서 더 약해질 때가 있다. 누구 앞에 나서야 할 때나 가족회의 같은데서 의견을 얘기해야 할 때,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야할 때 그렇다. 그런데 이런 건 그냥 성향이라 자꾸 '소심한 사람', '머뭇되는 사람'에게 '이겨내라'고 말하는 사회가 잘못된 것 같다. 살기 힘들다.

〈현재 연결되어있지 않은 문화와 연결 될 것인가〉

언어조의 인문학을 계속 지켜보며 내가 잘 몰랐던, 접할 수 없었던 언어를 접해봤다. 그리고 그런 언어를 접하며 내 사고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보고 사용하려 노력해보고 싶다.

김민정

〈말은 무엇인가〉

내게 말은 무엇이었을까? 딱히 고민해 본적은 없다. 항상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말의 의미까지는 모르겠다. 평소에 쓰는 단어나 표현의 말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분명히 더 좋은 표현이 있을 텐데, 그냥 쓰던 말이 편하니까 쓰는 말만 쓰기도 하고 친구들이 쓰는 말, 유행어를 써야 그 문화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쓰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장소에 가는가에 따라 쓰는 말이 정해져 있다. 특히 학교에서 많이 쓰는 말과 문화들이 담긴 말들의 경우에 밖에서 학교의 문화를 설명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스탑 회의’ 라던가 ‘간디 같다’ 등등. 또 인문학을 공부하며 농촌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언어들. 세대가 바뀌며 필리핀에서 이푸가오족들의 언어나 노래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보면 언어, 말이 주는 의미는 소통의 도구 외에도 수많은 의미와 표현이 함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번 인문학을 계기로 더욱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더 넓은 표현의 말을 알고 싶다는 궁금증이 생겼다. 말이 우리를 억압한다? 여행을 가서도 그 나라의 말을 알아도 문화를 모르면 의미에 맞게 쓰지 못한다. 앞으로 단어 하나하나 예민하게 받아드리고 말의 의미를 생각해봐야겠다. 오늘 배운 말의 의미를 일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앞으로의 숙제 이지 않을까?

〈힘 있는 자들의 말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의사나 선생들 같이 전문직에서 쓰는 언어는 그들끼리 소속감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공용에서 쓰는 언어의 경우 그들의 말은 우리와 분리하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식품 성분, 화장품 성분 같은 경우 같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김태우

〈말은 무엇인가〉

말은 나에게 없어선 안 되는 것이다. 밥을 못 챙겨 먹으면 괴롭듯이 말을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처지게 되는 거 같다. 일상 속에서 말을 통해 대부분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 같다. 친구들과 농담을 하거나 고민들을 얘기 하거나. 칭찬을 듣고, 해줄 때 나는 즐겁다고 느꼈다. 사소한 것들에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온 거 같다. 그 중에 말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요소인 거 같다. 그 만큼 말은 중요한 것이다.

〈어떤 말을 쓰며 살아갈 것인가?〉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쓰며 살아가고 싶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생각 없이 뱉은 말들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말을 통해서 타인이 보는 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어떤 말을 쓰며 살아가고 싶은 가 보다 저렴한 용어들 쓰지 않으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어렸을 때는 욕을 차지게 잘하는 사람들이 멋있

어 보였고 지금도 영화 같은 매체들을 통하여 접한 욕이 섞인 대사들을 유쾌해 하기 도 한다. 욕이 꼭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웬지 모르게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착하고 순수해서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옷을 고를 때도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듯이 말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어울리는 말을 쓰며 살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허나 나와 어울리는 이미지가 악한 쪽 이라면 바른 말을 쓰며 살기 위해 노력 했을 것 이다.

서명아

<말은 무엇인가>

캠ป์를 하며 지금까지 살면서 '말'에 대해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말은 당연한 것이었고, 너무 일상적인 것이다 보니 '말'이란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다기 보다는 '아, 저 말은 정말 기분이 나쁘다.' 같은 각각의 말들에 대한 파편적인 생각이 전부였다. 그렇기에 말에 대해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나에게 기분이 나쁜 말을 들었을 때가 대부분이었던 거 같다. 일단 난 욕을 거의 안한다. 굳이 욕을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입에 감기지 않아 욕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대해 욕을 할 때 (물론 장난으로 하는 것 말고) 내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든다.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난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내게는 불균형한, 하나의 폭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나도 내가 쓰는 '말'에 대해 자주 고민해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굳이 욕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람에게 따라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특히 자주했다.

<힘 있는 자들의 말에 어떻게 대항 할 것인가?>

사실 잘 모르겠다. 이 글을 쓰면서 어떠한 다짐을 하더라도 분명 나는 나를 규정짓는 말들에 주눅들 것이고 그 범주에 들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젠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된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어떠한 집단을 규정짓는 말을 들었을 때 캠ป์ 때 생각한 것들이 생각날 거고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그저 재밌게 욕먹을 사람들을 비판하는 행동이 아니란 것을 떠올릴 것 같다.

서하린

<말은 무엇인가>

말은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다. 말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에 따라 불편함이 생기기도 한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희망을 얻기도 하는데 이는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말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팔 가서 고생 좀 하다 왔다.

<현재 연결되어있지 않은 문화와 연결 될 것인가>

글쎄.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 개인에 따라서도 선택이 갈릴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나로서는 내가 편한 문화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연결되고 싶지만 만약 훗날 어떠한 사상이나 사고가 확립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선택은 하게 될 것 같다. 아무튼 꼭 어디에나 강제로 얽매이지만 않으면 좋겠다. 자유로운 인생~.

손채은

〈말은 무엇인가〉

말이란 건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것이고 어쩌면 수학같이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배경에 의해 스며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은 내가 살아온 배경이 담겨 있는 것이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이해하지 못할 그런 존재인 거 같다. 쉽게 뺄 수 있는 만큼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기며 힘보다 세고 빠른 무기이기도 한 것 같다. 결국 난 이 말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나에게 효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쓰는 게 가능할까란 의문이 든다. 우린 어쩌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배워 따로 공부하지 않았었던 이 '말'이라는 존재는 가장 어렵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한 것 같다. 하나 덧붙이자면 오늘 번역을 하며 말 속에 박힌 그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으며 참 재미있는 존재인 것 같다.

〈어떤 말을 쓰며 살 것인가〉

위에서 말 했듯이 무기가 될 수 있고, 협상의 도구이자 번지르르하게만 말한다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효과를 주는 중요한 존재인 것 같다. 그렇다면 난 이 말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란 공부가 필요하다. 일단 욕을 쓰지 않는다. 욕을 쓴다면 어떤 경우든 그 닥 좋지 않다. 의미 또한 좋지 않다. 남에게 있어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자. 욕과 같은 의미로 쉬운 무기가 되는 말은 어려운 존재다.

안다연

〈말은 무엇인가〉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다. 어떤 때에는 따뜻함과 위로를 주지만, 어떤 때에는 차가움과 상처를 준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말이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말이다. 말은 독이 되며 동시에 약이 되는 거 같다. 나는 약이 되는 말 보다는 독이 되는 말을 더 하는 거 같다.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이 무섭고 내게 돌아올 말들이 무섭다. 말은 남을 판단하게 되는 하나의 외모가 되는 거 같다. 남들이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남을 '말'로 판단하는 거 같이 말이다. 말은 약과 병이 동시에 되는 거 같다.

〈힘 있는 자들의 말에 어떻게 대항 할 것인가?〉

힘 있는 자들의 말은 나게 뉴스나 신문, 기사 같은 '언론' 같다. 언론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득이 오게끔 말로 조작한다. 그런 힘 있는 자들의 말에 대항하기 위해선 끝없는 관심과 진실의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는 것이 힘. 그것이 대항하는 법이다.

조익준

〈말은 무엇인가〉

나의 맨 처음 생각은 말은, 우리나라의 말은 세종대왕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서 일본에게 빼앗겨 많이 섞인 존재라고 생각 했는데 본 캠프를 진행 하는 걸 참여 하니까 뭔가 말 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것 인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말을 제한해서 사용해 보니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 것 같다. 말은 좋은 것이다.

〈어떤 말을 쓰며 살아갈 것인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떤 말을 쓰면서 살아갈 것인지는 아직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의 수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말투나 억양이 달라지니까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말을 쓴 다기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고민하다 보면 어떤 말을 쓰면서 살아갈지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을까?

조하한

〈말은 무엇인가〉

말은 말과의 포유류 동물이다.

하지만 말은 말을 못한다. 말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하고, 생각을 하면 표현을 한다. 여기서 표현의 방법은 ‘행동’과 ‘말’이 있다. 우리는 ‘행동’보다 ‘말’이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알고 있다. 가령 행동이 말보다 앞선다는 사고는 ‘제어 하지 못하는’, ‘주체 하지 못하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흔히 육체적인 힘이 큰 사람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 중 누가 더 고양된 사람으로 인식 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말로 천 냥 빚을 갚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혁명을, 쿠데타를 꿈꾸기도 하고, 신의 말을 전하기도 한다.

〈어떤 말을 쓰며 살아갈 것인가?〉

하지만 말은 ‘사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우리는 ‘말 하지 않아도 알아야 할 때도 있고, 말로 지은 죄를 엄하게 처벌 받는다. 종교를 주제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올바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사람에게 물었고 모두가 입을 맞춘 듯 ‘행동을 통한 전도’를 올바른 길로 제시해 주었다. 이 경우에 말은 이성의 대명사에서 인간의 욕심의 대명사로 변질 되는 경우이다. 그런 ‘말의 사용법’에서의 측면에서 나는 말은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말은 개그를 하는 ‘웃긴’말일 수도 있겠지만 말에 재미를 담는다는 의미는 말에 영혼을 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나는 어떤 말을 전할까 머릿속으로 추리고 추려서 해본 적이 있나? 용서 받기 위해 고르고 골라서 나를 대변해 보았는가? 의식의 흐름에 따른 말의 연속은 결국엔 허무함으로 끝난다. 말이 사고를 전달하는 기능에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고양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이전 의미에 재미있는 말을 하며 살고 싶다. 사회적인 말의 운동이 아닌 조금 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장우정

〈말은 무엇인가〉

나를 표현하는 것인가, 나를 제한하는 것인가.

원시인들의 언어는 구체적인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점점 인류가 진화하면서 말과 글의 형태가 뚜렷해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 그에 따라 생각의 범위가 넓어졌을 것이며 그에 따라 세상은 발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1984의 신어처럼 ‘shit! 그 말은 하지 마’의 토론처럼 말을 통해 표현을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경우마저 생기는 걸 보니 나에게 말은 어떤 역할인가 고민해보게 된다. 말을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알게 됨으로써 표현이 풍부해질 것이다. 분명 나의 어린 시절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개개인의 생각, 그

리고 그 생각을 대변하는 말로 이루어진 이 사회 속에서 살다보면 이미 '나의 말'이 아닌 예전부터 정해져있던 '남의 말'에 나를 맞춰가며 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미 끝이 정해져있는 커다란 사상의 울타리 안에 합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어떤 말을 쓰며 살아갈 것인가?〉

사실 '어떤 말'을 쓰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앞에 적었듯이 이미 남들의 생각으로 완성된 단어와 말들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나로서는 그저 앞으로 어떤 생각과 말을 할 때 그게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인지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말로 주변을 바꿔갈 운동을 하기 보다는 다들 정말 본인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각자 인생 각자 잘 살자♡

최형규

〈말은 무엇인가〉

말은 무엇일까. 이전의 나에게 말은 '소통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다. 말을 하지 못하면 들을 수도 없게 되고 소통에 있어서 치명적이니까. 이번 인문학으로 알게 된 말이 '소통의 도구'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그 의미와 가치에 신기했다. 나도 모르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평소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뜻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이 흥미로웠다. 어쩌면 그 사람이 뱉는 말들을 통해서 어쩌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유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느낀 말은 '물'인거 같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는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며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 맛도 달라지며 때로는 먹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말'과 '물'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다. 또 '언어'를 독점하는 것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라 했는데 물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이 말과 물은 비슷이 측면이 많은 것 같다.

〈어떤 말을 쓰며 살아갈 것인가?〉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늙어서는 시골에 살면서 사라져가는 우리 말. 예를 들면 하늘재에서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쓰며 살아가고 싶다. 사라져가는 우리말을 지키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언어든 뭐든 문화적으로 획일화 되어가는 것이 많은데 그 안에서 우리말이 사라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 바람이다.

한승희

〈말은 무엇인가〉

말은 사람의 생각 혹은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쓰는 음성기호. 곧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가리키다. 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다. 인간에게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보편화? 된 소통의 방식은 말인 것 같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말을 해왔고 현재에도 쓰고 있고 미래에도 쓸 것이다. 하지만 말은 완벽하지 않다. 나라별로 각자 말이 다르고 같은 나라여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 공용어를 만들어 쓴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인류가 똑같은 언어를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은 말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빨리 과학문명이 발달하여 말을 대신 할 수 있을 완벽한 소통의 도구가 나오면 좋겠다.

〈힘 있는 자들의 말에 어떻게 대항 할 것인가?〉

요즘 인터넷, SNS를 하다보면 다양한 말이 있다. 많은 말 중에 요즘 기성세대들이 많이 쓰는 내용은 대부분 '호칭'이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혐오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 같다. 혐오의 대상은 남성, 여성, 사회적 약자들. 우리는 모두는 인간이다. 인터넷, SNS를 하는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같은 민족들인데 서로 충자를 붙여가며 비하하고 온갖 욕을 하며 서로를 헐뜯는다. 세종대왕께서 열심히 만드신 한글을 후세들이 파괴하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 우리 모두 바르고 고운 말만 썼으면 좋겠다.

통일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채은 명아 다연 익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조 인문학 캠프 정리>

준비과정

앞으로 진행하게 될 인문학 캠프에 방향성을 잡기 위해 두부밥 토크쇼에도 가고 여러 시선의 영화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 나갔다. 통일에 관련 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인터뷰를 다녀오기도 했다. 분단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현대사 책을 읽었고, 통일과 북한에 대해 말하는 책도 읽었다. 인문학캠프 답사를 위해 파주 통일 전망대에 다녀왔다.

<통일을 공부하고 싶은 이유>

1

사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통일, 분단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다들 그렇듯 그런 주제들은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무조건 나쁘다& 외의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아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을 만나게 되면서 나도 관심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가끔 들으면서 내가 태어난 년도 즈음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기근이 몰아 닥쳤던 때였다는 말을 들었다. 나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는 배고픔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사실 그 사람들도 그럴 수만 있다면 자기의 가족들, 친구들, 고향이 있는 그 곳에 살고 싶은 것이다.

2

내가 북한에 대해 접하는 건 대부분 뉴스에서였다. 북한이 도발을 했다, 누구를 처형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나 사람들의 이야기, 통일 같은 것들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 생각하면 무서운 느낌이 거의 전부였다.

또, 각종 매체에서 탈북자가 북한의 사람들이나 음식, 고향조차도 그림다고 말하면 중복이라는 말을 듣기 일수였다. 그런 것들에 대해 돌아보며 북한의 한 면을 그 곳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북한은 &적&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고 느꼈다. 물론 독재체제 같은 나쁜 부분이나 휴전 중이기 때문에 견제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것들과 그 곳의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서로를 오직 무섭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생각을 멈추는 순간 남북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3

사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남과 북은 이미 다른 나라였으니, 지금의 우리나라인 남한이 분단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당연히 오고 가던 경상도의 할머니 집과 우리 집인 경기도가 다른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니 엄청 낯설었다. 할머니나 그곳에 사는 친척들, 심지어는 대구에 사는 만두도 못 보는 것이다. 똑같은 말을 쓰고 똑 같은 것을 간절히 바랐던(일제시대에는 독립이라 할 수 있겠고, 지금은 가볍게 월드컵 응원?) 사람들이 단지 힘이 센 다른 나라 때문에 갈라진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경제성장이니 뭐니 하는 통일에서 오는 다른 이득들을 제껴두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갈라진 한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유일하게 베트남전쟁보다 많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게 한국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것도 궁금했고 우리는 왜 통일을 못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다. 어느새 우린 미국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미국이 깊이 들어 온 것 같다. 흡수된 격이랄까 그대로 냅뒀으면 어떻게든 됐을텐데. 한국전쟁을 보면서 우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구나. 미국이 우릴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 쪽에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을 했다. 평범한 우리 또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다. 우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또래는 완전 관심 없을 것 같다. 북한은 적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다.

우리반 애들의 통일 혹은 북한에 대한 생각

하린: 북한은 노답이다.

태우: 북한은 국민들이 세.

하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느낌.

하한: 매달 못따면 아오지 탄광 간다고 막 그리고.

효연: 아오지 탄광!

우정: 무섭다.

효연: 대북 선전으로 뱅뱅뱅을 틀었다고 한 게 기억이 나.

다연: 우리집은 파주 근처라서 한창 북한이 뭐 쏜다고 난리 났었을 때 문자가 왔었어. 대피 짐 싸 놓으라고. 탱크도 앞에 지나가고 군인들도 많이 다녀서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왔을 땐 충격 먹었어.

형규: 고양시에 아직도 산에 올라가면 삐라가 있어. 그래서 나 인턴 할 때 선생님들이 이만큼씩 가져오고 그랬어.

채은: 뭐라고 쓰여 있었어?

형규: 박근혜 어찌고 저찌고...

채은: 나는 유럽에 놀러 갔을 때 갔던 가게에서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이것좀 사달라우& 이러는 거야. 유럽에 북한 사람이 있어서 놀랐어. 그래서 북한이 생각보다 열려있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 했었어.

영빈: 내가 얼마 전에 인턴 했던 곳에 촬영 도와주러 갔었어. 근데 그 때 촬영한 영상 제목이 통일 전야였어. 통일 전야에 북한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촬영 이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 아버지는 통일이나 남한을 별로 안좋아하시고 자식들은 통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들이 김정일 대학에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고 있어. 그래서 아들이 남조선 문화가 궁금해서 남조선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가 일베 인거야. 그래서 남조선 아이들은 말 끝에 노를 붙인다고 알게되고 일베 용어를 남조선 말로 아는,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어.

하린: 나도 네팔에서 관광 다닐 때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면 북한이냐고 먼저 물어본다? 그래서 내가 아주 강력하게 &no&라고 말 했어. 그래서 북한사람이 네팔에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

지만 북한을 아는구나 생각 했어.

명야: dmz영화제 가서도 외국인들이 꼭 몇 명씩 있고 우리나라 에서도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이 있었어.

다연: 나 일본 갔을 때 일본 현지에서 일본 분이랑 결혼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실수로 북한 이라고 말해서 경찰이 왔었대.

우정: 그냥 생각났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통일 되면 북한에 평양냉면 먹으러 가자고 했었어. 되게 어릴 때였는데 기억이 나. 그래서 되게 충격 적이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효연: 예전에 우리 다 커서 성인이 될 즈음엔 통일이 돼서 군대도 안가도 될 거라고 그랬어.

영빈: 이런 것도 있어. 북한을 우리나라에선 &주적& 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된 사건 터지면 &북한 소행이다& 이러잖아. 북한이 살짝 핑계거리인 것 같아.

두부밥 콘서트

두부밥 콘서트는 최계바라 기획사에서 기획한 남북토크 콘서트 이다. 패닐로는 영화 <삐라>, <황색 바람>의 감독님과 탈북민이자 유니시드 통일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엄에스터 씨가 나오 셨고, 최계바라 기획사의 대표인 최윤현씨가 토크쇼를 진행했다. 북한의 음식인 두부밥과 남한 의 음식인 김밥을 먹으며 토크쇼가 진행 되었다.

- 평가
- 우리가 서로 ‘닮음은 보지 않고 다름만을 보게 된다.’는 엄에스터씨의 말과 ‘통일이 되 면 어떤 재밌는 일들이 있을까’같은 신나는 생각도 해보자는 최윤현씨의 이야기가 인상깊 었다. 또, 탈북민들도 각자의 경험에서 나온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접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 북한의 전부는 아니고 배가 고파 탈북했던 것은 90년대의 이야 기라는 말도 새로웠다.
- 최계바라씨가 ‘예전엔 통일을 해야할까?’라는 질문이 어색했다. 통일이 당연히 해야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질문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고 했던 게 생각난다.

영화

북한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사람이 하늘이다>, <황색바람>, <삐라>, <태양 아래> 총4편의 영화를 봤다.

<사람이 하늘이다> 는 미국 국적이지만 북한이 고향인 대실김집슨 감독님이 다시 고향을 찾아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는 영화이다. 북한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로만 보고 있는 사 회를 지적하면서,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와 별 다를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문화가 더 잘 보존되어 있으며 사람들간의 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다. 이 영화에 서는북한 사람들의 반미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한국 전쟁의 민간인학살이 북한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반미감정의 시초라고 보며, 난징대학살관이나 학자들을 카메라에 비춘다.

- 평가
- 되게 부드러운 영화,, 티비에 나오는 것들에 반대되는 영화였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서 전쟁의 아픔이나 애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았다.
- 다름보단 닮음을 보는 영화인 듯.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에 북한을 가볼 수 있다는게 되게 부러웠다. 별생각 없었는데 우리만 가지 못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가보고 싶었고, 같은 역사를 지닌 나라기에 만나보고 싶어졌다.
- 내 북한에 대한 생각을 완전 바꿔준 영화. 사실 북한이 엄청 못사는 나라라는 인식만 있었는데 북한도 사람 사는 나라라는 걸 느끼게 해준 영화다.
- 확실히 반미 영화란 느낌이 있었다. 감독님이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가 적은 나라란 걸 느끼게 됐다. 감독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국적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도, 이런 영화를 만들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입맛에 맞는 자유만 가지고 있지 정말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

〈황색바람〉은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해 다루는 영화다. 남한에서 탈북민들은 어떤 위치인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남한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며 인권운동을 하는 형제 부터, 언론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선, 북한이 모든게 나쁜 나라는 아니라고 말하는 탈북민까지 다방면의 시선을 다룬다. 또 남한 사람들의 생각 속엔 탈북민이나 북한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물으며 한국에서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 보게 되는 영화다.

- 평가
- 한국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속에서 내가 은연 중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꼈다.
- 사람들마다 탈북민을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그런 명칭 자체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랑 남한에 사는 사람들의 거리를 두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본다. 통일을 하려면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탈북민,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어떤 부분이든 안 좋은 부분만 부각하면 실제보다 더 나쁘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영화에서 어떤 분이 '남한에서도 노숙자나 그 체제안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만 '자본주의 체제가 어때요?'라고 물으면 분명 안 좋은 대답만 나올거다. 북한에도 나쁜점이 있고 좋은점이 있는데 남한에서는 나쁜점만 부각한다.'라고 했던게 인상적이었다.

〈삐라〉는 남한의 대북전단을 중심으로 다루는 영화이다. 남한의 보수탈북민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그에 북한군은 고사총을 살포한다. 그러자 파주의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진보단체들은 보수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폭로한다.

〈태양아래〉는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북리의 지원을 받아 진미라는 소녀가 김정일의 생일 행사를 준비하는 다큐를 찍게 되면서 시작 된 영화이다. 그러나 다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모든 것을 연출, 조작하려하자 카메라를 꺾었다고 말하고 조작되지 않은 북한을 고발하게 된다. 진미에 대한 북한의 통제와 사회의 보여주기식 조작을 다룬다.

인터뷰

인터뷰를 다니며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들었다. 단체로는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자유통일 문화원〉, 〈유니시드〉에서 활동중인 분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고 덕분에 풀리지 않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일부러 보수적인, 진보적인 단체들을 골고루 만나보려 했다.

(다음은 인터뷰 몇 부분을 가져온 내용들이다.)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Q: 단체소개 부탁 드립니다.

A: 저희 겨레하나라는 2004년에 설립 되었구요. 평화통일 시민단체입니다. 2004년에 북측과 관계가 좋을 때 생겼기때문에 북측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2000년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나서는 민간 단체를 비롯해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저희 같은 민간단체들이 통일부의 허가 하에 다양한 교류들을 했고 주로 저희는 북측에 인도 지원 사업을 해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북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현재까지 거의 교류가 중단된 상태예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과의 관계가 많이 안좋아졌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 시민들 내에서 평화통일 의식을 만들어 내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또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Q: 어떤 계기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하시게 되셨나요?(이하나 정책국장님)

A: 우리 세대에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 약간 세뇌 당하듯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생활 하다보니 자연스레 '내가 살아갈 사회가 도대체 어떤 곳 인가?'란 고민이 생겼어요. 이런 저런 거에 관심이 생겼죠.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여러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언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내다보니 통일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 느꼈고 겨레하나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북교류가 막혀서 북에 한번도 다녀와보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작년에 기회가 생겨서 개성과 평양을 다녀왔는데 개성까지 갈 때 승용차를 끌고 가요. 남쪽 허가증을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

북한이 서울에서 시작해서 남쪽 끝까지 가는 것보다 가깝다는 걸 느끼면서 작년에 통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성에서 북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 같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저 사투리나 억양 빼고는 다른 것 하나 없는 똑같은 한국인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벽에 우리

한 민족이 갈라져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한 거 같아요.

Q: 요즘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A: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는 전국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지역 본부 별로 그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별로 결정하고 있고 회의 체계와 회원 모임도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큰 도시잖아요. 때문에 중앙본부랑 사무실을 밀접하게 사용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역본부가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통일을 이야기 해보니 학생과 회사원처럼 계층별 모임이 있어요. 대학생 겨레하나, 청소년 겨레하나, 청년 겨레하나, 노동자 겨레하나 등. 자신의 위치에서 나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사회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사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바라볼 것인가 같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공부도 해요. 역사나 평화, 통일에 대한 것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강연도 열며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Q: 통일이 된다면 어떠한 혼란이든 올텐데 그냥 평화조약을 맺어서 다른 나라로 살면 안되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 통일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에 저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도대체 뭘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어떤 모습인가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남과 북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서 최소한의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는 바로 2000년 남북 공동 성명이죠. 일단 서로의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교류를 만들어가자 라고 시작하면서 단계 시스템 논의를 해 왔어요. 단계적으로 국방문제부터 논의를 하면서 정부 시스템이나 문화 차이까지 얘기하며 천천히 맞춰가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일 방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화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점진적인 통일 방식을 '아 그런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해 급진적인 통일이 아니라 천천히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일단 우리 청소년들이 평화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 하고요. 앞서 말씀 드렸지만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꼭 알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닥칠 통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닥치는 통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통일이 되려면 그 통일에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책임을 다할 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시드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지금 한국에 온지 8년차 되는 엄에스더 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두부밥 토크에 서 얘기 했듯이 북한 이탈 주민 이라고 하고 있어요.하고 있는 일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중국 어 학과 재학 중이고요. 서울에서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Q: 유니시드가 통일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나요?

A: 저는 탈북민들을 징검다리라고 불러요. 먼저 온 통일이라고 여기는데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통일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만 탈북민도 함께 준비된 사람이 돼야한다고 생각해요. 그저 남한에 동화돼버리고 남한화 되어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생을 해서 탈북민이 란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통일 한국이 되기 위해 각자가 정체성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탈북민에 대한 정체성. 즉, 자신이 탈북민으로 살아가면서 통일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정체성이라 생각해요.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내가 통일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며 어떻게 살 지를 그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문화원

Q: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A: 네. 저는 현재 탈북 크리스찬 청년 연합회에 회장을 맡고 있고 고려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이 모임을 맡은 지는 10개월이 되어 가네요. 1월달에 시작했어요.

Q: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산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내려 온지 얼마 안됐지만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리운데 70년 동안 못보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때문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을 떠나서 통일을 해야한다고 봐요. 이미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산 가족분들은 고향이기 때문에 빨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Q: 어떤 식으로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하시나요?

A: 어렵고 거창하기보단 친근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우리나라엔 탈북민 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고 따뜻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싶어요. 어쩌면 통일로 가는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탈북민분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그 분들을 소외시키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기에 그분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통일로 가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온 전히 정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중간 글쓰기

안다연

북한에 대한 나의 생각.

공부를 시작하기 전 내게 북한은 부족하고 인권이 없으며 살기 힘든 나라였다. 독재와 감시가 가득해 인권이 없고 먹기 살기가 힘들어 굶어 죽어가는 나라였다. 우리가 도와줘야하는 나라며 다른 나라의 비해 발전이 느린 나라였다. 뉴스로만 볼 수 있는 나라라 신비하게 느껴졌고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게 느껴지는 나라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관심이 없었다. 어릴 적에는 통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자라왔었다. 그 생각이 강하게 박혀있어 북한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별로 없었다. 조금은 무섭게 느껴졌지만 일본처럼 사람들은 착하지만 정부가 나쁘다고 생각했었던 거 같다. 그러나 인문학을 시작하며 생각이 변했다. 어떤 나라일지 너무 궁금하다. 북한을 볼 수 있는 다크로 북한을 볼 때마다 시선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다. 어떤 눈으로 보면 내가 어릴 적에 생각하던 불쌍하고 인권이 없는 나라인데, 또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나라로 보였다. 현재 느끼는 북한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듯이 북한도 그런 거 아닐까? 싶다. 아직까지 정확히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느끼는 것은 이렇다. 공부를 하면서 북한이 너무 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정말 가까운데 가장 먼 나라. 그래서 아쉽고 안타까웠다. 어쩌면 북한은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나라가 아닐까 싶다. 조금 생각이 다를 뿐.

통일의 대한 나의 생각.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의 대한 생각은 없었던 거 같다.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통일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통일이 옳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지 못 하고 무조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외쳤는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변했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생겼다. 북한과 남한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천천히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통일, 이라는 단어는 북한처럼 가깝지만 멀고 신비하게 느껴진다. 어쩌면 가장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있는데 서로 보지 못 하는 거 아닐까? 싶다. 얼른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태 공부하며 느낀 것.

점점 공부를 하며 북한의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볼수록 혼란스러웠다. 북한을 볼 수 있는 것은 다크 뿐이었는데, 보는 다크마다 다 관점이 달랐다. '사람이 하늘이다'는 북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보였고 '태양아래'에서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인권 없는 나라였다. 어떤 시선으로 북한을 봐야할지 막막했다. 중립적인 시선을 가졌다는 '삐라'와 '황색바람'을 봐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어떤 북한이 진짜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행복한 북한? 자유와 인권이 없는 북한?정이 많은 북한? 살기 힘든 북한? 볼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있어 답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머리만 더 아파졌던 거 같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다보니 이 모든 모습들이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한이 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북한도 여러 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실제로 만나지도 보지도 못 했지만, 다양한 북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분단과 통일의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도 흥미 없는 주제는 아니라서 시작했다. 이 주제를 선택했다는 것의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너무 늦게 주제를 정해 깊게 들어가지 못 하는 것이 아쉽다. 그래도 통일과 분단의 대해 공부하며 역사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다. 무섭게만 느껴졌고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이 가까워진 거 같아서 좋다. 생각보다 북한은 정이 많고 살기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약간 가지고 있었던 북한의 대한 공포감도 사라진 거 같다. 무조건 통일이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해야 해요, 라는 생각도 생겨났고 시간이 지나 무관심했던 통일의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통일이라는 과제가 우리 세대와는 멀게 느껴졌고, 이산 가족일이 더 이상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며 느꼈다. 통일은 모든 세대의 일이었으며 현재 남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의 가족이 북한의 남아있음으로 아직도 이산가족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탈북민들과 남은 그들의 가족들. 한 번도 생각 못 했던 일이라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다. 아직 아는 것도 적고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을 보며 흥미를 느끼고 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의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조익준

영화 북한에 대한 생각들

일단 영화는 디엠지 국제 영화제랑 학교에서 본 영화랑 다른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다.

만약 별 다르지 않았다고 느꼈다면 많이 아쉬웠을 것이다. 황색바람이나 사람이 하늘이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방면에 관점에서 보고 북한을 이해하는데 관점을 두고 봤었다면 삐라나 태양아래 같은 것들은 거의 북한의 어떤 심하게 보수적인 것들을 보여주거나 (태양아래) 아니면 촬영 기법이 좀 특이 하긴 해도 북한에 시민들이 생활하는 모습이나 한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북한에서 남한을 보는 관점을 극과 극으로 잘 보여주는 영화 이거나 (삐라) 되게 많은 영화들을 보면 볼수록 그냥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북한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게 되게 한국이 미련하고 찌질 하다고 느껴지게 말하는걸 보고 오히려 우리 한국에 문제가 많이 보여서 조금 창피했다. 실제로 영상에서 보니까 경제적인 배경 말고는 우리보다 더 화목하게 잘 어울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 북한이 비록 못산다고 만 말하고 좋지 않다고만 볼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 할만한 국민들과에 그 사이사이에 관계를 많이 닦아야 할 겠다.’ 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통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통일이라고 한다면 되게 무거운 문제고 그런 고민 정부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안에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보단 자신이 살아가기도 벅찬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흔히들 말 하는 게 통일하기 전에 네 살 생각부터 하라는 식으로 사회는 말하고 있고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생활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문제도 아니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냥 조금만 우리국민이, 우리사회가 통일에 대해 관심이라도 보인다면 통일은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환쌤이 강의에서 말했듯이 정부에 무능한 판단이 통일을 미루고 있고 북한과에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통일은 대화로 시작해 대화로 끝나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도발하고 핵 포기하라고 으박지르고 서로 경계할 이유가 있는가? 북한에 핵이 문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에 핵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누굴 공격하려고 개발하는 게 아니

라고 누가 그랬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핵개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몰아붙이는 현 남한 정부와 언론도 문제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좋겠고 대화로 해결한다는 우리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말에 그 책임감을 느끼고 하루 빨리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 시켜 주든지 아니면 압박이라도 그만 두었으면 좋을 것 같다.

통일도 한결 원활하게 진행 되리라 믿고 평화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에 통일이 되리라 믿는다.

서명아

통일에 대한 생각

또래들이 다들 그렇듯이, 나에게도 통일은 당연했다. 그렇지만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없었다. 통일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것이었다. 통일의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통일이 된다면 남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통일세가 뒤따를 것이라는 의견에 반박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통일이 단 번에 되는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통일에 뒤따를 혼란에 대하여

겨레하나 인터뷰 도중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혼란이라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의 휴전 중인 상황은 혼란이 아닌가요? 평화통일을 중점으로 생각해보면, 2000년대에 남북이 화해모드로 가면서 금강산 관광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생기고, 길을 잇자거나 군사훈련도 같이 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혼란으로 느껴졌나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런 화해의 과정들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그 단순한 이야기가 통일을 하려면 당연히 겪을 수 밖에 없다 생각했던 혼란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손채은

북한에 대한 혼란과 통일에 대한 생각

이제 인문학 캠프가 어느덧 2주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 난 잘 알지 못했던 분단과 통일, 북한에 대해 공부하며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 정리해보려 한다.

우선 나에게 가장 큰 혼란을 가져다 준 것은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부터였다. 통일을 공부하기 위한 북한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영화, 언론 다양한 매체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영화로는 사람이 하늘이다, 태양 아래, 황색바람, 뼈라를 봤는데 덕분에 혼란만 증가했었다. 사람이 하늘이다에선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북한의 모습을 보게 됐다. 정이 많고 사람이 그저 잘 살고 있는. 가족같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들을 보며 과연 우리나라 언론에서 떠드는 말들은 다 허구인가하는 의문을 만들었다. 북한에서 사는 사람 역시 남한 사람과 비슷하다 느꼈다. 어찌보면 우리는 북한의 하나로 일관된 주입식 사상에 대해 욕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꼈다. 우리나라 역시 입맛에 맞는 표현만을 허용하며 다르다 하여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욕하기 일수였다. 미국과 일본에도 있는 공산당은 우리나라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 관한 나쁜 얘기만 떠드는 언론에 의해 난 북한을 알지 못하구나하고 느꼈다. 또한 종종 영화에선 북한 도시 모습을 비춰주는데 그게 마치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같은 촌스러운 철수와 미희 포스터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며 동질감을 느꼈었다.

가장 혼란스러운 영화는 태양 아래였다. 태양 아래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북한 영화에서의 조작됨과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때 난 사람이 하늘이다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계속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는 북한 사람들을 만들고 북한 연기자들은 좋은 말만 하며 북한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니 과연 진짜 북한의 모습을 무엇일지 헷갈렸다. 진정으로 내가 북한을 알려면 직접 가는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덕분에 난 북한을 그저 인권 유린에 거지 나라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평범한 나라와 다를 게 없음을 느꼈고 미국이나 열강 같은 나라들과 힘의 차이를 느꼈다. 언젠간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놀러가 이색적임을 느껴보고 싶다.

통일을 공부하기 전, 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다. 과연 통일을 해야할까? 굳이 통일을 왜 할까같은 통일의 유무부터 고민을 했다. 이미 나라가 분단된지 71년이 흘렀고 사람들이 떠드는 민족의식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굳이 왜?하는 생각이 있었다. 어렵פות이 통일을 해야한다고는 느꼈지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맞더라도 나에겐 다가오지 못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며 통일을 해야되는구나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단절된 섬나라가 된 남한은 발전을 위해서란 이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느끼면서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엔 혼란이 가장 큰 이유일 뿐 나를 설득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모든 변화엔 혼란이 따라오고 하물며 대통령을 뽑는데서도 혼란은 쫓아온다. 그리고 난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가기를 희망한다. 그런 나의 소소한 기대를 위해서라도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물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궁금증인 채로 끝나버린 이야기도 있었지만(예를 들면 북한 같은. 난 북한을 직접 가보기 전까진 북한을 제대로 알진 못할 것 같다.) 생각하기를 외면했던 일들에 대해 되짚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얼마 남지 않은 준비 기간간 애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각자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사전캠프

사전캠프와 본캠프의 의미를 다르게 뒤 진행을 했다. 통일을 중점으로 둔 본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선 아이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접적으로 북한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한 시선에서 보여주기 위해 기사나 영화 등의 매체를 사용해 진행했다.

정환쌤 강의

통일이 되는 역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회담과 나라간의 관계를 풀어내기 어렵다고 느꼈고 역사선생님인 정환쌤의 도움이 필요하다 느꼈다. 때문에 통일이 되는 과정을 정환쌤께 부탁드렸고 정환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탄생의 배경부터 얘기를 시작하며 끝으론 미국과 우리나라, 북한, 소련의 얘기를 해주며 마무리했다.

정환쌤 강의 ver. 1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

-<유럽의 중세시대>

-중세시대의 유럽은 영주를 중심으로 한 장원의 형태였다. 농노들은 영주가 소유하는 경작지

에서 경작한 농산물들을 대부분 영주에게 바쳐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원 내에 남는 땅인 산림이나 공동방목지를 통해서 온전한 이익을 얻곤 했다.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시장의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럼으로써 시장의 주변에는 도시가 생성된다. 시장이 생기고 영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부를 쌓을 수 있게 되며, 시장을 잘 활용하여 돈이 많아진 성안의 사람들(부르주아)은 더 이상 영주의 관섭을 받지 않고 싶어진다. 부르주아들은 투자의 개념으로 땅을 사들인다. 개방 경지나 공유지, 황무지에 울타리를 둘러놓고 그 곳을 사유지로 한다. 하여 토지가 상품을 생산하는 곳의 개념이 된다.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니 장원의 형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을 찾아 도시로 모인다. 토지, 즉 생산수단을 잃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고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가가 된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며 대규모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 이것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공장을 돌리며 경제 상황이 좋아지자, 국가가 나서서 산업을 격려하기 시작한다. 국가가 나서서 가난을 비정상적임으로 만들어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시대관으로 전환되어 간다. 노동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부를 축적하게 된 상인들은 영향력이 세지게 된다. 자본가 계층은 중세의 신분제가 싫었고, 노동자들은 많은 수의 상인과 성직자들을 감당할 힘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맥락에서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된다. 프랑스 혁명은 노동자들만의 혁명은 아니었다. 자본가들(부르주아)이 지원을 해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프랑스혁명 조약 당시 재산, 안전, 권리를 보장해달란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도입한 점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제다.

〈민족주의〉

- 다양한 장원, 촌락 공동체, 도시 등의 작은 단위에 소속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 &나라& 개념이 등장한다. 1490년 유럽에 자치권을 행사하던 국가 급의 단위들은 약 200개였으나 1890년 무렵엔 30개의 국가만 남게 된다. 지방 자치들이 힘을 발휘하던 지역들이 근대화 되며 나라로 엮이게 되는데 여기서 민족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민족주의 레시피〉

-우리는 수 천 년의 흥망성쇠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 (공통 된 역사).

-표준어 만들기

-국립 중앙은행을 설립

-공통의 적을 함께 물리치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애덤스미스는 국부론의 저자로서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한다. 수요 공급이 알아서 조정된다는 점에서 수요에 맞게끔 공급이 조정된다는 점을 얘기한다. 애덤스미스의 사상 기반엔 모두가 합리적

인 소비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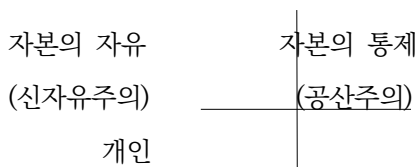
그러나 대표적인 문제론 자본가는 자신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 사회적인 문제를 무시하기 시작한 다. 그럼으로써 빈민가가 조성되고 아동 노동이 발생한다.

카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의 저자로서 원래는 철학자였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 부른다. 자본주의의 구조를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자본가VS생산수단을 뺏긴 다수의 노동자로 바라본다. 결국 생산수단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끝없이 벌어 질 것이고 생산 수단의 공동소유는 당연해질 것이라 얘기한다.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라 부른다. 공산주의에선 모든 것을 국가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수요와 공급을 책임진다. 계획 경제 시스템 속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공급이 많아지거나 수요가 많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또, 모든 것을 집단화 한다. 모든 국토의 국유화, 이윤의 공통 분배 등이 있다. 전체의 이윤을 위해 그 것에 반하는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국가의 힘이 세진다.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던 나라들을 크게는 자본을 통제하기 위한 공동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통제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로 나눌 수 있다. 스탈린과 레닌의 소련이 자본을 통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고 나치의 경우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제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와 자본 통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북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과는 다른 노선이라 할 수 있다. 온갖 근대적인 체제로 포장했지만 결국엔 왕조국가와 같은 정치체제이다. >

<좌표>

우리 (민족, 국가)



우리나라는 주적을 북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좌표의 오른쪽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사회가 왼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빨갱이 취급을 받기 쉽다. 자본을 통제하려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상에 간혀 논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도 빨갱이와 증북으로 몰리며 배척당한다. 우리 사회는 두 축(오른쪽,위쪽)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비어있다. 좌표 축이 잘 형성되어있고 투표를 통해 사회 안에서 좋은 방향으로 논의되고, 조율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통일이 될 수 있다.

정환쌤 강의 ver.2 <분단의 과정>

독립운동가들이 원했던 사회는 유럽과 가장 비슷하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의료, 전기, 철도 같은 것들은 국가가 제공하자는 이야기다. 대학의 학비도 모두 국가에서 지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은 임시정부가 꿈꾸던 것들을 법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만든 헌법 중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그 당시 임시정부만 있었던 것 아니다.
(아래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1945년 - 1948년, 약 3년 간 한국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이다.)

한국의 해방과 신탁통치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들

-일본의 항복으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강대국들의 논의가 있었다. 그렇기에 한국의 독립에 관해서도 각종 회담이 있었다.

처음으로 한 카이로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이 한국을 해방하여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 후 1943년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한 테헤란 회담에서는 한국이 완전한 독립을 가지기 전에 약 40년의 해방 기간을 가진다는 내용을 논했다.

재차 열린 1945년 얄타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이 다시 참석하였는데, 미국의 루스벨트는 '필리핀은 자치정부를 준비하는데 약50년이 걸렸다. 한국은 2-30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련의 스탈린은 '한국인들이 그들 자신의 정부를 세울 수 있다면 탁치가 필요한가.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미국은 신탁통치기간을 길게 보았으나 소련은 신탁통치기간을 짧게 보았던 이유는, 독립운동가들 중에 좌파계열이 많았고 대중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해방한국의 미래를 그리던 독립운동가들

여운형

중앙일보 사장 등을 하며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해방 전부터 해방의 기미를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해방 1년 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에 145개 지부가 있어 지역마다 일제청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여운형은 '일제의 탄압에 직접 싸워온 거대한 세력은 국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3천만 민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임시정부와 여운형의 시각은 차이가 많았다. 임시정부는 정부의 형태와 기관(교통부 등)을 다 갖춰놨었다. 여운형 선생은 국민도 없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오히려 친일파를 제외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꾸려나가야 한다, 임시정부만이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을 펼쳤다.

박헌영

좌파독립운동가로 대표적인 박헌영은 벽돌공으로 위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조선 내에서 사상을 퍼뜨렸다. 일제를 상대로 파업을 하고, 일을 게으르게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며 내에서 노조를 만들었다. 또, 8월엔 테제를 발표했다. 내용은 &해방 된 조선의 현 단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인데 이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였다. 얼마 뒤엔 조선 공산당을 재건한다.

결국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박헌영이 영향력을 확대하자 안재홍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은 건준에서 탈퇴한다. 결국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 그렇지만 주석은 이승만, 내무부장 김구, 군사부장 김원봉, 재정부장 조만식 등으로 그 구성이 민족주의자나 좌우파가 섞여있었다. 이 시점부터 미군정의 강력한 오인을 받게 되며 여운형은 후에 이를 선포했던 것을 깊이 자책한다.

이와 같이 독립운동도 여러 관점이 있다.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신탁통치는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한다.

이 때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 한다&라고 오보를 냈으며, 실제 결정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퍼지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좌익은 모스크바 3상 결정을 존중했고, 우익은 무조건 즉시 임시정부 구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친탁은 민족반역자, 반탁은 애국자가 되며 좌익은 매국노, 무장 세력은 애국자로 인식 되었다. 우익에 많이 분포해있던 친일세력들이 이 때 애국자로 둔갑한다. 우익에서 신탁을 찬성한 송진우는 암살되었다. 임시정부는 &미군정 산하의 모든 한인직원들은 임정의 지휘를 받을 것&이라 하며 총파업을 하고 김구는 미군정의 눈 밖에 나게 되기도 했다.

이승만

이승만은 해방 후 1945년 10월 16일에 귀국했다. 귀국 전 10월 13일~15일에는 맥아더, 하지와 3자 회합을 가졌다. 이승만은 완전한 미국의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맥아더의 전용기를 타고 공식적으로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인민공화국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이승만이 국내 라디오 방송으로 미국과 관련 된 것들이나 전쟁의 상황 등을 내보내줬었기 때문에 미국과 친밀한,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여 주석으로 취임한 것이었다.

10월 23일에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어 한민당, 공산당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며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었다. 그러나 11월엔 말을 바꾼다.

11월 25일에는 김구, 김규식, 이시영 등의 임시정부 인사들이 모두 &개인적으로& 귀국한다. 조선 사람들의 기대와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미국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차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밖에 귀국할 수 없었다.

이렇게 독립 운동가들이 하나씩 귀국한다. 그 후 남북 모두 권력을 잡은 것은 소련과 미국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었다. 북한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은 조만식이었으나 소련과 반대되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 채 사라졌으며 소련의 눈에 맞는 김일성이 권력을 잡았다. 또한 남한에서는 김구가 아닌 미국의 눈에 맞는 이승만이 권력을 잡게 된다.

1945년

2월 알타 회담

8월 15일 일본 천황 항복

8월 20일 테제 발표

9월 3일 조선공선당 재건

5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9월 19일 김일성 귀국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

<p>10월 16일 이승만 귀국</p> <p>11월 3일 조만식 조선민주당 창당.</p> <p>11월 25일 김구, 김규식, 이시영 등 &개인 자격으로& 귀국</p> <p>12월 13일 김두봉, 최창식, 한빈, 무정연인파 공산주의 지도자 귀국.</p> <p>12월 28일 모스크바 회의에서 신탁통치 결정.</p> <p>1946년</p> <p>3월 1일 우파는 기미독립선언기념전국대회를 서울 운동장에서, 좌파는 3.1 기념 전국위원회를 남산공원에서 따로 진행</p> <p>1947년</p> <p>4월 3일 제주 4.3 사건</p> <p>1950년 - 한국전쟁 발발</p>
--

이시기 미군정의 한국에 대한 이해

이시기 미국정부는 &차라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이런 골치 아픈 일 없었을 텐데.& 라는 느낌이었다. 국무부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아니라고 말했던 걸로 알 수 있다.

일본을 점령할 때 점령사령관 맥아더는 민정관을 2천명 두었다. 장군의 명령을 받는 미국과 달리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가 깔려있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일본 군인들은 승산 없는 전투에 목숨을 걸고, 점령당하면 자결을 했다. 반면 한국을 점령할 땐 근처 일본에서 전쟁을 하던 존 하지 중장이 정치를 맡았다. &미군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의 직책은 지금까지 내가 맡은 직책 가운데 최악의 임무였다.&는 말을 통해 존하지 중장이 임무와 맞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툴렀다.

이 때가 공산주의 VS 자본주의 구도가 맞붙을 때였다. 공산주의가 세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체제를 넓히고 싶어 했고 우리나라의 신탁, 반탁 운동들도 각 나라의 지원이 있었다.

미국 점령군 사령부의 기본방침은 일제 관료 및 총독기구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 넘겨준 주요 내용엔 한국인들은 군정청 근무 한국인 통역관은 400명 대부분 한민당, 한민당지지 세력이었다. 이들 지도부 70명 중 유학파와 교수, 언론인, 변호사, 의사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중농이상 지주는 27%였다. 또 경찰간부 1157명 중 949명이 일본 경찰 출신이었다. 대부분 친일을 하여 부를 쌓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한민당과 흐름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법이나 행정에 대해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친일을 통해 공부를 한 이 같은 사람들이 맡을 수밖에 없긴 했다.

PPT 강의

애초에 다양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기 위해 사전캠프를 꾸렸으므로 영화와 기사 등을 담은 PPT 강의를 했다. PPT 강의 순서로는 북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영상, 사진, 토의)- 언론에서의 북한- 영화로 보는 북한-황색바람 영화시청-북한얘기 아이엠그라운드-아젠다세팅-북한을 왜 이해해야 할까-토론- 마무리 식으로 진행했다.

북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학교 사람들을 설문하고 인터뷰 영상을 찍었다. 대체적으로 통일을 원하지만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위에 준비 과정에 설명되어 있는 영화(황색바람, 사람이 하늘이다, 태양 아래)를 애들에게 짧게 편집하여 보여주었다. 각각 색깔이 다른 중요 부분을 잘라 보여주며 결국엔 그 사람의 경험에 한정되지 않는 얘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때문에 언론으로 바로 이어가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다른 색깔을 보며 우리는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걸 얘기했다.

과연 어떤 모습이 진짜이고 가짜인진 눈으로 보지 않았기에 느낄 수 없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선 대체적으로 핵의 모습이나 굶주림의 모습 이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무리 할 때엔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에 대한 토론도 넣었다.

황색바람 영화를 본 뒤엔 각자 소감 점 감독님께 보내드릴 질문을 받았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 이해를 더 못하겠다, 굳이 통일을 해야하나, 대중적인 북한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탈북민들의 삶이 우리나라에 온다고한들 결코 좋아지는 게 아니란 걸 알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어 각자 북한 이야기하기 아이엠그라운드를 진행했다. 아이엠그라운드를 함으로서 필터링 없이 생각 나는 단어를 내뱉어야 했으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넣은 코너였다. 생각보다 북한 음식, 김씨 가문 독재체제, 나라적임을 많이 얘기했고 김정은과 북한 음식, 핵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북한 얘기 아이엠그라운드를 하고 바로 다음에 아젠다세팅이란 얘기를 한다. 아젠다세팅이란 미디어가 어떤 의제를 비중있게 다루면 수용자들은 그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지난 십년간 북한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이 쓰인 때는 2015년 8월인데 이 때는 북한이 핵을 개발했을 때다. 십년간 북한과의 경제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었으나 핵을 얘기하였고 다음으로 개성공단 교류가 막혔을 때로 예시를 들었다. 이처럼 우린 언론에 의해서 다양한 면을 보지 못함으로 일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얘기했고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양한 면을 봐야한다고 얘기했다.

끝으로 흡수통일과 평화통일, 우리가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며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차이, 통일세, 무력으로 했을시에 생기는 민간인 피해 등을 들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각자의 생각도 들어보고 평화통일을 위해선 통일을 함께 이뤄나가야 할 대상인

북한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며 마무리 지었다.

설문

사전에 북한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듣기 위해 학교 설문을 돌렸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6학년 인문학 통일조입니다.
저희가 간디인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알기 위해 설문지를 돌리려고 합니다.
성심성의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년 남 여

1.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 아니요

1-1. (네 라고 대답한 사람만 답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2.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람만 답변)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 통일이 된다면 어떤 통일이 되면 좋겠나요?

3.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 일은 무엇인가요?
ex) 금강산 구경, 평양가서 냉면 먹기

4.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결과 (주관식 답변의 경우 위의 답변부터 많은 수로 나열했다.)

응답자 총 92명

1.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75 아니요:13 기타:4

1-1. (네 라고 대답한 사람만 답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적인 이유(경제성장) 후에 발전할 우리나라가 기대

-우린 한민족이기 때문

-군대가기 싫음

1-2.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람만 답변)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살고 싶음

-각각 다른 나라로 살면 좋겠음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싶음

-그냥

2. 통일이 된다면 어떤 통일이 되면 좋겠나요?

-평화통일

-흡수통일

-행복한 통일

-좋은 통일

3.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 일은 무엇인가요?

ex) 금강산 구경, 평양가서 냉면 먹기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기

-냉면 먹기

-북한 여행, 북한 시내 돌아다니기

-차타고 중국가기

-김정은 만나기

4.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핵

-독재정권

-공산주의
-불쌍한 나라

영상

학교 사람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은 영상으로 찍고 편집해 애들에게 보여줬는데 대중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사전캠프에서 튜 영상은 <당신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와 본캠프에서 본 영상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로 진행했다. 총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인터뷰 했으며 영상 속에선 14~16명의 인터뷰어가 등장한다.

첫번째 <당신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상 속에선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의견이 나온다. 질문은 북한에 대한 생각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것이었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핵 -공산주의 국가 -나눠져 있는 옆에 나라 -좋지 않아요 -잘 몰라요 등 대다수의 의견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두번째 <통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상에선 각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모르겠다와 긍정적인 내용이고 부정적인 인터뷰 내용을 많이 접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통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싶긴 한데 어렵지 않을까요 -차라리 휴전상태도 싫고 그렇다고 하나의 나라도 싫은데 다른 두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지만 상상이 잘 안돼요

통일에 대해 좋은 의견은 갖고 있으나 뚜렷하지 않은 모습도 보였으며 어렵다라고 답변을 준 사람도 있었다.

본캠프

기행 오두산 통일 전망대-임진각-강의-비정상회담

파주기행

사전캠프에서는 북한에 대해 공부해보고, 기행 후의 본 캠프에서는 통일과 분단에 대해 생각해 본다. 파주 기행에서는 앞에서 공부한 북한이 얼마나 가까운지, 분단과 휴전이라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했다.

파주

坡州市 (언덕 파, 고을 주, 저자 시) 파주시로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한 도시로서 북부로는 임진강을 경계로 북한 개풍군과 마주하고 있는 도시다.'

기행장소로는 오후 강의 장소인 서울과 가장 가까운 파주를 선택했다. 도로를 지나다니는 탱크, 곳곳에 보이는 부대, 통일과 안보를 말하는 선전문구들. 파주 도로를 지나다니는 것만으로도 새로

운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지나다닌 도로의 표지판에는 개성, 평양으로 가는 길이 표시 되어있어서 새삼스레 분단을 실감했다.

오두산통일전망대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노력의 발자취, 북한실상 등을 전시해놓은 공간으로서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면 북한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1층은 통일 정책이나 노력, 북한 얘기 등을 담은 전시가 진행중이고 2층에선 영상 상영,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담은 공간이 있다. 3층부터 4층까진 전망대로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이 위치해 있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는북한을 보고 팀을 나눠 미션수행을 했다.

제비뽑기로 팀을 나눈다. 지령 수행자들이 카톡으로 1~21번 중 번호를 말해주면 번호에 해당하는 지령을 진행팀에서 보내준다. 지령에 따라 사진, 영상, 글 등을 수행자들이 진행팀에게 보내고 다시 새로운 지령을 선택한다. 지령이 문제일 경우 인터넷 검색이 아닌 전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령〉

1. 기차 안에서 사진 찍어오기
2. 로비에 있는 타일로 된 글씨 중에 &압록강& 찾아오기
3. 우리가족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편지쓰기
4.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는?
5.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에서는 통일의 과정을 세 단계로 보고 있다. 그 세 가지의 단계는 무엇일까?
6. 오두산 통일 전망대의 관광객 중 한 명에게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오.
7. 지령을 받은 뒤 5분 뒤 걸려 올 전화에, 고덕 조만식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와 정문에 동상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8. 오두산 통일 전망대와 북한의 거리는?
9. 6.15공동선언을 위해 남북의 정상이 만났다. 남북간 대립의 역사는 6.15 선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평가된다. 남북의 두 정상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한반도 스스로의 평화 통일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충격과 희망을 안겼다. 이 때 각국의 정상은 누구였으며 몇 년도였는가.
- 10.통일 전망대는 00강과 0강이 만나는 자유로 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강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11개의 지령

(정답: 5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7 / 독립운동가, 해방 후 북한에서 조선민주당창립, 소련에 의해 암살, 공산당에 반대되는, 조선의 간디, 8 / 2100m, 9 / 2000년, 김대중 김정일, 10 / 임진강, 한강)

임진각

‘임진각은 1972년 북한 실향민을 위해 세워진 장소로 현재는 관광장소로 유명하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는 망배단, 위령탑, 한국전쟁의 병커, 자유의 다리, 등이 있다. 한반도 모양의 지령을 딴 통일 연못이 자유의 다리 아래에 위치해있고 평화의 종, 미국군 참전 기념비 등도 있다. 남북 교류 및 화해 장소로 행사를 자주 진행하고 있으며 평화와 환경을 상징하는 장소다. 휴전선에서 불과 7km떨어져 있는 지점으로서 통일로의 최북단이다. 유일하게 남과 북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다.’

통일전망대에 다녀온 후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으로 가서 자유의 다리, 망배단, 남북을 오가던 기차를 간단히 둘러보고 점심 도시락을 먹었다. 임진각에서는 맨눈으로 북한을 보기 어렵지만 철조망으로 끊겨있는 다리나 멈춰있는 기차 같은 것들, 철조망건너로 지나다니는 군인들이 분단과 휴전이라는 상황을 실감 할 수 있게 해준다.

강의

하자센터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북한의 영화와 경제에대해 공부하신 유영호 선생님께 강의를 요청했다. 초반엔 사전 캠프 때 받은 북한에 관한 질문을 토대로 북한 이야기를, 후반엔 통일에 관한 강의를 부탁드렸다.

북한에 관한 질문

1. 북한에서 김일성을 반대하는 세력은 없나요? 정권을 뒤엎으려는 쿠데타는 없었나요?
2. 북한에서 역사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3. 북한에서 해외 여행은 어떻게 가죠?
4. 북한에서 제일 큰 죄는 어떤건가요?
5. 베를린 영화에서 포경수술을 안 한거 보니 북한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로 포경수술을 안하나요?
6. 북한이나 소련은 공산주의에서 출발했지만 북한에 맞춰 변형된 체제라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7.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게임같은 걸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나요?
8. 북한의 현 상황은 어떤가요?

강의내용

- 흡수통일, 평화통일, 무력통일. 통일의 형태들과 평화통일을 해야하는 이유
: 우리나라 통일 정책
-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
: 경제적인 이익

: 평화의 관점에서

- 나라간의 이야기

: 강대국과 한반도 통일 (북미관계, 핵, 통일 된 한국의 미래)

(기억나는대로 적는 강의이야기(너무 열심히 듣느라 노트북 필기를 까먹음))

북한이야기

-북한에 대해 고정적인 시선이 많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어떤나라라고 규정해두고 조금이라도 그 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북한이 당연히 징병제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 북한은 모병제다.

-북한에서 그런 큰 쿠데타가 일어났다거나 하면 한국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많았을 거다. 그런 것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알아냈을 것이다.

-북한은 민족을 중요시 생각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역사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럴 것이다. 포경수술을 한국처럼 많이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

통일정책

남한 통일정책의 공식이름은 '민족공동체화해방안'이다. 북한과 남한의 통일 정책의 다른 점은 북측은 연방제를 주장하고 남측은 연합제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처음 제안 했던 연방제에서는 연방제가 통일을 위한 과도기라고 보았지만, 80년대에 제안한 고려연합국에서는 연방제가 완성 된 형태임을 주장했다. 반면 남한에서는 연합제를 제안했다. 이 두 제안의 차이는 미국과 같이 하나의 국가 안에 체제만 여러개인 것과 유럽연합과 같이 다른 두 나라의 연합인 것의 차이이다. 북한의 연합제는 국가가 하나이기 때문에 국방과 경제, 지도자 등을 하나로 합쳐야 하고, 남한의 연합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의 경우엔 국방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에서는 &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강대국과 통일의 관계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보냐는 질문에) 여러분은 통일이 언제쯤 될거라 생각하나. (20년 후쯤 될 것 같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50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생각보다 통일이 금방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북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북한은 남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과 전쟁 중이고 미국을 적이라고 생각한다. 남한은 미국에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휴전 협정에도 남한은 빠져있다. 이런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사실 통일은 물밀려오듯이 금방 올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진다. 한반도의 위치에 군사기지가 있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동북아의 판세에서 굉장한 이점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무장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일본이나 한국같은 다른 나라들도 핵무장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기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유영호 선생님께서 북한에서 오신 지 5년이 된 김련희님을 데려오셨다. 김련희님은 중국을 갔다

가 브로커에게 속아 여권을 뺏기고 한국으로 와서 북한에 송환해달라 하며 시위를 하고 계신다.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탈북을 한 사람이 아니다. 강의가 끝나고 북한에 대한 질문을 들어 보았다.

1.북한의 교육이야기

-북한사람들은 모두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안다. 초등학교 내내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각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찾아준다. 학교 악기실에 가면 악기가 가득 펼쳐져 있는데, 다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나는 바이올린을 했다. 그렇게 재능이 있으면 악기를 하고 재능이 없다면 공장이나 맞는 일자리를 찾아준다. 한국에 와서 청년실업이 문제인 것을 보고 놀랐다. 북한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한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농사를 하다가도 연주단이 연주해주는 음악을 듣는다.

2.한 가문이 권력을 이어받아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

-북한의 김정은은 남한의 대통령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인민들의 아버지이다. 예전에 한국전쟁으로 북한에 고아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 전쟁 통에서도 고아들을 다른 국가로 유학을 보내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다. 재일조선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인학교에 북한에서 매번 돈을 보내왔는데, 굶고 있는 고난의 행군 때에도 빠짐없이 돈을 보내줬다. 나는 그때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한 번쯤 안 보내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식보다 밖에 내놓은 자식은 더 아픈 손가락이다,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런 보살핌을 받은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이다. 어떻게 우리가 어버이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나.

3.집을 국가에서 정해준다고 들었다.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남한 사람들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나? 내가 지금 강남에 살고 싶다고 해서 강남에 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남한에서도 자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돈이 주인이다. 북한 사람들은 아마 노숙자라는 말을 이해 못할 거다. 집이 왜 없지? 북한에서는 가족 인원 수에 따라 집을 준다. 굳이 집이 없는 경우는 결혼을 했는데 그 때가 너무 결혼 성수기라 집을 배정받는 것이 조금 밀리거나 그랬을 때 아주 잠깐이다.

4.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의 계획은?

-나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다. 남편은 군의관이었다. 북한에 딸도 있다. 북한에 다시 돌아갈 건데 판문점으로 당당하게 가고 싶다. 별 것 없는 선에 나라가 분단이 되어있다. 북한에 가면 한국에서 만나 도움을 주신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없지 않나.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인민들을 책임진다. 남한에서 놀랐던 것이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조차 자기 돈을 내고 병원에 간다는 거다. 국가의 미래가 어린이인데 국가의 미래를 낳아줬는데 왜 돈을 내지? 딱 아기를 낳으면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산모에 좋다는 귀한 꿀을 먹인다. 또 남편이 군인이라 군대에서 다쳤는데 그것도 책임지고 대우해준다. 옥류관이라는 최성급 요리사들이 한 달에 한번은 꼭 집에 직접 와서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연주도 해준다.

5.북한에서는 통일과 남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고 공격하는 것은 미국이지, 남한은 미국에 잡혀있는 우리의

동포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남한의 기득권 층이나 그러지 국민들은 다 통일을 원하고 북한을 한민족이라 생각하고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그렇지 않아서 답답했다.

저녁 : 평양냉면

‘근처의 평양식 냉면 맛집에서 냉면을 먹었다. 깔끔하고 본연의 맛에 충실한 육수가 맛있었다. 뭐랄까, 전통을 고수하고 계획적이라 깔끔한 북한의 모습과도 닮은 것 같다.’

골든벨

쉬어가는 느낌으로 골든벨을 진행했다. 북한 말 퀴즈와 한 번쯤 읽어 봤으면 했던 남북공동선언문, 앞서 했던 활동을 돌아 볼 만한 문제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 우승팀에게는 간식 한 박스를 상품으로 줬다. 1등 팀은 김민정, 조하한이었다.

1. 북한의 정확한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임진각에서 북한 실향민이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매년 명절마다 이곳에서 북을 바라보며 절을 하는데요. 이곳은 어디까요?(망배단)
3. 송민순회고록의 이름은 ‘빙산은 움직인다’가 맞다. (x 빙하는 움직인다)
4. 최초 공동성명 당시 남, 북 대통령은? (김대중, 김정일)
5. 북한말로 미역국은 무엇일까요? (객관식/라제국)
6. 남북이 함께 만든 애니메이션은?! (보로로)

등 총 25문제 였다.

토론

각자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입장이 되어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연구서를 정리해 나누어 주고 각 나라별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 요약 정리

미국

일단 통일이 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미국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핵과 같은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될만한 것을 개발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경우) 북한과 남한은 한 체제가 되어야 하고 그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여야합니다. 통일한국이 인권, 자유, 시장경제 등 동북아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또 한미 fta와 같은 교류들이 더 광범위 해지며 한미 동맹이 더욱 원활해지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한국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통일한국의 안정화를 위하여 러시아가 군사력을 지향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핵 보유는 당연히 안됩니다. 러시아는 통일 한국이 아시아와의 무역을 추구하며 경제와 개발부분에서의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일본

한국은 자본주의체제여야 합니다. 주한일군을 배치하여 공산주의를 함께 배척해나가고 싶습니다. 핵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들은 한국을 외면할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를 오히려 뒤흔드는 꼴이 될 것 입니다. 성인물 fta를 맺거나 다른 일본의 문화도 많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일본과 손을 잡고 협력하여 아시아의 선진국이 될 한국을 기대합니다.

중국

통일을 한다면 통일 된 한국엔 미국이 받을 때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서구적 가치들이 중국에 강요되지 않아야합니다. 많은 교류와 무역이 되면서 아시아가 많이 발전한다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붕괴 할 경우 중국으로 들어올 난민들이 걱정됩니다. 또한 조선족의 문제가 걱정됩니다. 조선족이 독립하려 할 경우 중국의 소수민족들에게 혼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소감 및 평가

친구들이 말해주는 평가 및 소감

<송륜근>

Q. 우리 조 인문학 캠프 어땠어?

A. 통일 기행을 갔다 온 건 좋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게 북한라는 것이 굉장히 오묘하고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 김련희씨 그 분 만난 게 엄청 인상 적이었습니다. 북한 사람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엄청난 이미지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통일을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Q. 우리 조 캠프를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변했어?

A. 저는 주체사상에 오염된 거 같습니다. (응 뭐라고?) (웃음)생각해보니까 북한이 나쁜 거 같지 않더라고요. 체재들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면들도 있고 이견 좀 아니다 싶은 면도 있던 거 같습니다. 어찌 보면 또 박정희와도 닮은 거 같습니다. (아, 박정희랑?) 물론 끝이 좀 이상해지기 했지만 처음 시작은 박정희 때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강대국 입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어땠어?

A. 저는 종이를 못 받아서 그냥 스스로 한국이 되었는데요. (응? 그랬어?) 굉장히 우리나라 통일이 우리 남한과 북한끼리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워낙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고 강대국들이 서로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 뛰어들기 때문에 독일과는 다른 통일이 될 거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최형규>

Q. 우리 조 인문학 캠프 어땠어?

A. 너무 재미있었어요. (설마 그게 다는 아니지?) 북한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우리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통일조차도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어요.

Q. 우리 조 캠프를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변했어?

A. 단순하게 캠프하기 전에는 못살고 불상하고 공산주의와 그런 지도자 앞에 살아가는 나란 줄 알았는데, 김련희씨 그분 강의를 들어보니...(어땠어?). 저는 북한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왜?) 교육시스템이 재미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살기 좋은 거 같아보였어요.

Q. 강대국 입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어땠어?

A. 러시아였어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어쨌든 러시아도 강대국이고 일본도 껴있고 미국도 껴있고 그냥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구나. 또 다른 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재수가 없는 거 같아요. 땅덩어리도 좁고 약간 전쟁터 앞마당 될 거 같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 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좋았어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가원>

Q. 우리 조 인문학 캠프 어땠어?

A.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활동이 많아서 좋았어요. 답사도 많이 갔다 왔고 이야기 하는 것도 있었고 토론도 하는 있었고 직접이야기 듣는 것도 있었고 퀴즈쇼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어요. 하루 동안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일정이 있었던 거 같아. 일정이 많아 힘든 점도 있었지만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아.

Q. 우리 조 캠프를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변했어?

A. 나 그때 뭐라고 괜찮은 답을 했었는데, 뭘지 까먹었다. (명언이었구나?) 그런데 안다 내가 엄청 괜찮은 말을 했거든? (빨리 기억해봐.) 되게 괜찮은데. 지금 잘 기억 안 나지만. (아깝다.) 어쨌든 나는 그게 가장 나한테 충격적이었던. 그, 이, 이, (련희씨?) 아, 김련희씨. 그 분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인상 적이었거든. 북한하면 기아, 다 죽어가는 아이들, 쓰레기 뒤지면서 먹을 거 찾아 헤매는 그러한 느낌이었어. 이러한 이미지에서 되게 괜찮은 복지라던가, 혹은 뭐 그런 긍정적인 것을 알게 되었어. 공산주의가 어떤지는 난 민주주의 국가에 살았으니 잘 모르지만. 그 분 이야기 들으면 위대하신 김일성, 위대하신 김정은 동지 그러잖아. 그런걸 보면서 되게 이게 법뿐만 아니라 사상 쪽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Q. 강대국 입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어땠어?

A. 미국. 사실 토론을 한자리에서 쭉 했으면 좀 더 집중이 잘 됐을 거 같은데 마지막에 숙소로 와서 했던 거. (맞아. 그게 좀 아쉬웠지.) 물론 시간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숙소에 온 거지만 그게 아쉬운 부분이었던 거 같아. 그래서 집중도 안 돼서 애들이 많이 떠들었고 사실 그때 나도 많이 떠들었어.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만약에 이게 잘 되었으면 좀 더 각 나라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집중이 안 된 상태였어도 미국의 입장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게 이해가 조금씩 되었던 거 같아. 그래서 집중이 잘 된 상태였다면 미국의 감정으로 이해를 넘어서 공감까지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각 나라의 입장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보니까 어땠어?) 안 될 거 같아. (통일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통일은 대박입니다!(웃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수고 하셨습니다!

<김예림>

Q. 우리 조 인문학 캠프 어땠어?

A. 캠프요? 음, 기본적으로 활동이 많아서 재미있었고 근데 제가 가진, 통일을 왜 꼭 해야 하는지? 왜 북한의 대해서 알아야하는 지? (처음에 늘 고민하던 거?) 응, 거기의 대한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재미있었고 북한 아주머니 말씀 들은 것도 되게 색달랐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새롭게 알았고, 음, 그랬던 거 같아요.

Q. 우리 조 캠프를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변했어?

A. 바뀌었다기보다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좀 생긴 거 같아. 막연하게라도. (아 정말?) 그래서, 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 같아. 원래는. 가난하든 말든. (뭔 나라였구나?) 마치 상상 속에 나라처럼.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 거기도 한 나라구나. 가보고 싶다? 되게 독특한 형태이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쪽에서도 보면 독특한 형태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아줌마는 좀 잘 사는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좀 못사는 사람 이야기 듣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 회의도 엄청 느꼈어. 북한의 대해서도 그렇고. 북한과 우리나라는 체제가 완전 반대인데 사람이 사는 형태는 다 똑같은 거야. 무언가의 완전히 복종하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체제?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게 새로웠어.

Q. 강대국 입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어땠어?

A. 저는 중국이요. (중국의 입장을 보고나니 우리나라의 통일이 어때보였어?) 중국은 나라가 커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고 별 걱정이 없어보였어. 중국 입장에서, 음. 토론은 너무 어려웠어. 일단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이야기 들었었어. (중국 입장으로 봤을 때 인상 깊은 게 없었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음...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통일이 어때보였어?) 되게 웃기게 느껴졌어. 재네들은 왜 저런 걸로 저렇게 아옹다옹하지? 저러면 나야 뭐 개이득이지, 약간 좇밥같은 느낌? 그냥 그리고 있음으로써?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뽑히면서 굉장히 또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FTA를 완전히 재협상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진짜로 이쯤이 되면 미국이 보호주위를 포고 할 때가 된다면 진짜 통일이 필요 할 수 있겠구나. 감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정>

Q. 우리 조 인문학 캠프 어땠어?

A. 캠프요? 음, 우리가 원래 취지에 생각했던? 그런 인문학 캠프로써 제일 적합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나는 통일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조금은 있었던 말이지? 나 인턴십 할 때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고민으로 다가오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 같아.

Q. 우리 조 캠프를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변했어?

A. 사실 통일을 해야 한다, 라는 입장으로 계속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북한의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은 어려운 나라이고 체제가 뭔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나봐. 그래서 통일이 되도 우리나라에 흡수를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어. 그런데 캠프를 통해서 북한의 대해서, 북한이 한 나라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 같아.

Q. 강대국 입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어땠어?

A. 나는 일본. (일본의 입장으로 토론할 때 어땠어?) 일본? 일본은 사실 우리랑 안 좋은 역사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남북이 갈린데 있어 아무런 영향과 길 수 없는 나라인데 계속 틈새를 노리는 야비한 나라인 거 같아서 되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통일을 위해서 일본의 도움을 딱히 받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 (다른 나라 입장을 보고나서 네가 통일을 보니까 어땠어?) 우리나라 국민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은데, 미국이랑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더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거 같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리고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 다른 나라의 권력이나, 감시 그 안에서 우리가 나라로써 힘을 제대로 못 펼치고 있다는 게 통일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이유라고 생각해. 일단은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생각이랄까? 북한의 대한 통일의 대한 그런 생각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

<서하린>

Q. 우리 조 인문학 캠프 어땠어?

A. 캠프? 재미있었어. (그게 다야?) 기억이 안나 잘. (우리 오두산 전망대도 가고, 임진각도 가고 냉면도 먹고, 오두산에서 문제 풀어서 상주는 거 너 일등 했잖아. 너 머리 다친 골든 벨도 하고. 기억 안나?) 프로그램은 재미있었어. 그냥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그게 다야?) 응.

Q. 우리 조 캠프를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변했어?

A.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지금 또 바뀌었어. (어떻게?) 아니, 몰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북한 아줌마 이야기 들었을 때는 우리 생각보다 되게 북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느꼈는데, 근데 또 인터넷에서 보는 외국 사진기자들이 찍은 북한, 몰래 유출한 북한 또 몰래 유출한 뭐뭐... 이런 거 보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헛갈려. (뭐가 진짜 북한인지 모르겠어?) 응. 헛갈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몰라.

Q. 강대국 입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어땠어?

A. 재미있었어. (어떤 나라였는데?) 러시아. 러시아는 통일하면 무조건 좋아. 그냥 통일하면 이익이 많아져. 그래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게 돼. (다른 나라 입장을 보고 난 뒤, 너가 보는 통일이 어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통일이 되던 안되던?) 근데 뭐 좋은 점도 있는데. 모르겠어. 나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전쟁을 끝내고 다른 나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자주 했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마디 이런 거 왜 해? (그냥 뭐 수고했어. 그런 거...) 수고하셨습니다~ (앞드려 절 받기야) 응.

〈노영빈〉

Q. 우리 조 인문학 캠프 어땠어?

A. 일단 그 북한 아주머니 만나는 게 (인상 깊었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북한의 대해서 영화나 이전에 강의도 들었지만, 실제로 살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색다른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전에 통일 전망대나 임진각 갔다 왔던 것도, 실제로 분단되었다는 것을 체감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런 걸 체감해 보고 북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각자 다른 나라 입장을 가져 이야기 해보았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습니다.

Q. 우리 조 캠프를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변했어?

A. 북한의 대한 생각이요? 원래 평소에도 북한이 단순히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이번에 한 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북한도 나름 살만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음, 그러니까 보상이 굉장히 좀, 복지가 좋잖아요. 나라에 충성만 하면(웃음).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런 좋은 점이 많은 나라구나 생각했고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라 느끼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Q. 강대국 입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어땠어?

A. 토론? (어떤 나라를 했어?) 어떤 나라? 아, 러시아를 했습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을 보고 나서 자신의 입장으로 통일을 볼 때 어땠어?) 어 일단, 러시아 입장으로 제가 이야기 할 땐, 러시아가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제가 꼼수를 부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통일이 체결 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거나 계속 계속 통제하거나 통치하려는 외부 세력을 잘 막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북 서로 소통을 많이 해서 우리끼리 자주적인 독립 통일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영빈 입장으로?) 노영빈 입장으로. 우리가 그래야겠다. 제가 계속 계속 해서 꼼수를 부리려고 했으니까 실제로도 그럴 거 같으니까. 현재 남한도 그런 뭔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거 같아서... 우리끼리 잘 합시다.

〈한승희〉

Q. 우리 조 인문학 캠프 어땠어?

A. 캠프? 다양한 장소를 가서 좋았다. (땡? 어떤 게 가장 좋았어?) 북한을 가까이 가봐서. (그럼 우리, 강의한 거랑 그 북한 아줌마 강의 했던 건?) 너무 간디학교 교육이 대부분 그런 거 같긴 한데, 뭔가 정치적이거나 성향이 강하게 방향이 잡혀있어서 거기에 어긋나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라고 느꼈고. 음, 나한텐 조금 불편했어.

Q. 우리 조 캠프를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변했어?

A. 원래는 뭐, 음, 새롭게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줌마가 간첩으로 집행유예 받았다는 말 듣고 저게 사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긍정적인 시선이 생겼어? (어떤 긍정적인 시선이 생겼어?) 음, 그니까 그 나라 국민을 본 거잖아. 만족도가 있어보여서 아예 갑갑한 곳은 아니구나... (생각했어?) 음.

Q. 강대국 입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어땠어?

A. 중국. (그럼 중국의 입장을 보고 난 후에 너의 입장으로 통일을 보니 어땠어?) 음, 일단 미국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 대통령 바뀌고, 그런 성향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더욱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랑 조금은 적대적인 양상이니까 우리 통일을 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 외세의 간섭이 심하니까. (그런 느낌이야?) 응.

마지막으로 간단한 한마디?

-어, 수고했다.

우리 조 평가 및 소감

다연: 나는 내가 북한에 대해서 편견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고 남들보다 통일에 대해서 더 가까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해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북한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남들 보다 그나마 (그것도 아주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북한의 대해서 온통 편견 덩어리들이 가득했다. 공부를 하면서 통일에 대해서(통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흡수통일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의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고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시선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우리 반 친구들에게 북한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밝은 이미지로 다가가게 하려고 노력했던 거 같다. 그래서 북한말, 남한 말 비교 사전 이런 것도 가져오고 그랬었다. 우리 조의 좋았던 점은 계획이 바로바로 생기고 딱딱딱, 실행하는 것. 답사와 인터뷰가 많은 거였다.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을 보고 영화와 다큐를 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장소에 가보기도 하고. 그런 점이 다른 조들 보다 잘 되었다고 생각했고 뿌듯했었다. 반대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 그게 그 사람과 나의 욕심과 생각 차이 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했었다.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 이기적인 마음. 정말 미안했다. 하여튼, 북한이 그리 멀지 않다는 느낌을 반 친구들에게 알려줬고 나또한 북한이 멀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고, 통일의 대해서 한 발자국 다가갔다고 느껴지니 우리가 노력했던 만큼 결과가 나온 거 같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명야: 사실 캠프를 하기 전까지는 통일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었다. 통일은 되면 좋지만 그다지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북한은 뉴스에서 가끔 본 그 이미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분단과 통일에 관해 공부하며 이 것이 나와 인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하지 않고 지내왔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생겼다.

공부 초반에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북한과 관련 된 다큐를 본 적이 있다. 그 전까지 북한은 독재에 인권유린, 가난 같은 안 좋은 이미지들만 가득한 나라였는데 영화 속의 북한은 너무 달랐다. 영화의 감독님은 심지어 남한보단 북한이 사람들 간에 정이 넘치고 고향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저건 조작일거야, 너무 좋은 면만 말하는 것은 아닐까.& 자꾸 내가 아는 북한과 다른 영화의 내용을 부정하게 됐다. 또, 감독님이 북한이 좋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저래도 되는걸까? 잡혀가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내가 북한에 관해, 통일에 관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접할 수 있는 북한은 핵이나 빈곤 같은 것들이었고, 그 외의 북한은 접해서도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할 수 있었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금기어 같은 느낌이다. 또, 권력에 맞서려 하는 사람들에게도 북한이라는 감투를 뒤집어 씌우면 그 사람에게 하는 비인간적인 짓들이 합리화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부정 당한다. 북한에 관해 말할 때면 나도 모르게 '물론 북한은 나쁘지만' 같은 단어를 붙이며 검열을 하게 된다.

캠ป์를 하면서 김련희씨의 말을 듣고 북한과 남한은 관점이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살아온 나는 국가가 많은 것을 책임져주는 부분이 좋다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지도자를 어버이처럼 생각한다면, 내 진로를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다거나 하는 나를 통제하는 것엔 공감하지 못한다. 내게는 당연한 &돈&의 자유가 김련희씨에겐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통일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서 시각이 더 넓어진 것 같긴 하다. 원래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마음을 내고, 화합해가면 되는 것이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며 남한은, 그리고 나는 통일에 관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 관계에 따라 언제 다가올지 모를 통일의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 없는 통일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던 인문학 캠ป์를 준비하며 분단과 통일이라는 평소 외면하고 살아왔던 이야기에 대해 마주보고 고민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공부 덕에 앞으로 국제뉴스를 볼 때, 북한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통일을 연관 지어 떠올리게 될 것 같다.

채은: 언제 풀리나 싶었던 인문학의 족쇄가 풀렸다. 가뿐해진 것 같기도 하고 기분도 좋다. 인문학이란 무엇이었는지, 내가 통일에 대해 어떤 것을 얻었는가에 대한 말은 이미 인문학 평가에서 했으니 그 내용은 적지 않겠다. 나는 우리 조에 대한 평가로 시작해보려 한다.

나는 여지껏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조 활동을 했었기에 능숙한 사람이라 생각했었다. 사실 학년이 높아지면서 같이 하는 것보단 혼자서 편하기도 하구나하고 느꼈던 적도 있지만 함께이기에 좋은 점이 많아서 난 같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다.

우리 조원은 4명이었고 단둘이서 프로젝트를 하던 적보다 의견 맞추기는 더 어려웠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만큼의 결과를 상대방이 가져오지 못했을 때나 상대방이 원하는만큼 내가 해오지 못했을 때도 어려웠다. 나 하는 일도 벽탄때 내가 이 사람을 캐리해야 하는 것인가란 입장과 난 더 이상 뭘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요구를 당하니 답답하기만한 입장도 들었다. 이런 조 활동을 하며 서로 양보를 하고 의견을 맞춰가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때론 이게 바로 대학교 조별과제의 스트레스인가 하는 생각도 했다. 역시 의견 맞추는 건 언제나 힘들구나하고 종종 많이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가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임했다. 그리고 그 끝엔 인간관계에 있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느꼈다. 그런 타인과 합의점을 맞춰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생김으로서 친구가 되는 거라 생각한다.

비록 우린 6년을 함께 했지만 일적인 면에 있어선 아직 어리숙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 아직도 내가 모르는 면이 많은 친구들이었고 이런 난관을 거쳐가면 더욱 성숙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란 기대도 든다.

통일을 공부하며 친구들과 같이 현장 탐방도 가고 고민도 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이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란 고민을 하면서 내 미래를 자연스럽게 그려봤던 것 같다. 내 미래에선 당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인문학 공부를 했었기라 믿으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한다.

익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많이 긴장하고 시작 했었는데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행운도 따라 주면서 잘 마무리 된 것 같아서 좋았다.

내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진행 한 것 같아서 좋았다. 준비 하면서 자주 점검 하는 게 귀찮아서 싫었는데 참 필요한 과정 이라 어쩔 수 없이 강 아무소리 안하고 묵묵히 했던 것 같은데 그 덕분에 내가 조금 자란 것 같아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본캠프 때 행운이 따라 주면서 정말 진행이 잘된 것 같고 임진각에서 막막했었는데 하자센터에서 강연 들으면서 김련희 씨가 정말 재밌게 잘 해 주셔서 그 후로 탄력을 받아서 진행했던 것 같아서 다행히였고 열심히 준비 한 만큼 잘 한 것 같아서 좋았다. 모두 수고 했습니다.

인문학 공부를 끝마치고 얘기 나누기

명아: 확실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방향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통일과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북한이 못사는 나라고 도와줘야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 그저 굶어 죽는 나라라고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봤다면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아. 같이 통일을 해나가는 대상이랄까.

익준: 통일이란 주제를 잡으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자란 생각을 갖고 임했던 것 같아. 원래도 관심있었던 주제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무엇보다 북한이 되게 이 시대에 동 떨어져 있는 느낌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문화 보존이 잘 되어있어서 부럽다고 느낀 적도 많아. 여러모로 내게 유익했었던 인문학 캠프인 것 같아.

명아: 내가 '행복한 통일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있어. 거기선 '남한 사람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은 아무도 김일성, 김정은을 존경하지 않는다, 다 옛날 이야기고 이제 곧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전부 헛소리'라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말도 안된다고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선 오히려 우리가 말도 안된다고 느낀다'는 이야기도 나와. 옹고 그름을 떠나서 솔직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잖아. 어떻게 국가의 대표를 아버지라고 생각해. 미국에 맞서야 되고 고난의 행군을 견뎌내야 하고 그런게 이상하게만 느껴졌는데, 그 북한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을 조금 이해했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한 혼자 북한의 붕괴만을 기다리면서 통일을 하려는 것은 뜬소리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생각했어.

채은: 나는 인문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인문학 자체에 대해서 왜 해야할까란 의문이 굉장히 많았어. 결국 인문학을 하면서 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것도 많이 경험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들게 해준 인문학이었던 것 같아. 내가 세계에 대해서 완전 까막눈이었는데 이런 통일과 북한을 공부하면서 세계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 아,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당선 됐다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그럼 통일은? 이 생각을 진짜 했었어.(명아: 아 맞아. 나도) 이런 게 공부의 효과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통일은 힘든건가? (명아: 나도 통일은 망한건가하는 생각을 했어/다연: 맞아) 주한미군 철수한다는데 우리 통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이 세계가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고 정말 역사의 한 부분에 살고 있다고 느껴져. 사실은 마무리쯤에 내가 이 걸 통해 얻은 건 무엇인가하는 회의감도 들었지만 결국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인

문학을 했다는 생각도 들어.

다연: 난 생각보다 북한에 대해서 편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많이 느꼈어. 나는 남들의 비하면 북한을 좋게보고 편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뉴스나 기사 같은 거 보고 나도 모르게 편견이 생겼나봐.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공부하면서 느꼈어 북한은 그저 우리랑 많은 게 다를 뿐이라는 거. 오히려 우리는 통일에 대해 반감 가진 사람이 많은데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반성을 많이하게 된 거 같아. 그리고 우리 북한이 적인데 막상 거기는 미국이 적이고 그런 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

채은: 우리 찌리야. (웃음) 아무도 우릴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명아: 소련이 없어져서 우리 북한이 적인 건가? 북미협상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찌리인 건가? (채은: 맞아, 안 꺼줘.)

다연: 편견이 많이 깨졌어. 북한아주머니 오셨을 때 ‘북한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라는 생각과 동시에 조금 무섭기도 했어. 평범한 아주머니가 말을 왜 이렇게 잘하시지? 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상한 것들이 거기선 이상하지 않고. 무서운 것도 있고 부러운 것도 있었어. 고마운 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보고 싶을 것 같아서 돌아가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되게 인상 깊었어. 월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 우리나라 잘 숨기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명아: 지금도 안 그렇진 않지만 확실히 북한 하면 엄청 민감한 느낌이었잖아. 잘못 말하면 진짜 안될 것 같고.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 볼드모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걸 살짝 깬 것 같아. 이번에.

채은: 맞아. 나도 약간 편해진 느낌?(다연 맞아, 나도 그래.) 불편하고 찝찝함 같은 것들이 많이 편해진 느낌이야.

명아: 우리가 계속 여러가지 다른 입장을 들어봤던 게 좋았어. 원랜 나와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만 했던 것 같아. 뭔가 팩트폭력 당할 것 같고. 근데 이번엔 나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고 의견들을 듣는 게 처음으로 재밌게 느껴졌어.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소한 생각 차이 때문에 의견이 확 달라지기도 하는구나.

명아: 나중에 통일 되면 우리 다같이 금강산이나 놀러 갈까?

채은: 난 사실 통일이 실제로 되는 게 상상이 안가. 될까?

민주화

-

장소로 보는 민주화 운동

형규 태우

장소로 보는 민주화

1부. 남영동 대공분실 (그 시대,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

- 김수근

1931년 2월 20일 함경남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수근은 초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 사대문 안의 북촌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14살 때 해방을 맞이했다.

그는 중학교 시절, 주둔군으로 근무하던 미군을 통해 근대건축을 접하고 건축가가 될 것을 다짐했다. 1950년 서울대 건축학과에 입학했지만 입학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도쿄예술대학 건축학과와 도쿄대학교 대학원을 나오며 일본의 신문화를 접했다. 건축에 대한 눈을 더욱 크게 틔웠고 일본의 건축 대가인 요시무라 준조와 당게 겐조에게서 기술을 익혔다.

그가 건축계에 이름을 날리게 된 되는 계기는 1959년 유학생 신분으로 박춘명, 강병기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 현상설계에 응모해 당당히 1등으로 당선한 '사건'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5.16군사정변 때문에 백지화되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를 스타로 만들었고, 이를 발판으로 그는 국내에 들어와 자신의 건축 인생을 펼치기 시작한다.

김수근은 분명 훌륭한 건축가이고 한국 건축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분명하지만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평가에 눈을 감아서 안 될 것이다.

김수근은 1959년 국회의사당 설계공모에 당선되고서 1966년부터 1969년까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데, 당시 박정희 정치세력과 연계되던 위치에서 도시 및 국토계획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손에 질 수 있게 된다.

군, 경찰, 민간, 정부 부서할 것 없이 건축주가 두루 넓은 것이 김수근 건축의 특징인데, 특히 개발시대 독재 정권이 발주한 대형건축물 위주로 설계하면서 급기야는 대규모 국가 건설기획을 전담하다시피 했던 개발독재정권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대표이사까지 맡아 여의도 개발, 한강개발, 남산개발, 서울 도심개발 등 무수한 개발공사를 하게 된 것은, 독재정권과의 유착으로 개발독재시대 대표 건축인이었으며 당시에 일종의 경쟁자인 건축가 김중업이 독재정권과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8년간 프랑스로 추방당했는데 이는 김수근이 독재정권 대표 건축인으로 더욱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울 종로엔 조선왕조의 사직을 모신 종묘 앞에 김수근이 건축한 세운상가라는 건물이 있다. 500년 조선사직을 정면에서 틀어막는 식의 반문화적 콘크리트 건축이란 상상할 수 없는 건축이다.

또한 세운상가는 당시 '불도저 시장'으로 불렸던 김현옥 시장에 의해서 세운상가가 세워졌는데 세운상가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 또한 다름 아닌 김현옥이다. 세운의 의미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운세' 라고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세운상가는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을 상징하는 건물로 지어졌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운상가는 박정희식 '조국 근대화'의 건축적 상징물이며 도심 한복판을 동서와 남북으로 무지막지하게 틀어막은 세운상가는 김수근 개발독재 건

설의 상징적인 증거다.

여기에 결정적인 반인권 건축인으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낸 건축이 바로 서울 용산구 갈월동 88번지, 치안본부 대공보안분실,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리던 건물이다. 민주인사들이 고문받던 장소로 사용된 곳. 이 장소에서의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당시 고문타살을 은폐하려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종말에 기폭제가 됐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고문실이 배열되어 있었던 철문의 배치, 5층 취조고문실 복도의 동선분할, 대낮에 불을 켜도 어둡게 빛을 투사하는 작은 창문, 이 건축인은 공간의 정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섬세하게 잘 알고 있는 건축인이었다. 더구나 용도에 맞는 꼼꼼한 공간설계가 탁월했던 김수근은, 인간이 공간에서 느끼는 마음의 태도나 심리,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한 건축인이었다.

그가 설계하고 지은 치안본부 대공 분실은 심문과 취조, 그리고 고문의 효과를 고문하는 자와 고문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처리했음을 건축설계가 바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 전체가 이미 인간의 의식과 의지가 무너져 내릴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폭력적인 건물구조 설계다.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어둡고 침침한 철문 안 실내와 대비되는 밝고 화사한 햇살이 실내 가득하게 들어오게 설계된 창에서 근무하는 고문기술근무자들에 대한 배려.

건물을 공간적으로 분석해보자면 건축가의 의도가 충분히 건축물에 반영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건물이야말로 건축인 김수근의 건축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설계된 건물이다.

또 하나, 그가 지은 서울 남산에 있는 반공연맹의 도로변 긴 석축의 석재는 조선시대 도성인 서울성곽의 성벽을 뜯어다가 축대의 석축으로 사용했다.

자신의 건축적 성취를 위해서는 문화재도 단순히 석재로 보일 만큼 폭력적인 사고였음을 엿본다.

세운상가, 대공분실뿐만 아니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치안본부청사, 서울법원 종합청사, 육사 교훈탑 등 3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독재자들의 뜻을 무수하게 구현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김수근이 당시 반인권적인 군사독재정권과 눈감고 손잡았던 명백한 사실 앞에 과연 그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남영동 1985 실제 주인공, 김근태

1947년 2월 14일에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났다.

양수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65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다.

이때부터 그의 민주화 운동은 시작된다. 60년대 무렵 학생운동을 주도하여 손학규, 조영래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불리기도 했다.

67년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시위로 경찰서로 끌려가 엄청 매를 맞고 강제로 군대로 끌려간다. 이후 70년 제대 후 다시 복학했다.

71년엔 서울대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수배된다. 결국 박정희 정권이 끝날 때까지 도피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도피를 하면서도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

다.

80년 전두환 정권이 시작된 뒤엔 자연스럽게 수배가 풀렸다. 그러나 김근태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아직 그가 바라던 세상이 아니었다. 12·12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으로 열린 80년대는 김근태를 다시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으로 소환하였고 83년 학생운동 출신들과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하고 초대 의장을 맡아 민주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85년 8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 배후 조종 혐의로 연행된 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3일 동안 이근안에게 가혹한 전기고문·물고문 등을 당한다. 이때의 고문 후유증은 남은 평생 그를 괴롭혔다.

거짓자백으로 수감되었으며 88년 석방되었다. 87년 6월 항쟁은 감옥에서 맞이한다.

석방된 김근태는 당시까지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총집결한 전국 민족 민주화 운동 연합에 가담하여 정책 기획 실장과 집행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시 민주화를 외치기 시작한다.

87년대의 폭발적인 민주화 열기를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김근태의 열망을 채울 만큼은 아니었다. 90년대의 벽두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 민주당, 신민주 공화당이 3당 합당을 결행하였다. 김근태는 전국 민족 민주화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운동을 주도하였고 노태우 정권은 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김근태는 다시 90년 5월에 구속되어 92년 8월까지 감옥살이를 한다.

출소 후인 92년 하반기에 있었던 대선에서 김근태는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였다. 김근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당 합당으로 결성된 민주 자유당의 후보 김영삼이 대권을 차지하자, 95년에 김근태는 뜻을 함께 할 인사들을 이끌고 김대중이 속한 당에 입당함으로써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00년은 김근태가 몸담았던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시작되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내리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김근태 역시 민주 정권의 한 축으로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 헌신하였다. 김근태는 00년과 04년에 치러진 제16대, 제17대 총선 서울 도봉구 갑선거구에서 내리 당선되었다. 당내에서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04년 7월부터 05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06년 6월부터 07년 2월까지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장을 역임하였다.

08년 제18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정치권에서 한발 물러서게 되었다. 이 무렵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 확진을 받는다. 결국 11년 12월 30일에 파킨슨병에 다른 합병증이 겹쳐 별세하였다.

- 고문 기술자 이근안

1938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다. 대전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해 생활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 길에서 강도를 보고 추격하여, 맨손으로 칼을 든 강도를 제압하여 경찰에 인계하였다. 후에 공군에 입대할 때 이 점을 높이 평가받았고, 이는 경찰 입문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 7월 경찰 공무원에 채용, 순경으로 임용되었으며 유년시절 유도, 합기도, 태권도 등을 배운 탓인지 바로 서울경찰학교 무술요원 교관으로 발령되었다. 72년 8월엔 경찰청 대공분실 형사로 발령되었고 88년 3월까지 사직 할 때까지 계속 대공분야에 몸담았다.

경찰 재직기간 매번 특진으로만 고속 승진했고 재직기간 중 모두 16차례의 표창을 받았다. 이 중에는 간첩 검거 유공이 4회나 포함돼 있다.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하자 이근안을 화성경찰서로 발령냈을 정도라 하니 얼마나 촉망받는 엘리트였는지 알 수 있고 심지어 대공분야에서는 이근안이 없으면 수사가 안 된다 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하지만 이 뒤에는 민주화 인사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한 사실이 숨어있다.

당시 고문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몽둥이로 구타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쉬웠다고 할 정도로 그의 고문은 다양하고도 악랄했다.

잠 안 재우기는 물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기본적인 고문으로 시행하였고 짬뽕고문, 날개 꺾기, 통닭구이도 이근안이 처음 개발한 고문이며 관절빼기는 그가 일인자였다고 한다. 남성 피해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고문은 요도에 볼펜심을 삽입해서 괴롭히는 요도 볼펜심 고문이었다.

간첩혐의로 잡혀오면 누명을 씌우기 위해 자백이 필요한데 온몸을 구타한 뒤 칠성판에 몸을 묶고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씌운 다음 샤워기를 들이대 숨을 못 쉬게 하는 물고문, 새끼발가락에 전깃줄을 감아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기고문이 이어졌다. 또한 이근안은 연행자들 앞에서 한 손으로 사과를 으깨 보이면서 ‘내가 손대면 입을 열게 돼 있다’ 는 등 위협적인 말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심리적인 협박에도 능했다.

가장 잘 알려진 고문사건으로는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결성했다는 혐의로 김근태를 체포해 고문한 사건이다.

김근태는 당시 상황을 말하기를 그때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치욕적이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당시 고문에 대한 김근태의 증언이다.

‘소리를 지른다고 강하게 전류를 통하게 하고, 신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혀를 이빨로 꽂 물었다고 혀를 빼라며 강한 전류를 또 흘려보내고, 참으면 참는다고 또 그러고 이들의 목표는 총체적인 혼란, 착란상태로 돌입했다.

머리가 빠개질 듯한 통증이 오고 그 몰려오는 공포라니,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파고드는 것처럼 아른 거렸습니다. 전기가 발을 통해서 머리 끝까지 쭈셔 댈 때마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고문은 담금질해서 뜨거운 불인두로 지저서 바싹 말라 바스락뜨리고 돌돌 말려서 불에 튀기는 그런 것입니다. 전기고문은 핏줄을 뒤틀어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침내 마디마디 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갖은 고문을 받아 고통에 신음하며 알몸으로 바닥에 널브러져있는 김근태에게 굴욕적인 말들을 퍼부었고 김근태는 이때를 짐승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이근안은 이러한 고문기술들 덕에 다른 기관들까지 고문출장을 다니기도 했다.

정말 수없이 많은 민주화 인사들과 죄 없는 사람들을 간첩사건에 연루시켜 빨갱이로 몰아 고

문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그의 경찰인생은 88년 화성경찰서에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끝이 난다.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자 석방된 민주화 인사들과 학생 운동가들이 그의 고문행위를 주장했고 여러 차례 공소가 제기되어 경찰은 그를 공개 수배하였다.

경찰 고위 간부 등이 그를 숨겨주는데 가담하였고 이근안은 10년 넘게 도피하다가 99년 10월 결국 자수를 하게 되었고 다음해 9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는다.

05년 6월, 이근안은 옥중에서 통신 과정으로 신학교에 입학했다. 수감 당시, 이근안은 신학 공부에 열중했었는데 한 때 모범수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근안은 06년에 출소를 하게 되고 출소 후에도 신학공부를 멈추지 않았고 08년엔 목사가 된다. 이후 잠잠한 듯 싶었으나 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다.

‘당시엔 고문이 애국이었고 난 애국자였다. 고문은 예술이었으며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난 똑같이 할 것이다’

이근안은 설교 중에 자신이 김근태 의장을 고문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건전지 하나 들이대면서 겁을 줬더니 빌빌거리더라."고 비웃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12년 개봉된 남영동 1985를 보고는 ‘영화를 보니 물고문을 한다면서 샤워꼭지를 빼버리고 물을 퍼붓던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거 보고 웃었어. (500mL 물병을 가리키며) 이 정도면 돼. 얼굴에 거즈를 올려놓고 마르지 않게 물을 조금씩 뿌려주면 거즈가 착 달라붙어 숨을 못 쉬는 거지’ 이쯤되면 반성이고 뭐고 인간쓰레기가 분명하다.

이러한 발언들로 이근안은 다시 화제가 되었고 그를 목사 시켜준 교단이 욕을 먹게 되자 결국 2012년 1월 14일, 이근안이 속한 교단 측에서 이근안의 목사직을 박탈했다.

현재는 아내와 함께 폐지를 주워 팔며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다고 한다.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민주화추진위원회는 서울대 학생들을 비밀스럽게 이끌던 조직이었다. 전두환은 이를 국가보안법에 어긋나는 단체로 규정짓고 소속학생들을 잡아들인다. 30여명이 잡히고 나머지 17명은 수배를 내린다. 경찰들은 그 중 한명인 박종운을 찾아다니는데 박종운 후배인 박종철은 박종운을 자기 하숙집에 숨겨주고 돈까지 쥐어주며 경찰관들을 피하는데 도와준다. 이를 눈치챈 경찰들이 박종철을 체포해 남영동 대공분실로 데려간다. 고문을 하며 선배인 박종운이 어디있는지 협박했다. 끝까지 말하지않고 버티던 박종철은 결국 87년 1월 14일 사망한다.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 “명동성당”

명동성당은 프랑스 신부 고스트[高宜善]가 설계하여 1898년에 완성된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교회당 건물이다.

1882년 한미수호조약(韓美修好條約)이 체결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자, 당시 교구장이던 주교 블랑(Marie Jean Gustave Blanc, 1844~1890)이 성당 부지로 이곳을 매수하여 종현 분당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조선왕조 역대 왕들의 어진(御眞)을 모신 1)영희전(永禧殿)과 가까워 성당 건립으로 영희전의 2)풍수(風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정에서 소유권을 억류하여 착공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양옥 건축의 기술자가 없었으므로 벽돌공, 미장이, 목수 등을 중국에서 데려다가 일을 시켰고, 도중에 재정난과 청일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1896년 벽체공사가 끝날 무렵 설계·감독을 맡았던 코스트가 죽고 푸아넬(Victor Louis Poisnel, 1855~1925)이 뒤를 이어 내부공사를 속행하여 1898년 5월 29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1977년 11월 22일 사적 제258호로 지정되었다.

시간이 많이 지난 80년대 어떻게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6월 항쟁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전두환 정권의 탄압과 그에 대한 저항은 1980년대 중·후반에 더해가고 있었다. 경찰은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 관련 수배자 박종운의 소재 파악을 위해 그 후배인 박종철을 불법으로 체포했다. 1987년 1월 14일, 경찰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을 불법 체포하여 고문하다가 사망케 했다. 이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폭로되어 1987년 6월 항쟁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을까?

1987년 6월 서울시내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조작 은폐사건 규탄과 호헌 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는 많은 국민들이 정권에 맞서 싸우게 된다.

당시 을지로와 명동입구가 시위의 전장이었는데 경찰들의 강경진압을 피하기 위해 시위대가 명동성당 쪽으로 후퇴를 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동성당에 농성지가 생기게 되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정부의 부조리함에 분노했고 다양한 사람들, 학생들과 종교인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투쟁했다.

명동성당은 민주화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1)조선시대 여섯 임금의 어진을 모셨던 전각

2)땅에 관한 이치, 즉 지리를 체계화한 전통적 논리구조

“당신들이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최루탄을 쏘는 것은 예수께 충부리를 대는 것이다. 만일 계속해서 최루탄을 쏘다면 전두환 정권이 가톨릭교회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김병도 주임신부

성당에서의 농성이 시위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역사에서 정부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진압해왔다. 87년 6월에도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강하게 대응했다.

시위는 더욱 거세졌고, 군부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최루탄을 쏘아댔다. 농성지도 공격하기 위하여 병력을 투입했다. 그러나 농성지를 없애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그 이유는 명동성당이 성당으로써 갖고있는 종교적인 특징 때문이었다. 가톨릭교가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되어있는 종교이고, 교회에서 최루탄을 마구잡이로 쏘아댄다면 다른 나라에서의 관심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었을 터 이다. 성당은 신비로움을 가진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3년~84년부터 명동성당에서는 5.18 광주 민주항쟁운동 비디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5.18과 관련된 대자보를 붙이는 활동을 했다. 당국에서도 성당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고 한다.

명동성당에서의 농성이 가능했던 이유 (농성기간- 6월 10~6월 15일)

“위험을 피해 온 사람들을 쫓아낼 수 없다. 그리고 도덕성과 정통성을 잃은 현 정권에 대한 농성 학생들의 민주화투쟁은 정당하며 이에 적극 지지•동참할 것이다. 또한 사제의 양심으로 이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 이다”

6월 12일 서울교구 사제단회의 비상 소집에 달려온 40여명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식적으로 농성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다.

정의구현 사제단

유신독재 시대 이후 현재까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는 가톨릭교회의 반독재운동을 주도해온 단체이다.

1974년 7월 6일 지학순 주교가 유럽 순방 후 귀국길에 공항에서 납치 연행되어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은 뒤 명동 성모 병원에 감금되었다. 지 주교의 혐의 내용은 민청학련 자금제공과 내란 선동, 정부전복 등이었다. 지주교는 병실을 빠져나와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또 다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지주교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는 박정권의 폭압에 침묵하고 있었지만, 지주교 구속사건을 격으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한 발언을 해야 한다는데 사제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렇게 하여 1974년 9월 2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이 탄생하였다.

이후 사제단의 활동은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현장에서 중요고비마다 계속되었다. 특히 아무도 쉽게 나설 수 없었던 김지하 구명운동, 인혁당사건 진상조사와 구명운동,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고문치사 사건 폭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박종철 고문살인 사건 등에서 사제단은 거침없는 발언과 행동으로 민주화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민주화 운동의 지원자 김수환 추기경(음력 1922년 5월 8일, 대구광역시 - 2009년 2월 16일)



바른 말을 하는 것이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시절,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한 종교인이 서 있었다. 그 분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1922년에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군사 정권 시절까지 모두 겪었다.

1951년에 김수환 추기경 사제서품을 받게 된다. 그 때의 한국은 6.25 전쟁 직후였다. 신부가 된 이후에 그가 처음 마주했던 것은 가난에 허덕이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는 지친 서민들을 보듬어주는 삶을 택한다. 1956년 신학공부를 위해서 독일 대학에 진학했을 때에도 노동자들을 돌보느라 대학에 졸업하지 못하게 된다.

참된 종교인의 길을 걸었던 그는 1969년에 추기경에 추대된다.

1972년,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지학순 주교가 연루돼 구금됐을 때는 석방을 탄원하러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면담하기도 했고, 그 앞에서 정권의 독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또한, 정교분리와 자유와 인권 등의 문제를 놓고 박정희와 갑론을박하다가 논쟁 끝에 박정희를 설득시켜 지 주교의 석방을 얻어냈다.

1980년대의 군사정권 출범 뒤에도 재야 활동을 하였다. 12.12 사태 이후 인사를 온 당시 전두환 소장에게 "서부 활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부영화를 보면 총을 먼저 빼든 사람이 이기잖아요."라고 비판했다. 또 가장 마음에 아팠던 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개

인적으로 가장 고통을 겪었을 때가 그때였어요. 사태가 그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지만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것 같으니까..."라는 말을 남겼다.

또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에는 "이 정권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까. 총칼의 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젊은이, 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고문 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87년 4.13 호헌 조치 당시에서도 미사에서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6월 항쟁 때는 명동 대성당에 들어온 시위대를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되려 하자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신부들, 그 뒤에 수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것이지요"라고 버틴 것도 그였다.

농성해제 그 이후

김병도 명동성당 주임신부는 「우리 명동성당 안에 함께하는 학생, 청년, 시민 여러분」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해 “교회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생활 현장에서 각자의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귀가를 보장하는 사제단의 뜻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라고 해산을 호소했다.

6월 15일 명동성당을 점거하고 있던 농성자들은 사제단의 뜻을 받아들여 해산했다. 그들은 오후 1시 30분 농성을 해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오후 2시 성당 입구에서 해산식을 가졌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 명동을 비롯한 시내 일부 대학에서 명동사태를 지지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계속됐고 부산, 대전, 대구 등 일부 지방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6월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국민평화대행진 시위가 전개되었고 3,467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6만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 되었지만, 6·10민주항쟁의 3배가 넘는 시민들이 국민평화대행진에 참여하여 시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국의 파출소 29곳, 경찰서 2곳, 민정당사 4곳이 불탔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이날의 평화대행진에 6·10 대회 때의 3배가 넘는 1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특히나 회사원들, 넥타이 부대들의 시위 참여로 6월 항쟁은 학생 항쟁에서 시민 항쟁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력은 명백히 한계를 드러냈고, 국민들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물리력은 계엄군밖에 없었다. 6월 항쟁은 고립된 한 도시에서가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일선을 비워둔 채 전군을 시위 진압에 투입하지 않는 한 6월의 행진을 제압할 방안은 없었다.

6월 29일, 민정당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는 전두환에게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할 것을 건의하여 승락을 받아냈다. 이후 노태우는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사

면, 감형 등을 비롯 야당과 재야 세력이 주장해온 헌법 개헌 등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직선제 형태의 대통령 선거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6·29 선언)을 발표한다.

6월 항쟁에 대한 느낌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지나간 시간동안 투쟁을 해왔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은 6월 항쟁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고 있다. 많은 것이 억압되었던 시기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민주투사들에 대한 감사함이나 존경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다.

현재 공동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나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행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살았고 그러한 것들을 신경 쓰는게 귀찮기도 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6월 항쟁을 통해서 인권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 학교에서의 내 모습처럼 자기일 외에 다른 것들에 무관심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었다면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렸을지도 모른다.

가슴 아픈 부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역사 속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6월 항쟁이라고 생각한다.

종교

-

신은 신어야 제 맞!

우정 하린 하한

1. 160920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 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 글

장우정

종교는 그 방식이 어떻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과 위로, 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런 문화가 최초의 인간에서부터 처음 생겨났던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종교가 오래도록 역사를 이어가고 보편화 되어가면서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왜 종교가 없을 까.

인간은 왜 '나' 또는 '너'가 아닌, 인간을 뛰어넘어 더 위대한, 더 높은 그런 존재를 스스로 찾아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나보다 무조건적으로 높은 존재를 인정하고, 숭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혹시 '인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이 없는 걸까?

이런 시점에서, 종교를 많이 접해보지 못 했던 나에게 깊은 공감이 되지 않고 거부감이 들기도 했던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지점일 수도 있겠다.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으로 인해 그것을 찬양하고 숭배하면서 내 인생을 나도, 부모님도 아닌 다른 어떤 것에게 따르며 감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게 분명하다.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하며 봤던 종교와 교인들은, 그들대로 확신과 믿음이 강했고, 각자 본인의 신앙체제에 만족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에 종교가 길고 깊은 역사를 가졌다지만 너무 크거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싶지는 않다.

누구는 이런 직업을 가졌지만 누구는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누구는 이런 취미를 가졌지만 또 다른 누구는 거기에 전혀 공감하지 못 하는 것들을 인정하듯이 종교도 조금 더 가볍고 쉽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싶다. 그 역사와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더 판단하려 하고 결론지으려 하고 다 파악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인간은 종교든 뭐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물질적인 것이든, 지식이나 사상이든)을 남에게 나누는 걸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그 대상의 반응이나 결과에 의미부여를 한다면 그것이 행해질 때 강제성이 생길 수가 있겠다. 하지만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본인이 행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조소한 “정해진 삶은 없다”

혼자 힘들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종교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믿음이다. 믿음은 사람의 나약함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마

음이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메커니즘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할 때가 있다. 최선의 선택지에 도달하기 위해 고민을 한다. 하지만 도무지 최선의 선택지를 가늠하기 힘들 때, 여기서 가장 편한 방법은 '남'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다. 혹여나 삐끗했을 때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책임'을 덜어주는 주체. 우리는 이 주체에 대해 가장 큰 신뢰를 하고, 고마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한다. 부모님, 형제, 친구같은 사람의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책임을 분담할 때(수해 복구, 기부 등)를 최고의 '선'이라고 보는 경우가 이 생각을 뒷바침한다. 혼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증명에 대한 보상

이 부분에서 종교는 우리에게 여태껏과는 다른 스케일의 책임을 덜어주는 주체가 되어준다. 무려 내 죄를 용서해주기도 하고, 앞으로 내 삶의 길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결국에 사람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냥저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서 종교마다 제시하는 최선의 길에 따라 가게 되면 그럭저럭 지나는 시간조차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은 확고해진다. 하지만 '믿음'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외곡되기 쉬우며 형태가 없는 믿음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종교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증명으로 기도를, 절을, 삭발을, 금주를, 단식을 한다. 또 기꺼이 나의 재산을 지拂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증명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의 삶은 구원받는다.

종교는 구체적이다

믿음과 증명은 나의 존재를 정립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믿고, 형태가 없는 사랑을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며, 증명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증명하기 위한 나의 제스처가 엉망이었다면 분명 보상은 안 좋았을 것이다. 종교에서는 이런 증명하기 위한 행동을 정해준다. 가령 일주일에 한 번 기도를 하면 충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기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불확실한 믿음과는 차원이 다르게 안정적인 마음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거래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이 거래가 나에게도 그에게도 유효하다면 서로에게 나쁠 것 없지 않은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받기 원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방법의 문제라 사람마다 무엇을 필요로하는지 대번에 알 수는 없지만 올바른 전도의 방식을 고민하는 게 사실은 어렵다. 내가 원하는 믿음을 아직 종교에서 찾지 못한 걸까. 종교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지 않는 걸까? 이 부분은 활동을 하면서 증명해보고 싶은 부분이다.

다른 길이 없는 사람들

본질적으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 페미니즘이 그것이고, 흑인의 역사도 그것을 증명한다. 종교를 믿어온 것도 절대적인 운명의 영역보다는 후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는 생각에 무게가 기우는 이유이다. 집안의 종교를 이어받는 경우에 '다른 선택지'를 두지 못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지 태어날 때 부터 누군가에 의해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기구한 삶일 수밖에 없는가. 무엇을 믿을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서하린

인류가 처음 등장한 선사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항상 신을 믿어 왔다. 토테미즘부터 시작해 현대 말도 안 되는 사이비까지 이 종교란 것도 참 오랫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인간은 왜 때문에 이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일까.. 인간은 신이 없으면 못 죽고 못 사는 걸까.. 나는 인간이 이토록 신의 존재와 종교를 찾아왔던 건 인간 스스로가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스스로 의문점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돌려대는 것이 아닐까.

잘 알지도 못하는 죽음이 두려워 사후세계관을 만들고 죽어서까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인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교회를 찾는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신의 이름을 단 종교는 그 만족스럽지 못한 인간의 삶을 신앙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마약(?)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종교를 받아들여려면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들어가야 많은 가르침을 스템없이 인정하고 따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꼭대기를 향해 차근차근 올라가듯이..

그리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바람직한 종교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굳이 전도에 목숨 걸면서 멸절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보다는 무리하지 말고 신의 이름으로 종교인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2. 종교인 인터뷰

20160923 개신교 신자 은지쌤 인터뷰

Q. 어디서 얼마나 종교활동을 하셨어요?

A. 7살때 부터 초등학교 6학년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때부터 간디학교에 들어 오기 전까지 열심히 다녔어요.

[공백기 이유는?]

방황의 시기였어요. 신이 어딴어! 하면서 많은 것들을 거부하며 살았고.

유년기에 교회에 다는 건 가족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집안의 종교가 있지는 않았는데 집안 사정으로 인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달란트(선물로 교환가능한 코인)같은 거 흠치고 그랬지(웃음)

Q. 방황기를 겪으면서 다시 교회에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A. 이 험한 세상에 뭐 하나라도 믿고 있어야겠다. 붙잡을 게 없으니 종교를 택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새벽예배를 갔는데 모르는 아주머니 붙잡고 울고, 그러기도 했네. 세상을 나가기 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스트레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청년부활동까지 이어나가게 되었죠.

[청년부 활동?]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20살부터 26살까지, 26살부터 결혼 전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요. 큰 교회를 다니고 싶지는 않았는데(상업적인 느낌이라) 예배는 드려야겠어서 아무 교회나 갔고, 생전 처음보는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소개시켜줘서 그 인연으로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Q. 수험생들이 교회로 많이 가나요?

A. 많죠. 생전에 교회라는 곳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까, 특히나 내가 다녔던 노량진에 청년들이 많았던 것도 그런 이유이고.

Q. 성당도 절도 아닌 마음의 안식처가 굳이 교회였던 이유는?

A. 어릴때부터 다녔기 때문인 것도 있고, 절은 향 냄새도 싫고, 도시에서 접하기 힘든 게 있었어요.

[종교에 처음 발을 내딛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교파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것 외에 다른건 틀렸다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쌤들과 얘기를 나눌 때 예민해지기도 하고.

저의 경우엔 처음엔 가족의 영향으로, 그 뒤엔 의지할 곳을 찾아서 가게 되었어요. 우여곡절이 많은 시간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울기도하고, 웃기도 하면서 고해성사하듯 기도를 했어요. 스무살이 넘어갈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엔 뭔지 모르는 화가 많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21살 무렵에 금요철야예배를 했어요. 본인 자신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같은 것들을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모자란데 세계를 위한 기도라니... 그걸 마음속으로 토로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화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평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서 기쁨, 편안함, 용서와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믿게 되었어요. 나를 대신해 돌아간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해왔던 불평들이 미안해지는...

Q. 신앙생활은 먹는 것, 말하는 것과 같이 생활 전반의 많은 것들을 관여하게 되죠. 종교활동이 삶의 부담과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나요

A. 물론 있죠. 사람은 모두 간사하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다보면 교회 안에서 점점 역할이 생기게 돼요. 이런 역할이 많아지면 일로써 다가오게 될 때가 있어요.

시간과 돈을 들인 만큼 채워지는 부분이 없다고 느낄 때 힘들어져요. 교회에서는 이런 상태를 신앙의 정체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생활이 힘들어서 종교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일 뿐이다?]

네 맞아요. 결국엔 내가 주는 것만큼 받는 것이 맞으니까요.

Q. 종교를 믿게 되기까지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이란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공부했어요. 그렇다면 주를 믿지만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교회에 나가지 않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만 보아도 학교에 오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을때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겪은 그런 사람들(신앙심이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오지 않는 경우였어요. 이유와 맥락없이 단지 활동이 싫어서 (교회에)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간디학교 오면서 '그럴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독교가 보여주는 모습이 좋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혼자 (신앙활동을)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혼자서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Q. 그럼 아예 신앙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신이 없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과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 두 개 다 자신의 '믿음'을 기초한 사고인거죠.

신앙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탄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에 설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미안함이 들어요.

[신앙심이 없는 사람에 대한 미안함?]

나와 관계가 없으면 딱히 중요해지지 않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성경에도 나와있는 기독교인의 의무예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지 못한 미안함이죠.

[미안함이라는 감정에 대해 많은 걸 느낀다. 여기서 느끼는 미안함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웃에게 드는 미안함과 열심히 하지 않으므로 인해 예수님께 드는 미안함. 이렇게 두 측면이 맞나]

네.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Q. 여기서 말한 전도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평소에 전도를 하세요?

A. 아니요(웃음)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나 (웃음) 최대한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 제하지 않고 많이 나누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도인 것 같아요.

간디학교에서 만난 모습을 많이 보이며 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전도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고등학교땐 쌍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21살 즈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좀 놀라했죠. 부산이 고향이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서울가서 사람이 많이 변했다' 라고 했어

요. 욕을 안 하니까. (웃음)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생전 교회도 안다니던 애가 서울까지 와서 수련회를 따라가더라고요.

[전도라는 행위는 나의 신념을 타인에게 설득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테레사수녀님과 같은 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성당에 가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성직자의 모습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를 믿습니까하며 다가오는 것들이나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과격하게 거리에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멘토처럼 생각했던 언니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저러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건 너도 나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판단 해주실 거다'라는 말을 해줬어요.

사람마다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내가 속단하면 안 되겠다. 어떤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Q.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타 종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다.

A. (본인이)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스님들 안 좋은 마음도 들고 했었어요. 지금은 저 사람이 나에게 신앙적인 부분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나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

[이해한다는 말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네 이해한다는 것보단 인지, 불편하게 인지되지 않는 정도. 우호적인 마음이 드는 것 보다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특정 교파에 속해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제가 만약 간디학교에 오지 않고, 속해 있던 교회에서만 배웠다면 그게 더 크게 작용되었을 거예요.

또 지금은 워낙 메스컴과 인터넷에 넘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런 시대적 환경에 의해 종교에 대한 사고를 정립하는 데에 특정 교파에 속해 있는 부분은 크게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전보다는 덜하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Q. 문화에서도 종교는 깊게 자리 잡아왔다. 혹 목사가 굉장히 탐욕스럽게 그려진다거나, 스님이 멧진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들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이 드나?

A.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매체를 사용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어요.

이동현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파면되었고. 라이즈업코리아라는 매우 규모가 큰 청소년 단체에서 복음성가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죠. 그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런 일을 보았어도 숨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종교라는 울타리가 있으니깐. 그래도 아닐거야. 믿어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인거죠. 하지만 지금은 객관적으로 종교상황에 대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생긴 것 같아요.

또 교회만 부정부패가 있는 건 아니죠. 조계종과 같은 불교종단도 많이 썩어있어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왜 유난히 교회만 부각할까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20161009 신학 교수 빈들교회 이인경 목사님 인터뷰 “우리가 종교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2010년 최근 통계에 따르면 84%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10명 중에 8.4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언제 어느 누구를 만나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공감하기 위해서 종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20세기에는 미래학적으로 종교의 자리는 과학이 대체할거다 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 왔어요. 10년 전에 종교인구는 76% 였어요. 10년 사이에 종교인구가 8%가 늘었고, 앞으로도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종교는 그 역사를 함께해 왔다. 라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라며 패러디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질문을 던져요. 일상을 살아가지만 때론 나는 누구일까,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딜까,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해요.

Q. 종교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가능할까요?

A. 지금 현재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종교를 가지게 될 때, 종교에 대한 공부 되어 있다면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신학은 믿는 것 뿐만은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믿었을 때 생기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알아야한다**. 이런 점에서 종교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가능하다. 객관적 이해는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죠.

Q. 종교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전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A. 공대에 나오는 학생들만 봐도 종교가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인터뷰어들이 사전에 설명한) 인문학 캠프의 주제로 종교를 잡았는데, 인문학을 이야기할 때 종교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인류가 살아온 흔적들에 종교의 영향이 많이 미쳐 있어요.

지역적으로 종교를 접근하면 좋아요. 지금 간디학교 학생들이 살고 있는 제천지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의 영향을 받는 부분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국정철학을 유교로 삼았다. 이런 부분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불교의 문화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세대로 거슬러 올라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계시지만 문지방을 밟아선 안된다던지,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된다던지 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서에 종교가 영향을 끼쳤다 라고 할 수 있죠.

종교는 먹거리와도 연관이 많아요. 소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 고기를 먹지 않는 스님. 가령 이런 사람들이 친구로서 만났을 때. 그럼 어떤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일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Q. 살면서 종교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선해보여요’같은 전도를 당할 때예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드리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가져가고 있어요.

A.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되나, 그 방식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상에서 하는 전도, 포교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일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길가는 사람을 잡아요. 전도를 거부해도 아랑곳 않고 얘기를 전하려 하죠. 소위 말해서 ‘설득’이라는 단어로 다른 사람의 시간과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올바른 전도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좋은 이웃이 되면서 상대방이 궁금해할 때 말해주는 거예요. 기성교회에

서는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뭐라하기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이제 막 이사 와서 친해지기 시작한 이웃과 매일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루는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였죠. 어디 갔나 물어서 '교회에 갔다'고 했더니 '사람 멀쩡해 보이던데'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래요. 특정 종교가 사람들에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포교를 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어요.

[선교를 위해 위험지역으로 갔다가 죽기도 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자 두 명이 죽은 사건을 계기로 선교방식을 바꾸자라는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갈 때는 분명 선한 의도였겠으나, 선교를 하려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위험지역이라는 경고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라는 믿음은 막무가내라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 인질이 되었고, 한국 사회의 여론이 분열되기까지 했어요.

예전의 선교는 포함외교, 포함선교였어요. 상선을 이끌고 와서 대포를 들이밀고 예수믿으라 하면 그런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반성이 없다면 이번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거라고 생각해요.

[빈들교회가 기성교회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겠네요]

다른 교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그리스도의 뜻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그것으로 전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뿐만아니고 다른 종교도 모두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Q. 신을 믿는 것과 종교를 가지는 것은 별개 일수 있을까요?

A. 별개일 수 있죠. 어떤 특정을 이름을 가진 신이 아니어도 우주와 세계의 구심점으로서의 신이 있듯이, 자신이 어려울 때 찾는 신이든, 나의 인생에 대해 설명해주는 신이든 신이라는 막연한 존재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는 아닐 거라는 거죠.

[한국 사회의 보편적 종교관은 신을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유신론자)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했듯이 무신론자이면서 종교를 가지려는 사람, 혹은 유신론자이지만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보편적 종교관에서 소외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 제도나 조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에 '안나가'는 사람들을 거꾸로해서 '가나안'성도라고 불러요. 기독교의 신은 믿지만 현실의 교회에 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신앙심에 교회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그 종교와 제도에 편승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거

부감을 가지는 거죠.

종교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종교안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한 측면을 보고, 그 종교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어떤 종교도 처음 생겨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종교는 없거든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하나의 종교라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시대, 한 지역, 한 인물을 통해 그 종교를 정의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폭력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161011 빈들교회 전도사 양쌤 인터뷰 “나는 하늘에 있는 신을 믿지 않아요”

Q. 공부할 땐 인문학자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라는 직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양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A. 나는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생 때 까지는 매 주 교회를 한 번도 빠져 본 적이 없어. 그 후로는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안다녔어. 대학에 가서 데모를 하는데, 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정말 썩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 종교가 인간의 불의에 대해 싸우지 않는 것에 등을 돌리게 되었어. 그 뒤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 신이 있고, 없고는 떠나서 말이야.

그 때 부터 민중신학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말고,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네가 신이고, 내가 신이고 그런거지.

신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대학을 다니다가 결핵에 걸려서 학교에 못다니고 1년 쉰 적이 있어. 그 기간에 갱생보호소 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 원래는 출소해서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6개월 가량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는 곳이야. 그 곳에 90%는 다 고아원 출신이야.

내게 묻더라고, ‘너는 왜 왔냐’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있어보려고 왔다”

‘그딴 거 필요 없다. 너는 부모 잘 만나서 대학도 다니고, 아프다지만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우린 하루살이다’

이 때 정신이 차려졌지. 어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친구들과 공동체생활을 시작했어. 방을 얻어서 같이 살면서 이웃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 사람 속에 있는 고귀함이 있구나...

지금은 도배를 하면서 먹고 사는 친구가 있는데, 연탄을 피워놓고 죽을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

나며 말리고, 술을 한 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 엄마를 너무 보고싶대,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존재가 있었음 좋겠다는 거야. 그렇게 엄마를 너무 찾고 싶다고 해서 글을 못쓰는 친구를 대신해서 전단을 써서 방송국 앞에 붙여놨지.

1. 이름 : 모름

2. 사유 : 2살 때 화장터에 버려져 있었음

아는 거라곤 이게 다야.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신이 있다면 신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고통에 대해서 알고,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게 사람사는 거 아닐까. 만약 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지.

나중에 공부하면서 신이 된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더라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결국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지. 신이란 게 별게 아니구나. 우리속에 있는 거구나... 신이 있어도 신이 위대해서 고통을 싹 없애주고, 정의롭게 세상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 아픈 세상에 같이 아파하고, 부대끼고, 같이 술먹는 그것이 신이 아니냐는 거지.

소록도,

그 뒤론 신혼여행을 소록도로 갔어. 소록도에 18살에 들어가서 80살이 될 때 까지 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있어. 그 때 팔빙수를 해드렸는데, 평생에 먹어본 적이 없는거야. 아깝다면서 나중에 먹겠다고 벽장에 넣어 놓는거야.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궁극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신은 믿지 않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마음속에 있는게 신이니까 말이지.

국경

탈북자들을 도울 때는 국경을 두 군데나 넘었어.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여권도 없이 목숨을 걸고, 밤중에 강을 건너는 거야.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땐 고통을 겪게 돼 있어. 계속해서 말하지만 필연적으로 인간이 겪는 고통을 나누는 게 신이 아닐까. 고통이 없어진 않지만, 고통이 나뉘지는 순간 눈물이 있고, 감동이 생겨. 이런 마음이 내가 신을 보는 눈이야.

[그렇다면 양뺨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믿지 않으니 나는 목회를 하면 안돼 (웃음) 우리 교회(빈들교회)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 점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못되 짓 하면 지옥에 가고.. 기성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나는 스스로의 확신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거야.

예수의 삶에 대해 믿는 것. 예수는 참 멋지게 산 거 같아. 젊은 33살의 나이에 죽으면서도 세상에 많은 걸 남기고 갔어. 인간이 무엇으로 사나. 그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했지. 그런 마음에 대해선 믿고 있고.

Q. 종교의 역할?

A.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삶의 기운을 얻어.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을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머리를 좋게 만들어. 이렇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위로를 받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종교가 하는 거지.

교황이 얘기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거지. 이 부분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인 거지.

천국이란 걸 믿고 싶지 않아.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 나는 자신이 없어. 그 부분이 나에겐 폭력으로 느껴져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신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

Q. 종교에 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보면, 타 종교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겠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불편함 없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A. 어릴 때 나도 그렇게 주입받았어. 다른 종교엔 진리가 없다고 생각 했지. 신이라는 건 진리의 극점이야. 비유를 하자면 진리라는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다양한 코스가 있는거야. 이 코스에는 답이 없어.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전쟁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는 거야.

신은 곧 자신의 신념이야.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두 신을 믿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자신의 신. 자신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각자만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간디 선생님이 그랬어. 간디는 기독교를 믿지도, 힌두교를 믿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을 읽었어. 예수란 사람이 이렇게 살았네 하면서 재밌어서 읽은거지. 또 힌두교의 경전도 읽어. 그런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신념을 따오는 거야. 이런 간디선생을 보고 ‘당신은 신을 믿느냐’하고 묻는 건 바보 같은 거야. 간디는 자신의 신념을 좇는 거고, 그게 곧 그의 신이니까.

자신의 진리, 신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종교라는 것을 택할 수도 있고, 자신의 방식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3. 종교인 인터뷰 후 생각 정리글

서하린

1. 종교에 필요한 것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했다. ‘종교를 떠나서 세계평화를 위해 다함께 기도하자’ 라고. 그 말인즉슨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각 종교들끼리의 이해와 화합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한 종교에서는 이에 대해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우리 신 챙기기도 바쁜데 왜 우리가 남의 신자들까지 이해해야 하나? 저들이 무조건 틀린 것이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느 종교에서나 이웃과의 평화를 실천하라고 말한다.(꼭 복음 전파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또 이웃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뻗어나가 세계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라고도 말한다. 그렇다면 종교를 믿을 때 타 종교와의 이해와 화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종교에서 말하는 세계평화 실천을 대입해보면 각 종교간의 화합과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고로 각 종교간에 대한 이해는 종교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내가 네팔에서 경험했던 교회와 선교사 분들을 포함한 많은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다. 그들도 그들 나름만의 종교철학이 있겠지만.. 남 좋은 꼴 못 보는(?) 한국인들의 끈대적 특성이 종교활동에 묻어 나오므로서 현 한국 개신교와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2. 신념과 인문학

인간이라면 누구나 각자 자신만의 신념이 있을 것이다. 신념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가치관, 자기철학 등등 자신이 세운 자신만의 결론과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개인적 신념을 가지고 각자 자신만의 신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신이 절대적 존재일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신이 있다고 했을 때,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신이 인간을 통해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한 파파는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꼭 살려야 한다.’ 라는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 때 파파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가령 의사가 된다던지..) 여기서 우리는 파파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을 하나의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지난번 회의에서 ‘종교를 가지는 데에는 신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론지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신이 있다고 느끼던 없다고 느끼던 바에, 자신의 신념 자체를 하나의 신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모든 신념이 하나의 우주 초월적 존재로부터 나왔다고 느낀다면, 그는 유일신-예를 들면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신

념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호메로스가 말한 다신교적 사고가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로써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여기서 ‘신념에 따른 활동이 곧 종교활동’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모든 인간은 곧 종교인이라는 결과도 나올 수 있겠다.

여기서 내가 더 공부하고자 하는 건(답을 내리고자 하는 건) 그렇다면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등 특정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단(?)이 이뤄온 인류의 역사와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는 영향. 그런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몇 달 전부터 이어져 온 궁금증이다. 개인적으로 네팔에서 겪었던 억지 종교활동 참여는 내게 너무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는데 과연 내가 이걸 무턱대고 싫어하는 게 맞는 태도일까.. 하던 고민이 이렇게 규모가 커져 버렸다. 부디 이번 활동을 통해 이 시기에 특히나 중요한 내 신념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장우정 “인문학과 종교, 그리고 신념”

‘인문학’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막막하다.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정의는 없으니, 여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 들었던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인문학 공부는 뭘까 고민했다. 나는 이번 교육과정으로서의 인문학캠프를 ‘어떤 주제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나’라는 인간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인간의 힘보다 훨씬 강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흔히 ‘예전에는 상상도 못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 인류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업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나에게 인간이 고귀한 존재라는 인식과 확신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서 오는 것인데,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각자에게 고유한 ‘신념’이 생기기 마련이다.

신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신념’이란 것은 내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상황들 속에서 발동하게 되는 고유의 마음, 생각 등이 될 수 있겠다. 대중적으로는 흔히 기성종교로 나타나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큰 종교집단을 통해 본인의 신념을 확인하거나, 또는 각 종교의 교리에 맞춰 신념을 세워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소하게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신념에 따라 내 삶의 방향, 진로 등이 정해지기도 할 것이다.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인간인 우리는 각자의 신념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신념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것이 절대 나쁘거나 미성숙한 것이 아니며 다른 이의 신념을 보고 느끼면서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만의 고정된 신념을 확립한다’의 개념보다 ‘나의 신념에 대한 확인, 그리고 본인으로서 그것을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서는 어떤 신념이 있는지, 앞으로도 본인의 신념에 대해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해보는 과정이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문학이라고 느껴진다.

조소한 “신념을 의식하는 것”

김은지쌤, 이인경 목사님, 양희창 전도사님과 차례로 종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인문학자로서 들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어느 한 길로 통일 되지 않았다. 명확히 얘기하면 생각들이 모여졌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며 저마다 삶을 통해서 느껴온 종교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

종교는 서로 이해해야할까

인터뷰를 모두 기록하고, 복기하면서 들었던 첫번째 물음이었다. 단차원적으로 종교끼리의 이해가 필요할까라는 물음에는 모두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인터뷰를 복기하는 종교조 회의에서도 ‘종교끼리 이해할 필요가 있나?’는 물음이 나왔다.

가장 먼저 인터뷰한 은지쌤의 경우, 스스로가 타 종교에 대한 ‘이해’보다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불편함 없이 ‘인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워딩을 보았을 때 다양함이 인정되는 민주사회에서 다름을 대하는 합리적인 자세라고 생각했다.

이인경 목사님과 양쌤의 인터뷰에서는 이 부분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은지쌤과 같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종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종교가 세계평화의 역할을 해야하나?

이 생각을 뒷바침하는 개념은 ‘세계평화’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일 세계평화기도회 30주년 행사에서 “종교가 무엇이든,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평화는 종교가 마땅히 추구해야하는 것일까?

질문을 견고히해서 ‘종교가 세계평화의 역할을 해야하나?’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불교의 살생, 기독교의 사랑, 이슬람의 평화와 같이 모든 종교에선 화합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통해 종교가 세계평화를 목표로 해야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세계평화를 위해 종교끼리의 이해가 필요할까?

이 부분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키워드이다. 양쌤과 이인경 목사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해서 '세계평화를 위해선 종교끼리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세계평화를 위해 종교끼리의 이해가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관계의 시작은 관심이고, 관계의 고양은 이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평화의 기본을 이해로 설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세계평화가 종교의 마땅한 의무이고, 그것을 위해 종교끼리의 이해가 필요하다면, 세계평화가 전도를 하는 것 만큼,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종교끼리의 이해는 종교인이 가져야하는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

글의 초반에서 밝힌 은지쌤의 '인지' 정도의 마음가짐은 민주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고, 타협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평화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때문이다. 이해는 힘든 행위다. 평화를 위한 '진짜' 이해를 위해선 종교와 종교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타 종교에 대해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내 신은 어디에 있나

종교인끼리의 이해해야 하냐는 물음에는 '세계평화'라는 개념을 대입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나의 신은 어디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나는 저 위의 신을 믿지 않아요"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한 양쌤은 인터뷰 내내 줄곧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신'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다.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신. 소록도에서 난생 처음 먹어보는 팔빙수를 아깝다며 벽장에 넣어 놓는 할아버지를 보며, 갯생원에서 어머니를 찾고 싶은 고아가 알고 있는 건 2살때 화장터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 뿐임을 보며, 신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양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관여하는 권능하고 위대한 신이 아닌 사람마다 믿고 있고, 우리의 관계속에서 느껴지는 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

신념의 신

이 부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믿는 것이 곧 '신'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각자가 필요로 하고, 심지어는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신념 또한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각자의 신념을 살아내는 방법에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기성종교의 활동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면 꼭 기성종교에서의 활동이 아니어도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종교활동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다.

이 부분에서 종교조에서 분리해냈던 유신론자, 무신론자의 개념을 탈피하고자 한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신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나의 신념은 무엇일까

나는 신이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막연히 생각한다. '모든 것은 빛난다'에서 우연히 일어난 행운을 대하는 가장 적당한 자세는 '자만'이 아닌 (신에 대한)'감사'라고 했다. 하지만 어떠한 행운을 겪었을 때 신이 먼저 떠오른 적이 없는 나는, 신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닌 나의 선택에 따라 발현되는 '신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와닿는 부분이다.

당신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이 질문은 나의 삶은 관통하는 한 가지 신념일 것이다. 양잿에 경우는 사람속에 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꽤나 고귀한 존재이다. 라고 말한다. 이 신념은 양잿이 전도사이면서, 인문학자 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렇게 인생을 관통하는 신념이 있지만, 신념이란 건 매 순간 나의 행동을 선택하는 다양한 기준점이기도 하다. 가령 극단적인 예로 길거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있는 사람이 살인자일 경우가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하는 선택은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10월 11일 강당에서 양잿의 인문학 강의가 있었다. 강의중 '20대 즈음에 그리는 20년 후의 나의 모습대로 대부분 살아간다'는 말을 해주셨다. 이 말의 뜻을 '바퀴벌레 한 마리도 쉽사리 죽이지 못하는' 우정이 어머님의 모습에서 해석해보면 거대한(혹은 거창한) 신념이 아닌 나의 행동을 좌우하는 사소한 기준점이 되는 신념이 10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충분히 바뀔 수 있고, 확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 한 것 같다.

다신교적 사고를 이해하는 키워드?

그럼 다시 종교적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 상황마다 스스로의 기준점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에 따른 신' 이라는 개념은 '다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호메로스의 다신교적 관점에서 상황을 만들어보았다. 삼각관계가 있다. 그와 그녀가 사랑하지만 나도 그녀를 사랑한다. 여기서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 기준점에 의해 '그녀를 사랑한다'는 신념이 생긴다. 여기서의 사랑을 관장하는 '아프로디테'가 나의 신이 된다. 이 사랑을 차지하게 위해 불륜을 저지르고, 악행을 한다면 그 신념에 따른 죽음의 신 하데스나 전쟁의 신 아레스가 내 신이 되겠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신의 개입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다. 이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신념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삶의 디테일한 부분. 밥을 먹는 것부터 사랑을 하는 것까지 행동마다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다신교적 관점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일한 절대적 신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그의 뜻대로 흘러가는 세상이 아닌, 나의 관점에 따라 그 신념을 확고히하는 매체로 '신'이 채택된다는 것이다.

신념을 자각하자

신념이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며 누구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신념에 의해 행동하는 가 의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각을 끊임 없이 해내는 과정이 종교를 인문학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4. 본캠프 개인 발제문

서하린 “사람이 종교를 찾는 두 가지 관점 '신!'”

서문: 종교란 무엇인가?

(태쌤의 강의를 통해)우리는 이제 왜 나와는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종교에 대해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중요한 종교를 왜 믿는지에 대한 차례이다.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백과사전이 정의하는 종교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백과사전에 따르면, 종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일, 또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나 가르침', 과 비슷한 것으로 '궁극적 실체 또는 초자연적 원리들과의 관계를 함축하려는 의례와 믿음의 체계' 라고 말하고 있다. 사전상의 정의만 보면 이 종교란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 잘 감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는 거의 인류가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인간과 함께하며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까지도 여러 종교적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각종 이슈들이 화제가 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 종교의 교리를 성실하게 따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인들도 있고, IS 등 특정 종교의 광신도들은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특정 종교에 대해 반감을 사도록 만들기도 한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과학 기술이 발달되며 '없을지도 모르는 신'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스티븐 와인버그는 종교에 대해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고, 세네카는 “평민들에게는 진실로 여겨지고, 현자들에게는 거짓으로 여겨지며, 통치자들에게는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며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아마 반 친구들도 종교와 자신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듯이 평소 종교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종교적 이슈를 접속하며 특정 종교나 종교인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 역시도 다를 바가 없었다. 인턴십을 하는 동안 강제로 다니다시피 했던 교회에서의 나쁜 추억 덕분에 기독교와 교회를 색안경을 낀 채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제럴드 윌립스의 “종교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견해에 앞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견해가 앞서면, 그것은 단지 선입견일 뿐이다.” 라는 말처럼 ‘인간은 왜 종교를 믿는가?’ 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종교인들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먼저 갖추어야만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이유’를 단순히 생각해보자. 백과사전에 나와 있듯이 신이 없는 종교는 그리 많지 않다. 종교에서 ‘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는 말이다. 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견해를 갖게 된 건 아무래도 하나님만을 신봉하던 네팔에서의 경험이 크게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는데, 바로 신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담긴 글이었다. 미국인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왜? 신이 없으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도덕이 없고 무엇을 해도 죄가 된다는 관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가치나 삶의 의미를 신에게서 찾는 믿음은 동양 사람에게 아무래도 생소하기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 동양에서 유행했던 불교도 부처를 ‘숭배’ 하는 개념이 아닌 내면을 성장시켜 부처의 ‘경지에 이르도록’ 이끌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에 대한 숭배보다는 현자들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 속했던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데에 신이 크게 자리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적 사고를 가진 서양문화권이 세계의 발전을 주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류의 ‘발전’ 에 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았고, 나는 여기에서 인간이 종교를 믿는 데에 신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러한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을 중심으로 ‘종교에서의 신의 역할’ 을 알아보았다. 다음에서 펼쳐지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신은 현존하는가

고대 신학자 중 가장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길, “어떤 것이 무엇인가(Quid est)’라는 물음은 ‘그것이 실제로 있는가(en est)’라는 물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서 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신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인류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과학 기술이 점점 발달되며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고, 무신론자들과 유신론자들 사이의 논쟁도 이에 따라 발생했고 그 논쟁은 현재까지도 인류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우리 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도 그렇지만 아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존재론과 비존재론은 너무나도 설득력이 강해 양 측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될 정도다. 여기서 나는 무신론자(라고 치자)들의 비중이 더 많은 우리 반 사람들을 위해 신이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위주로 자료를 모아 보았는데, 여기서 내가 ‘신은 존재한다’ 주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양 측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한 측의 의견을 첨부한 것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존재, 현존, 실존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존재, 현존, 실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언뜻 들으면 셋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세 단어에 대한 맥락은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존재는 있다는 뜻이다. 더도 덜도 말고 '무엇이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의 개념이 그렇다. 눈으로 볼 수 있던 없던 촉감으로 느낄 수 있던 없던 '있거나 혹은 없거나' 를 말할 때 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남은 실존과 현존의 뜻은 사실 거의 비슷한데, 실존은 '실제로 존재함'을 뜻하지만 20세기 실존주의자(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등)들은 실존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함으로써 의미 있게 산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기획투사(Entwurf,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향해 자신을 던진다는 의미),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앙가주망(engagement,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제 스스로를 잡아맨다는 의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인간은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신은 실존하는가? 라는 물음이 아니라 신은 현존하는가?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은 과연 현존할까?

존재론적 논증

신은 현존하는가? 에 대한 물음은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 문제의 뜨거운 감자였다. 그 중에서도 나는 네팔에서 겪었던 기독교의 반감이 섞여 신은 없다고 혼자 결론지었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한 철학자의 말을 통해 '신은 없다'라는 확신을 굳게 다졌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없지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한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체 이 세상에 악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이라 불려야 하는가?

에피쿠로스(Epicouros, 기원전 341~기원전 270)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그 자체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하지만 세상에 전무하는 '악'을 막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어질 '지적 설계론'을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아무튼 에피쿠로스가 살던 시대를 보면 기원전 고대 시대부터 이러한 논증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신의 존재를 둘러싼 이 논증을 두고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한다. 존재론적 논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무스와 일개 수도사인 가우닐로의 논증을 살펴보자. 대주교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주 많은 신학 공부를 한 안셀무스는 신에 대해 '그 이상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엇(aliquid quo nihil maius cogitari possit)' 이라고 정의하며 '최고의 존재(summa esse), 최고의 본질(summa essentia)' 이라는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a) 신은 정의상 그 이상 완전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완전한 존재다.
- b) 가장 완전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결핍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c) 만일 어떤 것이 인간의 정신에만 존재한다면, 이는 실제적 존재가 결핍된 것이다.
- d) 그러므로 신은 인간의 정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인간의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머리로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뜻이다. 굳이 쉽게 말하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의 나는 놈. 하지만 여기에 일개 수도사인 가우닐로라는 사람이 안셀무스의 논리에 대한 반박문을 펴내게 되는데, '사라진 섬'을 상상한다고 해서 섬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안셀무스가 말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신이 있다고 상상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법은 없다는 뜻이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릴 적 동화에서나 보던 인어공주나 유니콘, 용 등이 있다고 상상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셀무스는 여기에 맞서지 않고 아래와 같이 신(神)의 개념은 일반 개념과 본질이 다르다고 반박하며 '신 개념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 a) 신은 정의상 그 이상 완전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완전한 존재다.
- b) 현존(existence in reality)에는 필연적 현존과 우연적 현존이 있다.
- c) 필연적 현존이 우연적 현존보다 완전하다.
- d) 그러므로 신은 필연적으로 현존한다.

이러니 가우닐로도 별 수 있나. 결국 안셀무스가 말하는 신은 아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한다고 해도 결국 그 이상이라는 말이 된다.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못한 신의 존재를 과학적 증명 그 이상으로 설명할 수조차 없다는 말이다. 결국 이 싸움(?)에서는 안셀무스가 이긴 셈이 되었지만 이 일이 있던 한참 후에도 존재론적 논증에 대해서에 대한 결론은 좀체 나오질 않고 있다. 사실상 이런 논쟁을 계속해 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신은 정말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원대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아직도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굳건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존재론적 논증에 대한 이야기를 벗어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하는 신의 감각적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그것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a) 세계에는 감각적으로 확인되는 일반적인 특성들이 있다.
- b) 그런데 세계의 모든 일반적인 특성은 스스로 생겨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이 때문에 무한소급해 가는 모든 원인의 궁극적 원인이 없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
- c) 그러므로 세계에는 궁극적 원인이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논리를 통해 신은 감각적 경험에서 시작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에서 시작해 초감각적 존재인 신의 현존을 이끌어 내고 있다. 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참 흥미로운 주제이다.

지적 설계론

내가 어렸을 때엔 집에 책이 참 많았다. 동화와 소설부터 시작해 역사와 과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책이 거실을 꽉 채울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인체의 신비’ 라는 과학책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그림과 함께 조목조목 설명하며 인체의 신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면 이 세계와 생물들은 참 신기한 것 투성이다. 강아지의 코는 어찌 그리 촉촉한지, 어찌다 죽은 세포들이 모여 손톱과 발톱이 만들어졌는지... 세포보다 더 작은 원소들로 모든 생물과 물질들이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은가? 어찌면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 설계한 것은 아닐까? 신이 이 세계를 설계했다면?

이에 대해 ‘신이 이 세계를 설계했다’ 고 말하며 보다 설득력 있게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페일리인데, 페일리는 ‘페일리의 시계’ 라는 이론을 통해 지적 설계론을 다음과 같이 펼치고 있다.

- a) 시계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어떤 지적 설계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 b) 세계는 시계와 유사(analogy)하다.
- c) 그러므로 세계는 어떤 지적 설계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그 설계자가 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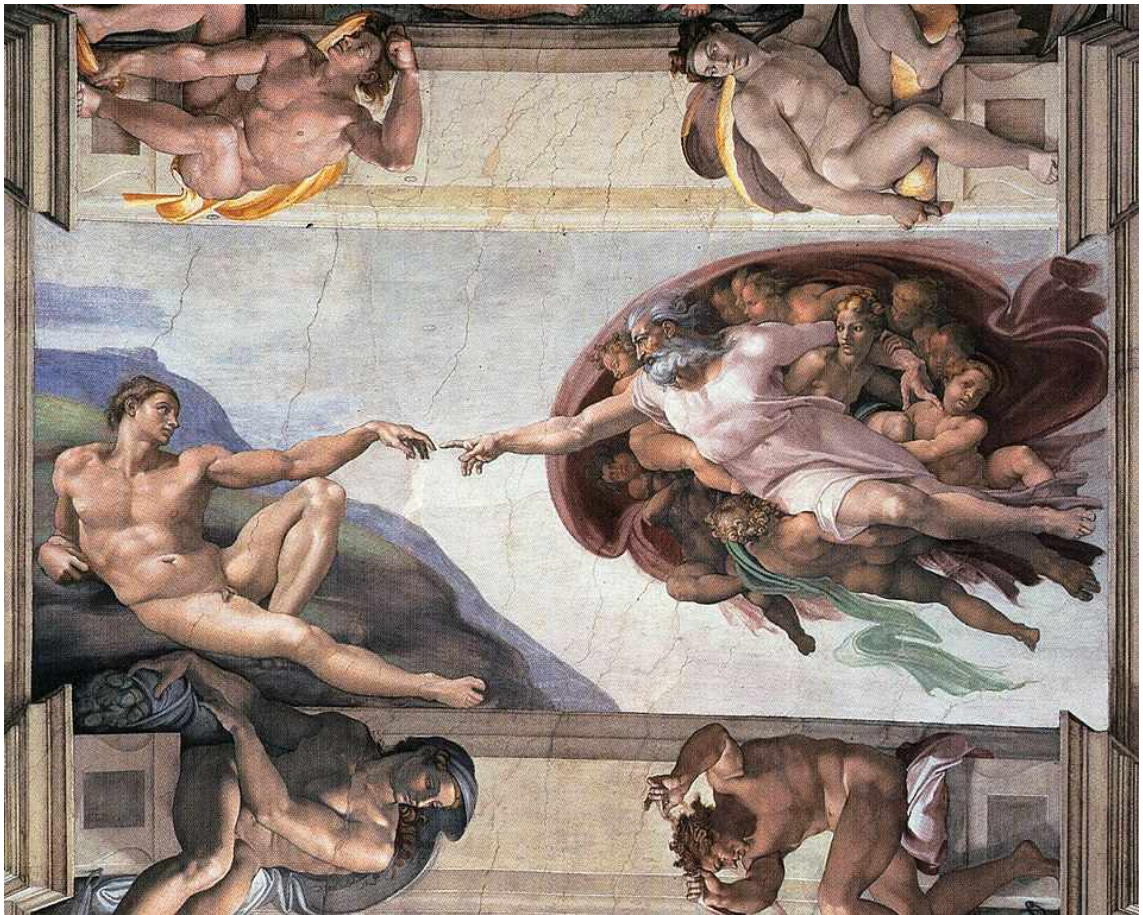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있는 정교한 세계를 시계에 빗대어 신이 세계를 시계와 같이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다. 실제로 페일리는 이 의견을 증명하기 위해 새의 날개, 물고기의 지느러미, 인간의 눈과 심장 등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했다.

물론 이 지적 설계론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부터 시작해 데이비드 흄(D. Hume, 1711-1776)이라는 자연신학자는 ‘어떤 것이 설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설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고, 에피쿠로스는 ‘수많은 원소가 제멋대로 움직이며 가능한 모든 결합을 이루다가 어느 때 우연히 안정된 결합을 이룸으로써 고정되고 질서 잡힌 세계(an orderly cosmos)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우연에 의해서도 세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도 없다. 위에서 말한 학자들의 주장은 현재의 우리보다 더 많은 연구와 고뇌를 통해 나온 하나의 의견일 뿐, 아무도 무엇이 정답이라고 매길 수는 없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결국 신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답은 어차피 내리기도 힘들고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종교에 있어 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점이니까. 이제부터는 이 모호하고 애매한 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은 일단 두고, 신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자.

2. 신은 무엇인가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중 '아담의 창조', 1508-1512

앞에서 우리는 존재론적 논증에서 안셀무스가 말하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존재'인 신의 완전함에 대해 어느 정도 느꼈다. 하지만 단순히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만으로는 아직 아쉽다.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신은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신인동형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평소 생각하던 신의 이미지가 있다면 떠올려 보자. 음.. 예를 들

어 나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가장 유명한 ‘아담의 창조’에서의 신이 떠오른다. 예를 든 김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장면을 보면 왼쪽에는 아담이 비스듬히 누워 왼팔을 뻗어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신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오른팔을 아담에게로 뻗은 채 생명의 숨결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다.

언뜻 보면 참 잘 그린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신의 모습은 우리가 현재 알고자 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다. 성서만 보더라도 신이 흙으로 아담을 빚고 코를 통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는데(창세기 2:7), 작품에서의 신은 손끝으로 생명을 전해 주려 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 대놓고 말하자면 현재 많은 종교에서 따르고 있는 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인들은 신을 영(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떠한 모습이나 형체가 없는 영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또 히브리 말로 영은 ‘바람’ 또는 ‘숨결’과 어원이 같은데, 때문에 독일의 현대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W. Pannenberg)는 “신이 영이라는 말은 신이란 모든 것에 침투하는 바람, 때로는 조용한 숨결로 때로는 거센 폭풍으로 모든 것에 침투하여 지배하는 바람이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의 모습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희고 긴 수염이 난 할아버지의 모습도 아니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모습도 아니다. 도무지 어떠한 감각적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때문에 성경에서 신은 자신의 위엄과 능력을 실제 모습을 비치는 것이 아닌 어떤 대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비치곤 한다. 바람이나 불, 꿈이나 환상, 음성이나 천사를 통해 보이는 것이 그 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 역시 ‘신의 영광과 위엄의 상징을 보았다’라고만 말할 뿐, 실제로 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신을 ‘볼 수 없는 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낸 미켈란젤로는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 미켈란젤로의 진짜 속사정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천지창조>가 나온 시대를 잘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완성한 시기는 1508년부터 1512년, 중세 시대 말기 한창 문화와 예술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던 르네상스가 한창일 때였다. 르네상스 시대 때 미술계에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면서 인간의 나체가 그려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천지창조>도 이 중 하나이다. 신을 중요히 여겨 숭배하기는 하지만 예술에 대한 비중이 더 컸다고도 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천지창조>가 나오기 이전 시대의 작품들은 고대 로마 시절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작품에서 인격적으로 표현되었고, 기독교가 퍼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제우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신을 인격화시켜 작품에 나타낸 것으로 설명된다.

위의 예시처럼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이론을 ‘신인동형설(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데, 신인동형설의 대표적인 예로는 그리스 신화와 인도 신화가 있다. 그리스 신화의 인격화된 신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기원전 384~기원전 322)가 《시학》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 뒤로부터 신인동형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아마도 신들을 그와 같이 즉—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전설에 상응하듯이—묘사하는 것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진리에도 맞지 않는다. 사실은 크세노파네스가 말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사실은 크세노파네스가 말한 것과 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2세기 후반에 활동한 교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Alexandrinus Clemens, 150~215)가 펴낸 《학설집》에 다음과 같은 크세노파네스의 말이 들어 있다.

…… 그러나 가사자(可死者)들은 신들도 태어나고
자신들처럼 옷과 목소리와 형체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네.
신들과 인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하나인 신은
형체도 생각도 가사자들과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네.
…… 만일 소들, 말들 그리고 사자들이 손을 갖는다면
그래서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말들은 말들과, 소들은 소들과 유사한 신의 모습을 그릴 것이고
각기 자기 모양대로 신의 형체를 만들 것이네.
…… 신에 대해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제껏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네.
심지어 누가 그런 것들에 대해 완벽하게 옳은 말을 했다 해도
그 자신은 그것을 모르리라. 그저 추측으로 짜인 거미줄일 뿐.

여기서 나오는 멋진 표현인 ‘추측으로 짜인 거미줄’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신을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는 자”라고 표현했고, 여기에 덧붙여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자이며, 실제이자 발취 실현 상태인 자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현대 학자들은 ‘부동의 운동자(unmoved prime mover)’ 또는 ‘원동자(primim movens)’라고 한다. 이 단어의 뜻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운동(kinesis)’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말은 장소의 변화뿐 아니라 질적 양적 실재적 변화를 동시에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운동이라는 단어는 ‘변화’라는 단어로 인식해도 무방하다. 이 단어의 뜻을 토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운동자’를 해석해보면 ‘자기는 질적 양적 실재적 장소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질적 양적 실재적 장소적 변화의 근원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아래에서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1500여 년 뒤 단테가 《신곡》에서 말하는 ‘부동의 운동자’관념을 쓴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더 쉬울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의 신을 믿습니다. 유일하고 영원한 그분은
사랑과 소망을 통해 모든 천체를 움직이시되

당신 스스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신의 이름과 존재

위에서도 잠깐 나온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 중 “신이 무엇인지 알려면 신이 어떤 식으로 이름불려지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의 이름에 대해 알아보자.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한국인들은 신을 두고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그는 그를 부르는 호칭일 뿐 신의 이름은 아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이름의 뜻이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 보는 대상을 마주할 때 대부분 그것의 이름을 통해 그 대상의 쓰임새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념을 대표하고, 서로 다른 사물을 구별하는 칭호로서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지시해 주기 때문에 ‘무엇이 어떤 것인지’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것의 이름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이름의 의미는 더 중요했다. 고대에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고유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담겨 있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이름에는 그 사람의 특징 또는 삶의 목적을 나타내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는 등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벨기에의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A. LaCocue)은 “그러므로 ‘신의 이름이 무엇이나?’는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는 데 있지 않고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성서에 신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쉽게도 신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힌 적은 없다. 오히려 감추고 알려주려 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토록 전능한 신이 왜 자신의 이름을 감추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존재론적으로 따져보면 그 이유가 간단히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신에게는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존재론의 전통에 의해서는 만물의 근원인 신에게는 이름이 없고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왜일까?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물’에게만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필은 연필으로 있고 의자는 의자로 있다. 이 때 연필을 연필이게, 의자를 의자이게 하는 그 어떤 성질을 두고 존재론에서는 본질(本質)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의 있음을 존재(存在)라고 한다. 이것을 세상에 비유했을 때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 본질과 존재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세상 만물은 모두 ‘무엇’이라는 본질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그 ‘무엇’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다. 따라서 이름이란 어떤 것을 그것이게끔 하는 본질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한정된 존재물에만 붙일 수 있다는 말이다. 연필이 연필인 것은 그것이 연필이게끔 하는 연필의 본질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것을 연필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신은 만물의 궁극적 원인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 본질이 명확하지 않다. 설사 규정되어 있는 어떤 본질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신은 그 위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신에게 어떤 본질을

붙인다 하더라도 ‘신’이라는 말 위의 다른 어떤 것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신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우리는 신을 파악할 수도 신에게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340)가 던진 말. “네가 신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네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다(qui mirum si non comprehendis? Si enim comprehendis, non est deus).”

그렇지만 인간의 호기심을 당해낼 자 누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꿈을 부려 가깝스로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ehyeh asher ehyeh)’라는 신의 이름을 알아내는데, 이를 직역하면 ‘나는 있는 자다’라는 뜻이 된다. 신 스스로가 자신을 ‘존재물’이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린 것이다.

신의 말대로, 신에게 본질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존재’일 것이다. 때문에 현대에는 신의 이 이름을 ‘야훼(YHWH)’라고 규정짓고 있다. ‘존재’라는 뜻이다.

신은 어디에 있나

우리는 이제까지 신의 모습, 신의 이름에 대해 어느 정도 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은 어디에 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탈시간화’의 개념이 필요하다. 탈시간화란 쉽게 설명해 시간개념의 바깥에서 바라본다는 말인데, 카메라를 떠올리면 쉽다. 저녁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야경으로 담을 때, 카메라의 노출 시간을 길게 열어 놓으면 셔터를 닫을 때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보이면서 멋진 야경 사진이 완성된다. 변화하는 대상들로부터 불변하는 개념을 얻어내는 것이다. 탈시간화도 마찬가지로 ‘신은 우리의 시간 안에 있지 않다’는 이론이다.

“신은 영원히 안식하느냐 아니면 부단히 활동하느냐?”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을 탈시간화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신은 영원히 안식하면서 부단히 활동하신다”라는 대답이 나온다. 신은 ‘시간 밖에서는’ 영원히 안식하지만 ‘시간 안에서는’ 부단히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의 모습 상상하기

탈시간화의 개념을 마지막으로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신의 이미지와 신을 알아보고 난 후의 지금의 이미지는 조금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로 신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는 사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은 훨씬 더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데다가(사실 크다는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사는 시간 밖에서 존재하고, 신의 이름이 존재 그 자체인데 이 세계의 작은 하나의 내가 감히 신의 모습을 상상해도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칼 바르트는 “모든 인간적인 과 무한한 질적 차이로 대립하고 있으며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고 알고 체험하고 경배하는 것과 결코 일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한다. 또 그레고리우스(Gregorius Nazianzenus, ?329~?389)는 “무한하고 무규정적 실체의 거대한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이 생각하는 신 비유의 대표적인 예이다. 거대한 바다를 상상해보자. 끝이 없는 거대한 바다는 때로는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하게 흘러가기도 한다. 하지만 바다 전체를 보았을 때는 조용한 바다일 뿐이다. 그리고 지구는 파도가 흘러가며 솟아오르는

작은 물방울 속 존재인 것이다.

거대한 바다 중에서도 작은 물방울이 지구라면, 우리는 얼마나 한없이 작은 것인가? 헨리 모어(H. More, 1614-1687)는 이렇게 말한다. “거대한 바다(대양)에서 물방울 하나란 무엇이란 말인가?” 또 18세기 독일의 시인인 프리드리히 실러는 세계를 “존재들의 당국이라는 잔에서 일고 있는 거품”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철학적으로도 연결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물음과 같은 맥락으로, 다음 장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아보며 인간이 신을 찾게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3. 인간은 왜 신을 찾는가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모자람을 채우며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한다면 굳이 신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모자람에 해당되는 분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직 알지 못하는 넓디넓은 우주, 인간이란 무엇인지 과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철학적 부족함 등일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이 ‘인간의 부족함’을 중심으로 내 의견을 뒷받침해 줄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했다. 그 중 윌리엄 제임스는 《낙관주의적 성품의 종교》라는 책을 통해 인간이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를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아직 꽤 어린 편이기 때문에 아직 죽음에 관련된 경험도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병에 걸리는 등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느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죽을 때의 느낌은 어떨까? 죽음 뒤의 사후세계는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상당히 막막하고 조금은 두렵고 무서운 느낌이 들 지도 모른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 사실상 아무 것도 모른다.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이다. 누구든지 모르는 세계로 첫발을 내디딜 때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아예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작가는 “사람은 가끔 외부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자신에게 인상지워진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종교와 신은 죽음 뒤에 펼쳐질 세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며 인간이 올바르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준다. 심지어 살아 생전 삶의 태도의 질이 높을 경우에는 평생 누리지 못했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도 강조한다. 인간이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종교를 통해 말끔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87년 삼성의 초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정의채 신부에게 ‘존재의 진리’에 대한 24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질문 중에는 신은 과연 존재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 회장은 결국 신부의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 회장의 사례를 통해 최고의 영광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느낀 인생의 허

무함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느껴진다.

또 인간은 죽음뿐만이 아닌 갖가지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달고 산다. 내일 비가 오면 어찌지, 요리를 완성했는데 맛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찌지...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 걱정이 우리의 지식 수준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에 대해 제임스는 “끊임없이 쏟아붓는 무한한 신의 사랑과 충만함 그리고 생명력만이 이러한 병으로 물든 바다를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신에게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 모든 일들은 신의 뜻이 되며, 그러한 신의 뜻 속에서 인간은 또 다른 교훈을 얻기도 하고 지친 삶을 위로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 기쁜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고난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인간현상》의 저자 샤르맹은 〈그리스도교 현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그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또 신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기도 한다. ‘인간의 삶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나’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답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칠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행복을 위해 고난을 견디어내고자 하는 모든 행동을 하고 있다. 아무도 사서 고생을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삶의 고뇌에 찌들어 있는 인간은 신을 통해 초자연적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신을 만나는 영적 체험-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을 통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은 신을 통해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고, 또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게 되어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또 죽음 뒤의 영원한 세계를 확신할 수도 있게 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과정은 오직 ‘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을 믿고 믿고를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와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도 그들 나름만의 신이 있고, 신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을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왜 신을 찾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공부를 바탕으로 자신이 신(종교)를 선택할지 말지는 알아서 잘 생각하길 바란다. 부디 이 공부를 통해 종교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바란다.

장우정 “인간이 종교를 찾는 두 가지 관점 ‘신?’ ”-영화 ‘사이비’를 보고

서문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적 습성을 가졌고, 대부분의 사람이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신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정당성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종교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

다. 이것은 곧 **신과 종교활동은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1. 인간의 종교적 본성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되려고 하며 행복하게 머물고자 한다.” _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창조자인 프로이트가 말 하듯이, 인간은 모두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졌는데, 이는 각종 종교와 인간의 사고에 있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없는 모두의 본성이다. 따라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적이고, 종교는 그런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종교의 공통점

1.인생과 우주의 궁극적인 질문을 해결하려 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과 악은 무엇인가,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등)

2.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인간에게 확신을 가져다 준다.

이 두 가지 커다란 공통점은 모두 **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공통점일까?

2. 나에게 신이 없는 종교는 종교인가

◇ 종교의 사전적 풀이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일. 또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나 가르침.

이렇듯 우리가 흔히 가진 종교의 이미지 속에서도 ‘신’의 존재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반 전체 인원 중 종교인이 단 1명에 불과 하는 우리 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교의 두 가지 성질을 소개한다.

◇ 종교의 두 가지 성질

-계시종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의 개념이다. 계시종교의 출발점은 초월적 존재의 신(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 계시(啓示)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들어내보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서 신앙심을 요구하는 것이 계시종교이다.

-자연종교(이신론)

계시종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출발점이 사람인 종교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사람의 종교심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개념이 보급된 것은 17~18세기 유럽의 계몽사상가들에 의해서인데, 이신론자들은 초월적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무신론자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

이들은 사람에 따라 신의 존재와 신에 의한 창조설을 인정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이질적, 비물질적·초월적 존재로서 세계의 밖에 있으며, 이 세계는 창조된 후에 스스로 합리적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 인류와 종교의 역사적 흐름

- 애니미즘(Animism)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 특히 태양, 물과 같은 것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토속신앙의 한 사상이다. 신석기시대에 농경생활을 하며 자연의 섭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며 생겨났다.

- 토테미즘(Totemism)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 동식물과 연결시켜 숭배하는 사상이다.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수호신으로 삼았다. 현재의 스포츠팀 같은 경우에 특정 동물을 마스코트로 지정해 그 팀의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의 기원이 아닐까?

- 다신교

많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종교 형태이다. 원시종교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 일신교

오직 하나의 신만을 인정하고 신앙하는 종교 형태이다. 이전에 설명한 계시종교의 성질을 가진 종교들이 있다.

- 현 시대의 신의 영역 '과학'

이전의 초월적 존재 '신'의 영역으로만 해석되던 것들이 '과학'의 영역에서 해석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창조론 vs 진화론 이 있다.

인류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신흥종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이언톨로지'를 들 수 있겠다.

사이언톨로지교는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 론 허버드(Ron Hubbard)가 개종한 종교로,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부인하고 과학기술이 인간의 정신을 확장시키며 인류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종파이다.

이처럼 실제로 기성 종교에서 믿는 초월적 존재인 신을 믿지 않고 '과학기술'을 숭배하는 종교도 엄연히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인류와 종교가 처음 시작되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초월적 신의 존재와는 또 다른 믿음으로 종교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3. 일상 속의 믿음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과, 그것이 일종의 종교적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

1) 영화 속 영선의 경우

불행한 가정 속에서도 꾸준히 공부하고 돈을 모아 대학에 가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모아둔 돈을 모두 잃는 불행이 찾아와 본인의 믿음과 의지가 깨지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지하길 택한다.

2) 우리 반의 사례

H양: 가족이 오래오래 건강히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서 사소하게 소원을 빌 때마다 (생일케익 촛불, 등산로의 돌탑 등)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한다. 그렇게 하면 왠지 어떤 존재가 들

어줄 것 같은 믿음이 있다. 실제로도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것을 느낀다.

K양: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바보명칭이똥개말미잘'이라는 주문을 외우면 그 상황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실제로 늘 그 주문을 외웠다.

K양의 사례를 일종의 '징크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는 우리 모두에게 훨씬 밀접한 경험을 예로 들 수 있다.

징크스(jinx): 불길한 일,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운명적인 일을 일컫는 말.

예) 13일의 금요일, 숫자 4,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불길하다는 생각 등.

하지만 이는 일종의 미신이며 인과관계보다는 우연의 결과가 더 많다.

불길하지만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자연스레 각자의 방식대로 그 상황을 통과할 것이다. 그 때에 행하게 되는 것은 물리적,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믿음'에 의해 행하게 되는 행동일 것이다.

4. 마을 사람들에게 '신'이 있었나

사람에게 받지 못 한 사랑을 신에게 요청했던 사람들. 그 대상이 꼭 신이어야만 할까? 그들은 신에게 의지했던 것일까?

◇ 등장인물 분석을 통한 사례

영선: 종교에 빠지게 된 계기도 어떤 영적인 경험이 아닌,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행해보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장로에게 속아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 결국은 그 곳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시작이 종교가 아니었더라면, 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영선은 그런 일을 마다했을까?

성호(바보): 할머니의 죽음과 천국에 가셨다는 목사의 말, 이제 자기를 믿으면 된다는 목사의 말에 의해 목사를 믿게 되었다. 그는 그저 '할머니와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믿는 사람인 것이다. 결국 성목사에 말에 의해 장로와 민철을 사탄으로 취급해 죽이려 든다.

칠성아내(폐병):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급증한 상태이다.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호네 할머니가 벌써 돌아가셨슈. 천국 들어갈 사람 수는 한정돼있는데 벌써 한자리가 찼으니.. 제 자리는 없으면 어떡해유.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 다 올립시다."

만약 종교에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종교활동을 했을까?

칠성: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내가 가진 믿음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사람이다. 아내의 믿음을 따르고 동조하면 아내가 편안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약 대신 반석샘물을 먹겠다는 아내의 말, 헌금을 내자는 아내의 말 등을 전적으로 따른다.

아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저 아내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평화를 보며 믿는 사람이다.

만약 아내가 불교 등 다른 종교이거나, 무신론자였다면 남편의 종교는 무엇이였을까?

*이 부부에게 보여지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

플라시보효과 Placebo effect

반석샘물을 마시고 실제로 병이 호전됐던 것은 신의 도움인가? 이는 플라시보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라시보(Placebo)는 ‘마음에 들게 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약효가 전혀 없는 거짓 약을 진짜 약으로 가장,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효과를 말한다.

페티시즘(물신숭배) Fetishism

대상(물건 등)의 용도, 본질을 떠나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 만일 이런 물건을 획득하면 갖가지 질병과 해악을 피할 수 있는 주술적인 힘을 갖게 된다고 여겨진다.

부부에게 반석샘물은 이런 숭배의 대상으로 보여졌다.

◇ 기복신앙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은,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이다.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성취 등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 형태이다.

5. 성목사는 사이비?

목사는 과거 여고생과의 뒤엉킨 사연으로 인한 죄책감을 씻지 못 하는 사람이다. 본인의 종교를 이용해 사기를 치고 그 사건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장로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해 결국 사이비가 되어가는 과정이 보여진다.

◇ 인지부조화이론 (레온 페스팅거)

본인이 옳다고 여기던 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합리화하며 견지하는 상황을 뜻하는 이론이다.

여고생 사건을 겪고, 그에 대한 속죄의 길이라 생각하며 살던 목사는 최장로의 사기와 협박으로 인해 속죄는커녕 그의 신념과 가치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나 최장로의 협박에 분노한 목사는 이성을 잃고 원래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합리화를 시도한다. 그 결과 본인이 믿던 종교의 교리를 팔아 모자란 친구인 성호를 이용하기까지 하는데..

본인의 생각이 대립하는 ‘부조화’는 누구나 겪기 쉬운 현상이지만, 등장인물 중 유일하게 실제 목사로서 밟아야 할 과정들과 신학 등을 공부한 사람마저 결국 본인의 욕망(?)를 우선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이비인가?

어떤 측면에서는 아무리 신자여도 본인이 신이 아니라 신을 따르는 인간인 ‘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과 판단일 수 있다. 여기서의 의문점은 그 판단의 상황에서 ‘신’이 과연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목사도 결국 신을 믿으면 본인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

본인이 생각지 못 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결국 목사의 신앙도 기복신앙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6. '사이비'라는 단어는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을까

◇ 사전적 의미

사이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

사이비종교: 종교적 습성(믿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

제3자가 신도들의 믿음과 바람, 기도까지 사이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걸까?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인물을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을 받는가? (그 이유는?)

사이비는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3자, 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해 불리는 명칭이다. 그들의 마음과 믿음은 사이비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7. 민철의 기도

늙은 민철은 수감생활을 하다시피 최소한의 식량만 받아먹으며 살고 있다. 그런데 그가 지내는 방은 영선의 방이다. 그것은 딸을 죽게 만든 것에 대한 속죄인가?

◇ 동굴 안의 민철

그토록 강한 무신론자로 보였던 민철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사이비에 빠진 것일까?

본인의 신념에 있어 커다란 혼란을 겪으며 딸을 잃은 민철이, 그 상황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디는 행동으로 본인만의 방식을 찾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마지막 장면에 보여지는 민철에게는 신이 존재하는가?

마무리

여기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신이라는 존재의 유·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정신문화 양식은 신의 존재와 상관 없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거리??

#본인의 신념(정당성)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사이비라고 불린다면?

#만약 장로가 실제로 기도원을 만들어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면 신이 있었던 것일까?

#사이비는 신이 없는 곳에서만 생기는 것인가?

#만일 그들에게 신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종교가 아니었을까?

조하한 “다신주의적 사고”

16명의 11학년 아이들 중에는 신이 없다고 믿고,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90% 이상이다. 현대 사회에서 신의 존재는 '기호'에 따른 '선택'의 영역이 되었다. 이런 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통용된다.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이야기한다. 곧 가치 있는 삶이란 삶 자체가 인간에게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쓸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종교의 사후세계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 현세의 삶을 윤택하고, 도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14세기에서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며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를 시작했다. 그 무렵 종교적으로는 가톨릭의 권위주의적 전통을 종교개혁으로 무너뜨리고, 개인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 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합리적 사고를 중요하게 되는 이성주의는 '근대'를 관통하는 사람 중심의 사고가 되었다.

그 무렵 다른 부분에서 등장하는 사회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 삶의 윤택함이란 물질적인 것으로 대변된다. 돈이 많거나, 집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물질만능주의와 종교가 만났을 때 형상으로 보이는(물질적이지 않은) 신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허무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종교적, 정치적인 것 등 기존의 사상이나 진리에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허무주의는 목표가 결여되어가고,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현세의 올바른 삶에서 무의미(허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고등종교들을 대부분 유일한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 세속화, 합리화, 현대화라는 사고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인간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 갈등을 했고 결국엔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일관적인) 신의 상을 원했다. 하지만 인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감정, 사고, 행동들은 어느 하나로 규정되기 힘들며, 실제로 다양한 사고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말이다. 인간이 믿고 있는(만들어 낸) '유일신'은 이 하나의 인간 속에 있는 다양함이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폐쇄적 사고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신교'적 사고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인간의 다양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경탄하며 살아갔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을 공부하는 게 우리의 허무주의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헬라스와 히브리

다신교적 사고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선 먼저 고대 그리스로 가야한다. '헬라스'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인이 그리스를 칭하는 말이며, 그리스(로마)신화의 기초한 '헬라스적 사고'의 어원이 된다. 그것과 대비되는 단어로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며, 기독교의 하나님(절대자)의 기초한 '히브리(Hebrew)적 사고'가 있다. 이 헬라스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는 '다신'과 '유일신'이라는 개념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현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독교(가톨릭, 개신교, 그리스정교 등)와 이슬람과 같은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는 히브리적 사고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한' 하나의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의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헬라스적 사고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신들이 저마다 다른 영역을 관장하며 세상을 다스린다.

창세기와 카오스

이 두 가지 사고는 '시작'부터 다르다. 성경은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한다. 그렇게 일주일동안 세상의 모든 부분을 창조하기에 이른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엔 다른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만이 있을 뿐이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 1: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 1: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 1: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 1: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 1: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 1: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창] 1: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 1: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창] 1: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 1: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 1: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

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 1: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헬라스적 사고를 확립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세상의 시작을 다르게 보았다.

실로 맨 처음에는 카오스가 생기고, 그 다음으로 넓은 가슴을 가지고, 모든 것들의 영원히 굳건한 터전이 되는 가이아와, 넓은 길이 난 땅(가이아)의 구석에 있는 구름 낀 타르타로스와, 불멸하는 신들 중 가장 아름다우며, 사지를 늘어뜨리는 자이며, 모든 신과 모든 인간의 정신과 사려 깊은 분별심을 그들의 가슴에 누그러뜨리게 하는 에로스가 생겼다.

모든 것에 앞서 맨 처음 생겨난 것은 카오스이다. 카오스는 단어 그대로의 ‘혼돈’을 뜻하지 않는다. 카오스(Chaos)의 Cha-는 ‘하품, 벌어진 틈’을 의미한다. 따라서 카오스는 ‘하늘과 땅 사이의 틈’을 뜻하는 말이다. 갈라진 틈, 공허, 빈 것을 의미하는 이 카오스는 세상의 하늘과 땅이 만 들어지기 위한 공간이 존재했다는 걸 말해준다.. 만물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주는 ‘전혀 없음’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 또한 거기에는 히브리즘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과 같은 우주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의 역할이 없어지는 셈이다.

인간의 삶을 투영하는 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로마신화의 신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 ‘자연’이 표방되는 신들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에게 불가항력인 것이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이란 자신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숭배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깜짝 놀라는 천둥과 번개에 대한 숭배는 제우스라는 신으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태양의 신인 아폴로. 이런 자연현상과 더불어 인간의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질투의 신 .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 전쟁의 신이 있다. 또한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올림푸스 12신의 한 명으로서 숭배되었다는 점은 당시 고대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은 무엇일까. 자본의 신? 투자의 신?

또한 지역별로도 특정하게 숭배하는 신은 저마다 달랐다. 올림푸스에는 12신이 있지만 아프로디시아스라는 터키의 한 도시는 아프로디테를 주신으로 숭배했고, 또한 그리스의 델포이신전은 아폴로의 신탁을 들을 수 있는 신전이었는데, 이런 지역별로 각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유도 지역의 차이에 따른 특정한 성격에 의해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호메로스의 문학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헬라스인들은 그들의 신에 대하여 자유롭다.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면서도 절대적인 주종 관계로 인간과 신의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20세기의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인류의 발달을 ‘동물, 식물과 같은 자연물을 신성시하게 여겨 인간과 어떠한 연관성을 찾는 토테미즘(totemism)의 단계’에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낸 우상을 숭배했던 단계’로 보았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인간이 신에게 인간의 형태를 부여하여 ‘신인동형’화 해서 신을 설정하고 이를 숭배한다는 뜻이다.

신인동형론은 의인화라고도 불리는데, 구약성서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낸다.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말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신들또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기독교의 사고와는 조금 다르게 인간의 많은 부분을 닮고 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신들의 권능에 대한 사고관이다. 히브리적 사유 방식에 따르면, 신의 은총은 신이 사물의 자연적 질서를 제거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신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란 없는 것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도 전쟁과 같은 경우에도 신들의 도움으로 인해 다양한 국면을 헤쳐나가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그리스의 신들 또한 인간처럼 우주의 질서 속에 존속되는, 운명의 존재로 그려진다. 예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보면 트로이 전쟁이후 오디세우스의 운명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오디세우스를 도와주는 신들과 방해하는 신들의 계약으로 여정이 더 길어지고, 힘들어지긴 하지만 결국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이러한 그리스 신들의 ‘인간적’ 성향은 결국에 신의 모습은 인간과 매우 흡사하고, 인간의 성향과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닌, 인간의 확장.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더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신들은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다.

행복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 발표들로 밝혀왔던 신념의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행동의 결정들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사랑의 마음이 들 땐 아프로디테의 축복이 함께 했고, 항해에서 위기를 무사히 넘길 때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축복이 함께 했다고 믿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다신주의적 사고가 오늘 날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신의 존재를 ‘선택적’으로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믿음에 따른 행동의 강제성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더없이 추악한 자는 자신의 추함 같은 더러운 구석까지 파고 들어와 연민하는 목격자(신)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서 결국에 신을 죽여버린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보고 더 없이 추악한 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위와 같은 말은 남겼다. 우리가 앓고 있는 허무주의는 신은 커녕 스스로의 신념조차 결여된 세상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고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는지 우리는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가 허무주의를 무기력증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여기서 현대적으로 다신주의적 관점을 대입한다면 각각의 행동을 할 때 ‘의식 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연의 아픔을 혼자 감내하지 않고, 격한 기쁨에 자만하지 않으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지 않았어도, 덜 슬퍼하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신념에 따른 신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우리의 신념은 선과 악을 구분 짓기 전에 존중 받아 마땅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게 내가 말하려 했던 다신주의적 사고이다.

예술(문학)은 어떻게 사람들의 사고를 정립했을까

심리학자 하이데거는 예술의 작동(a work of art)은 초점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시대를 대변하는 패러다임과 관례들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호메로스시대의 올림푸스 신들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모습, 사상들을 재현해낸 것처럼, 아테네인들의 다양함의 갈등은 아테네의 신들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 서사들이 마치 당시 종교의 경전처럼 사람들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그리스, 아테네인들이 어렴풋이 느끼는 사상과 삶의 방식을 예술을 통해 한데 모아 확립하고,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신전과 같은 예술작품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명곡을 가려내는 중요한 척도로 시대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가를 꼽는 것처럼 예술작품이 그 세계의 진리를 구현한다는 말로 과장해볼 수 있겠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의 신전으로 탐방을 간다했을 때 ‘감상’을 하며 감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곳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문화를 형성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술이 그 시대를 대변할 때 비로소 예술의 ‘작동(work)’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스킬로스의 서사 오레스테이아는 모든 아테네인들에게 아테네인으로서 해야할 바를 밝혀주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듯 신이 인간의 삶을 투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이 인간을 만들어냈을까.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물음이 오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이유와도 연결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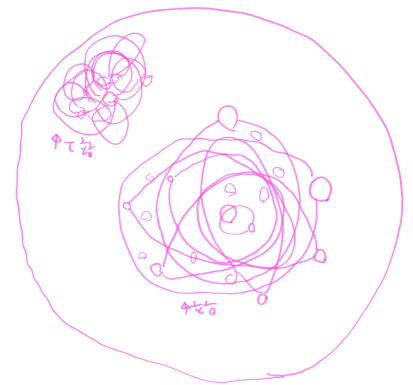
6. 각자 생각하는 신의 모습 그리기



김이림



김민지



김민지

7. 본캠프를 마치며 마무리 글쓰기 “종교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권효연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내가 종교를 믿게 될 일은 없다는 것.

하지만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은 생긴 것 같다. ‘정통한 종교란(이단이 아닌 종교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어떤 것만이 진리·가르침이라 규정할 수 있을까?’, ‘내게는 어떤 신념이 있을까’ 등.

사실 내게 종교란 내가 소설 속에 들어가 역할놀이를 해보는 듯한? 그래서 더 재미있는 세계관을 골라 살아보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때문에 누군가 내게 ‘어떤 종교를 믿나’ 했을 때 ‘난 다 믿는다’라고 대답하기도 했고, 나와 상관 없는, 신기한 세계의 이야기로 느껴졌기에 더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아직 종교란 내게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너무 안 가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사이비 등에 대해 내가 저쪽에 서 있다면 어떨까? 하는 것 정도는 느낄 듯.

김민정

한 종교에서 신이 있는가(신의 존재) 보다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종교에 대한 관점과 종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가 궁금했었다. 특히 실천 불교를 접하며 수행을 하고 나에 대한 통찰을 하는 것도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시대가 달라졌으니 구시대적 종교 또한 변화해야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이번 종교조 강의를 통해 다양한 종교를 접할 수 있었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난 믿음의 대상이 신만이 아닌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같거나 나를 통찰하고 신념과 가치를 의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고, 어떤 믿음/진리/신은 똑같다는 ‘친상친하 유아독존’을 잘 기억해야겠다.

김태우

종교라는 것은 진리는 추구하고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므로 종들 안에서 타종교에 대한 억압, 굳이 종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억압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로써 존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유로운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는 무조건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도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

문하게끔 하는 것이 종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써 사후세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들을 종교로 존중하지 않지만 내 주변에 있는 기독교도 천주교도 원불교도 불교도들을 종교인으로써 존중하며, 그들의 종교를 믿는 방식도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노영빈

종교는 내게 명절 혹은 간혹 가는 장소였다. 더불어 교회에서 붙잡혀 같이 예배를 듣는 시간이 내게는 세상 지루할 수 없었다. 당장에라도 뛰쳐나가 뭐든 하고 싶었고 어릴 적부터 계속 반복된 이 쳇바퀴에 나는 점차 종교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다.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내게 가기 싫은 곳을 가는 것이며 딱히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더 자주 보는 것이며, 그들의 계약에 굴복 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종교를 멀리 했고, 무교인 나는 늘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는 누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알게 모르게 먼저 시작된 누나의 영향에서 온 나의 행동일지도.. 여튼 그러한 존재였던 종교가 이번 인문학캠프를 통해 다른 모습을 보이며 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종교적인 얘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종교 관련 소식을 가끔 혹은 평범하게 보게 되었고, 재미있는 학문·행동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종교라는 문화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직도 종교를 믿고 강요하는 사람들, 절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다. 이는 나의 가족환경 문제와도 직결되는 얘기라 단순히 나에게만 종교인의 이해가 아닌 친척의 이해, 어릴 적의 경험에 대해 빠져 나오기가 필요한 것이다. 고로 나는 아직도 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맞다. 사실 이해하기 싫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순간 지는 느낌이며, 앞서 말했듯 굴복 당하는 기분이라 이해하기가 싫다.

전에는 종교는 나약한, 하찮은 사람들이 믿는 거라면서 나는 우월적이고 대단한 존재라 자칭하며 나를 높여왔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였던 나를 느끼며 '믿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하찮았고 나약했다. 그러한 나는 매달릴, 기댈 존재가 필요했고, 내 고향에서 스스로를 의지하던, 주변사람 혹은 얼굴도 본적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최근 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교로 남고 싶다. 내 성향이 남에게 의지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 극복하는 것을 좋아해서 의지하다가 나를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런 내가 꽤 맘에 든다. 그리고 맘이 편하다. 때론 어딘가에 소속되어있지 않고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위치가 좋다.

서명아

나에게 종교는 그다지 불편한 개념은 아니다. 일단은 딱히 내가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 같은 웬만한 종교들을 틀리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불편한 감정들을 느껴본 건 기독교가 전부인데, 가족들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나쁘게

만 바라본다면 미안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종교를 믿지는 않아도 어떠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종교에 대해 너무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은 하곤 한다.

인문학캠프를 하며 ‘신이 없어도 믿음은 있을 수 있고 종교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은 기독교의 예수님, 불교의 부처님 같은 ‘신’들이다. 혁명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존경하고 그렇기에 믿는다는 사람도, 어릴 때부터 당연히 믿었다는 사람도, 어떤 경험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사람도 모두 이해한다. 내가 이렇게 (나쁜 형태의 종교인도 많이 봤지만) 종교에 관용적이고, 종교를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이유는 할머니 때문인 것 같다. 무언가 절대적인, 자신이 믿는 대상에게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 보였다.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준다는 것.

이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여러 종교가 다 비슷한 것 같다. 그렇기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종교를 가져보고 싶다.

손채은

내가 생각하는 종교 (생각의 변화나 받아들임)

사실 종교에 대해 이렇다 할 생각은 없었다. 그렇기에 종교를 왜 굳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알까. 싶었다. 물론 이 인류가 살아온 배경을 알기 위해선 종교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엔 많이 변한 것 같다. 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사이비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단이란 뭘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나 불교는 오래됐고, 믿는 사람이 많아서 올바른 종교인지 내가 나만의 교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것은 단지 이단일 뿐인지 어떤 생각으로 종교를 바라봐야할까 싶었다.

예나 지금이나 난 종교를 굳이 믿고 싶지 않다. 아직까진 시간낭비인 것 같고, 굳이 해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종교가 있는 사람을 한심하게 보진 않는다. 정 반대다. 대단한 것 같다. 무언가 믿음에 대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대단하게 보인다.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열심히 살고, 난 나대로 재밌게 살아야지.

송륜근

인문학캠프를 하고 나니까 각 종교들의 신들 보다는 그 신들의 말씀들을 통한 배움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다. 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여러 종교인들을 만나고, 태뽀 강의까지 듣다보니까 하나의 학문으로 다가오는 거 같다. 그리고 사이비, 사회적인 피해를 주는 종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약간의 시야도 생긴 거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도에 대한 거부감은 있다. 그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볼 수 있을 거 같다.

안다연

이미 종교를 받아드리고 있어 할 말이 없다. 그냥 인문학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종교에 대해서 생각했고, 내 신념에 대해서 고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 같다. 나만 종교가 있어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종교인으로써 무언가를 해야 하나...라는 부담감이 있었다. 딱히 별 다른 게 없는데 대답을 잘해야하고, 계속 내 이름이 나와서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내 사진...) 그래도 많이 배우고 다시 한 번 종교와 내 신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내게 종교란?

당연한 것이다. 이 말 뒤로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태어났을 때 부터 당연한 거라 그런거 같다. 종교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멘.

이미 종교를 받아드리고 있는 사람이라 딱히 할 말이 없다. 내겐 종교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깊게 종교를 알지는 못하지만 건강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게 종교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인문학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내 신념과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잘 안하던 생각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다. 그냥 나만 종교가 있어서 종교인 가튼 대답을 해야 할 거 같아서 부담스러웠다. 딱히 별다른 게 없는데 잘 말 해야하는 느낌... 내이름이 계속 나와서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종교와 내 신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가원

나는 비교적 많은 종교를 접하며 살아온 것 같다. 친할머니를 따라서 절에 가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작은이모와 큰이모를 따라 교회 어린이 반에 가서 찬송가를 불러본 적도 있었다. 외할머니는 천주교라서 따라가 성당에서 기도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은 내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나는 무교로 자라났다. 내가 무교로 자라난 배경에는 친척들은 종교를 믿지만 막상 우리 집은 부모님 모두 무교인 탓도 있다. 그래서인지 알게 모르게 종교와 나는 상관 없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종교 모듬의 인문학 캠프를 들으면서 종교에서 다루는 '신'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부처님, 알라, 제우스처럼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신념이나 진리, 가르침 같은 것도 종교에서 믿는 한 가지 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알고 보니 엄마도 고등학교 때까지 모태신앙으로 꽤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르침이 맞지 않아 가족 중에 유일한 무교가 되었다고 한다. 그랬던 엄마가 최근 들어 다시 종교를 믿어볼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엄마를 보면서 신념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신념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그 이외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직 신념이라는 것이 없다.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나에게 종교라는 것이 있었다면 성격상 종교에 휘둘려 신념이 정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종교를 믿을 생각이 없다. 하지만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배타적이게 대하면 또 하나의 신념을 내가 정한 틀 안에 가두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익준

맨 처음 종교를 받아들일 때 나는 현실주의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왔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에게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헛짓거리 한다고 생각 했었고, 교회를 가도 교회에서 주는 밥만 얻어먹고 나오기도 하고, 지하철 앞에서 나눠주는 교회 전단지도 구겨서 버리곤 했었다.

그런데 인문학캠프 전에 접했었던 '절'은 나에게 유일하게 거부감 없이 다가왔다. 그들은 내게 '이것'을 믿으라고 권유나 말조차 하지 않았고 믿거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었다.

그리고 인문학 캠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느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이익과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지 이 문제에만 집착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는 실제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 태쌌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걸 느꼈고 이제는 밖으로 나와야 한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나에게 맞게 받아들이는 것 보다 그 어떤 '믿음'의 형태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생각은 종교에는 신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게 곧 '신'의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고 무교도 믿음이, 신념이 있으면 종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유신론자일지도 모른다.

최형규

내가 생각하는 종교

난 종교에 대해 단 일프로의 관심이나 호기심도 없었다. 신은 없다고 굳게 믿었고, 종교적 장소에 가면 숨이 턱 막힐 뿐더러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이 되게 부질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한 내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랬던 나에게 이번 인문학을 통한 종교공부는 참신했다고나할까. 고정관념이 좀 깨진 것 같다. 신과 종교는 별개의 문제였고, 믿음이 곧 종교일수도 있는. 좀 신선했다.

그래도 아직 정리되는 않은 부분이 많다. 종교공부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종교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할까... 글썄... 꼭 받아들여야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난 너무 종교에 대해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도 종교기관에 가면 숨이 턱 막히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지하고 믿는 게 부질없다고 느껴진다.

종교란... 알고 싶지 않는 다른세계 이야기 같다. 큰이모가 되게 오래 기독교를 믿어오신 분이 다. 가끔 교회에 가라고, 가야한다며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는 나에게겐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린다.

나에게 종교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별로 믿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 않고... 그냥 그렇다.

한승희

'종교'라는 주제로 캠프를 하기 전에는, 종교란 단지 신이라는 특정한 무언가를 섬기는 집단?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태생 강의와, 발제강의 및 영화를 보며 단지 신을 찬양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공부도 될 수 있구나! 사실, 나는 종교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여러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이비도 종교를 가장한 범죄집단인줄만 알았고, 하지만 믿음이 존재하고, 범죄가 아닌 이상 모두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건강한 믿음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공부하며 살아야겠다.

8. 인문학캠프를 마치며

장우정

종교와 나

여태 종교라는 것이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공감할 수 없는 문화였다. 모르는 것에 있어서 호기심이 많은 나는 어릴 적 부모님과 할머니에 의해 교회나 성당에 매주 나가는 친구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마치 안경을 써보고 싶고, 치아교정을 해보고 싶은 심리와 비슷했을 것이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났고, 커가면서 종교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각종 뉴스를 통해, 생활 속에 녹아 들어있는 문화를 통해 점점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정통 종교에 대한 공부가 아닌, 스치듯 보여지는 것들이 내 속에서 종교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채워가고 있었다. 그렇게 채워진 종교의 이미지는 다소 자극적인 부분들로 기억되기 쉬웠고, 어느새 거부감이 들기도 하면서 더더욱 나와는 관련이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선을 그어왔다.

인문학캠프

인류역사의 일부분을 매우 직접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종교가, 나와는 너무 머나먼 관계였기에 내 주제로 택했다.

2학기 내내 낯설기만 했던 종교를 붙잡고 공부하며 끊임없이 '나와 종교는 관련이 없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필요를 느껴 주제로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주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전 세계에 있는 크고 작은 종교들에 대해 표면적인 지식 공부를 하며, 종교활동이 인생의 일부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는 다른 문화, 나와는 다른 관점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종교를 갖고 있음을 알아갈 수 있었다.

종교와 인문학

결국 종교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모두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진리를 깨닫고, 그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이 삶이 되는 것이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곳을 향해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고, 정해진 길이 있을 리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접하던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등의 종교 집단만이 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나도 한 명의 개인으로서 나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면서 그게 무엇인지, 어떤 이유들 속에서 생겨난 것인지 잘 들여다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 과정이 지금의 나에게도 종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나는 아직 온전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안에 있는 종교'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의식'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삶을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흔히 보이는 기성종교의 교인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리들이 본인의 가치관에 잘 맞는다면, 그 특정 종교 안에서 점차 형성된 본인이 있기에 그에 따른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모태신앙도 아니고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나로서는 그런 기성종교들의 이미지에 의해 가려져있는 '종교'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자각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여태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분리시키고, 그 중 특별한 노력 없이도 나와 잘 맞는 것들만 '나'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켜왔던 것 같다. 그렇게 나를 그저 완전히 독립된 주체라고만 생각해왔던 것이 결국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의 근원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제 내가 이번 인문학캠프를 통해 공부하고 이해한 것들이 실제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큰 문턱을 넘어야 할 것이다.

공부의 의미

인문학캠프를 통해 나와는 무관하다고 여겨왔던 종교와 한 층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 나의 삶에도 대입할 수 있는 이해의 과정을 겪게 되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무의식 중에 정의하고 있던 '종교'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나와 무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관심이 가지 않던 것들에 대해 오히려 더 공부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스스로 쌓고 있던 벽들을 하나씩 무너뜨린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넓은 세계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서하린

캠프 진행과 공부 방법

정말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문학이 드디어 끝났다. 와…… 정말 힘든 와중에도 종교조는 다른 조에 비해서 주제 선정이나 활동 등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한 것 같아 만족스럽다. 공부를 시작할 때도 처음에야 좀 막혔지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길을 뚫기가 쉬웠다. 아무튼 대체적으로 무난무난하게 지나갔지만 시간이 비교적 부족했던 탓에 너무 시간에 쫓겨 박박하게 진행해야 했던 점은 살짝 아쉽다. 또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는 공부에 대한 거부감은

‘교육과정’이라는 타이틀이 내걸어져서인지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기가 싫었다. 다음날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싶다가도 얼른 인문학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 싫은 마음은 정말 어디에서 온 건지 모르겠으나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조원도 셋 다 하나같이 종교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서로 모르는 것을 공유하기도 하고 각자 맡은 바를 조사하며 지식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다. 처음에는 백지상태에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종교조 캠프 날짜가 되었을 때 야외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 알찬 내용의 괜찮은 퀄리티로 잘 된 것 같아서 그 점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세미나실도 괜찮은 위치에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으로 빌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덕산이라 여러 쌤들과 소수의 학생들까지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캠프 자체는 깔끔하게 끝나서 참 좋다.

캠프를 진행하며 느낀 점과 달라진 점

처음 인턴십으로 네팔에 갈 때는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독실한 신자이신 지부장님 덕에 거의 처음으로 종교를 접하게 되었지만 상당히 강압적으로 다가온 탓에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었고 결국 인문학 공부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그 때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막연한 거부감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끝까지 알 수 없었다. 비록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신학적 지식 등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되어 캠프에 대해 크게 불만족스럽지는 않다.

인문학을 접하면서 조금 아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중등과정의 주제프로젝트와 6학년의 인문학이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문학이 끝났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성취감이 들기는커녕 거의 달라진 점을 찾기가 힘들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인문학을 ‘500만원 짜리 깊은 주제프로젝트’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인지 인문학이랍시고 이를 통해 크게 달라진 점도 느낄 수 없을뿐더러 평소 새로운 프로젝트 형식의 공부를 시작할 때 취하던 태도가 정확히 그대로이다. 마찬가지로 인문학의 ‘종교’로 캠프를 진행했다고 해서 ‘종교공부를 통해 종교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같은 형식적인 변화 외에는 크게 느낀 점도 달라진 점도 없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느꼈던 ‘종교(특히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보다 더 인문학적으로 다가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강압적인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억지로 아직 납득되지 않은 것을 믿으라느니 다니라느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교고 뭐고 일단 끝나서 굉장히 후련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다. 나에게 인문학이라는 교육과정과 종교공부는 약간 길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느라 수고했다.

조하한

삶의 힘

종교를 몰랐다. 신, 믿음과 같은 단어들의 첫인상은 부정적 수사로 표현됐다. 주제들이 놓여졌

고, 반신반의하며 가장 미지의 영역인 종교공부를 택했다. 나와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종교를 선택한 우정과 인턴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길이 확고했던 하린이. 이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 부터 쉽지 않았다.

순수하게 주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모인터라 모이고 난 후에 어색함은 상당했다. 불편함이 전제된 어색함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같이 할 수 있겠느냐를 이야기 하며 2, 3주를 보냈다.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고, 남은 기간 허리띠를 졸라매야했다.

셋 모두 종교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신학적인 종교부터 문학에 자리잡은 종교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했다.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지식공부를 바탕으로 종교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종교인 이해하기를 목적으로 종교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취지였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인문학캠프 진행과정에서 이 과정이 가장 의미있고,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을 믿는 사람, 신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만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지만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종교인 이라고 하면 목사님, 스님, 수녀님, 신부님과 같은 사제들과 도를 아십니까라며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났다. 하지만 신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종교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같은 모둠 친구들과 믿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종교를 전반적으로 믿지 않는 11학년 친구들이 종교에 대한 편견을 타파할 수 있었으면 했다. 본캠프 일정은 그것을 기준으로 셋팅되었다. 종교공부가 필요한 이유, 우리의 깊은 편견인 사이비를 통해 나의 믿음에 대해 의심해보고, 신학적인 신에 대해서도, 신화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정서와 신의 관계도 알아보았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어색하게 긴 버스를 타기도 했고, 다리 끊어진 회의도 여럿 했다. 신이 있다면 우리가 모여 공부하고 있는 데에도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했다. 똑똑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게 된 것도 신의 가호가 있었던 걸까. 결과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마음 먹은 게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종교는 알아갈수록 많은 부분을 나에게 시사했다. 작게나마 위로도 받았고, 웅장한 느낌 앞에 위축되어도 봤다. 종교에 대한 편견이 조금 트이고 나니 더 알아가는 것에 부담감이 사라졌다. 함께한 종교조 친구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어디에서나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FTA/농사

-

Fantastic Twilight Apple 농사

승희 민정 예림

FTA 그것이 알고 싶다!!

김민정, 김예림

사전캠프

● 사전캠프 (21일 금요일)

〈농사/FTA 사전캠프〉

10:00-12:30	FTA 다큐시청
점심	점심 먹고 만나요
13:30-15:00	FTA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15:30-17:00	영준쌤 강의
17:00-17:40	강의에 덧붙여 한승희 PPT 설명

1. FTA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FTA에 대해 알아보기

- FTA는 질 수 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것
 - FTA를 하면서 자국을 지키려면 자국의 경제기반이 탄탄해야한다.
 - 세계 사례들
 - FTA가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 다큐로 보는 FTA

2.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할까?'

옛날에 비해 우리는 먹거리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워졌다. 옛날과 같이 더 이상 집집마다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매끼 쌀을 먹을 필요도 없고, 농산물은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는다. 사실 타 직업에 비해 농부는 더 이상 끌리는 직업이 아니다. 이런 구조 속에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할까?

1. 조영준 선생님 강의 및 토론

- 위에 이야기한 고민을 가지고 농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주제-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할까?
- 강의 후 강의를 토대로 같이 얘기 나눠보기

〈발제〉

FTA가 생겨난 배경

GATT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GATT는 참여국들이 합의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차별 원칙을 고수한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끝으로 GATT가 무역 분재 발생 시 중재가 거의 불가능해 문제점이 많아지자 WTO에 흡수 되게 된다. 또 미국의 시점에서 보면 기축통화달러가 금으로 보장 받던 시대에서 군사력으로 보장되는 시대로 바뀌면서 미국이 비재하는 세계의 무역 규칙이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WTO

세계무역기구.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흡수해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GATT와 같이 자유무역, 공정무역, 다자주의, 비차별주의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점은 GATT가 체약국간의 협정, 체약국간 상품교역만 다루었고, 무역 분재 발생시 다자간 무역체제이며,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을 규율하고 분쟁처리절차가 명확하여 분쟁처리가 수월하다는 점이 있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2.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와 FTA

WTO체제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국이나 특정 지역국가들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 체제라는 점이다.

2002년 당시 WTO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 영역을 넓혀가게 되었다.

***다자주의:**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 수준의 협의체를 두 가치 체제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한다는 태도

***지역주의:**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그 연대.협력을 촉진하려는 입장. 국제문제 해결은 세계적 관점에서 도모해야한다는 보편주의의 상대되는 말로 유럽공동체와 같이 국제기구의 실효성을 지탱하는 것은 지역 특유의 연대의식과 공통의 이익과 일체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세계무역 구조의 문제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구조적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반덤핑 정책**으로 살펴보면 선진국은 자 경제를 지키기 위해 가격이 싼 개도국의 제품을 막아내는 무기로 반덤핑을 과도하게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업보조금 또한 마찬가지다. 산업경쟁력 못지않게 농업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선진국은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있어 개도국 입장에선 불공정한 무역에 불만이 많다. 지적재산권 문제도 심각하다. 선진국에서 지적 재산을 강화해 수출을 극대화 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FTA를 요구하며 개도국의 성장을 체결의 이유로 내세운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보호무역을 하며 성장했으며 경제기반이 탄탄해지고 나서야 자유무역협정의 대표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걸 파악하기에 너무 급성장했다.

다자주의(전체의 시장통합)와 지역주의(대륙별 시장통합)의 충돌이 있다. 세계 전체 수입의 88%로 유럽, 아시아, 북미 3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 중남미, 중동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주로 자기 지역에서의 무역이 활성화 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수출, 수입의 73%는 유럽 내에서 이루어져있다. 아시아도 수출 51% 수입58%를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지역 내의 무역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지역경제통합, 지역주의 적 물결이 거세진다.

오늘날 세계무역이 지역주의에 함몰되어 WTO중심으로 모두가 바라는 다자주의적 무역구도가 아니다. 지역주의 적 무역구조는 지역 내에서는 자유무역이 가능하지만 지역 간에서는 보호무역 시행되는 이중적인 구도이다.

*반덤핑: 외국의 특정제품이 국내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관련 사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각 국은 관련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등을 통한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FTA는 질 수 밖에 없는 게임

FTA(자유무역협정)는 체결한 국가 간의 특혜무역체제로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한 체결이다. 국가 간에 인력 자본, 지식자본, 화폐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며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경제통합하자는 취지로 생겼다. 지역무역협정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공동시장->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현재 FTA는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과 교육 부문,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정치의 영역까지 협정의 대상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의존도**는 2016년 기준 80.5%다.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외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FTA를 체결하며 세계 경제발전 사에서 시장개방과 자유경쟁의 확대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의 기대효과를 꿈꾼다. 국내 기업들 간 경쟁 유발을 해 신제품 개발, 품질 향상, 기술축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당사국 이외의 국가들에게 특혜조치를 제한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선진국이 되려면 개방 외의 대안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FTA가 가져올 효과는 그 나라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반대 측 입장에선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등 취약 부문의 피해를 들어 FTA로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또 전체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리주의적 정책의 타당성을 문제 삼기도 한다. 한미 FTA로 예를 들어보겠다.

〈한미 FTA〉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 때 한국에서 미국에 요청해서 시작된 협정이다. 청약을 한 한국에서 미리 미국에게 4대 선결 조건을 내놓았다. 스크린 쿼터/쇠고기 수입/약제비 조정/미국 승용차 환

경 규제 완화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시작한 협정이었다. 한국이 요구한 단서조항으로는 개성공단 문제와 쌀 개방금지였다. 하지만 쌀 개방 같은 경우 이미 WTO차원에서 개방 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미FTA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 또한 미국은 우리의 쌀과 같이 중요한 미국산소고기를 무관세로 전면 수입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득을 보는 것은 없다.(2006년 이슈 되었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와 같은 검증되지 않는 미국산 고기를 전면 수입해야 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단순한 관세철폐를 넘어 공산품과 농산물 *직접 투자와 *자유화로부터 서비스업과 *정부조달시장의 개방과 지적 재산권 보호의 강화 등 매우 포괄적인 FTA이라 미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협정이었다.(한미FTA 만큼 포괄적인 무역 협정은 드물다.)

*직접투자: 어떤 기업이 외국의 기업에 대해 경영참가 또는 기술 제휴를 목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투자를 행하는 일

*자유화: 경제 정책상으로는 규제완화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또 국가가 경제나 사회를 국제적으로 개방한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제한되어 있는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해외에서의 사상이나 문화를 수용하게 된 것이 그러한 자유화의 예이다.

*정부조달시장: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경제규모에 있어서 미국의 약 6% 밖에 되지 않으며 세계 교역 규모는 25%정도에 해당된다. 정부 측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과제들, 성장률의 둔화, 양극화, 실업, *대외신인도, 불확실한 자본시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각 나라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한미FTA는 오히려 더 다른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FTA의 경우 체결을 하면 재협정이 아닌 협의가 가능하기에 다시 무르기가 매우 힘들다. 만약 한국의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와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미 FTA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소득불평등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미FTA의 효과는 대성공과 대재앙, 어느것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 FTA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계층 갈등이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고 갈등을 조정, 중재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FTA로 인한 비용이 그 편익을 크게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자본도 한국을 떠나면 FTA는 한국을 Free Trade Area가 아니라 **Fatally Tragic Area** (대단히 비극적인 지역)로 만들 수도 있다.

*대외신인도: 사람과 사람간의 심입처럼 국가 간에도 믿을 수 있는 정도를 가르키는 말

한미 FTA 이후 직업 변화 살펴보기

18세기에는 영국과 인도는 면직물 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시장을 합치게 되었다. 그러면서 역으로 인도에서 활발히 수출했던 면직물은 1세기가 지난 뒤 인도는 면화 원료를 영국에 수출하고 영국의 면직물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보다 17배나 되는 규모의 미국 시장과 합쳐지는 한미 FTA는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먼저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를 것이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값싼 상품들이 많이 들

어오겠지만 전체적으로 품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이는 비싼 가격의 품질 좋은 상품 위주의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물건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품질이 낮은 상품으로는 시장에서 버티기 힘든 세상이 오는 것이다.

미국 영화의 영향력은 한국 사회를 상당히 변화시킬 것이다. 스크린 쿼터를 축소했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또한 농업과 어업은 더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우리의 농업과 어업은 값싼 수입 외국 농산물과 수산물에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농민과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는 데 많은 사회 비용이 든다. 또한 지적 재산권의 강화가 한국 사회의 큰 물결로 나타날 것이다. 구조조정이 강화 될 것이다. 국가 간에 자본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수익을 지양하는 비즈니스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이 유난히 강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 조직재편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특히 농업 어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일의 업종에 따라 소득 불균형이 심화 될 것이다.

한미 FTA가 두 나라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지는 못할 것이다. 첨단 산업을 전부 미국에 개방하면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나중에라도 이익을 얻기 힘들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앞선 기술을 흡수하는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한국의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은 미국에게 흡수 될 것이다.

특히 제약회사는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카피약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해졌는데 우리나라의 제약 업체들이 주로 카피약을 주요 매출원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코스타리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제약회사의 영업직이 줄어들었다. 미국은 강력한 제약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이 넓어진 많은 매출이 늘어나서 더 많은 이익을 올렸다.

노동력의 국경 이동은 이제 하나의 커다란 쟁점이 될 것이다. 기업가들은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과 기술을 찾아서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회사들은 임금이 더 싼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공장을 이전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멕시코의 일자리는 21%가량 감소했다.

무역협정을 추진할 당시에는 수출은 오히려 3배 증가했다. 수출은 늘어났지만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다. 미국 기업은 원해 잉여 인력을 두지 않는 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멕시코 안에 미국 회사들은 늘었지만 고용은 늘지 않았다. 잉여 인력으로 여기는 일자리들은 다 정리가 된 것이다. 또한 멕시코 농촌에서는 일자리 130만 개가 NAFTA가 체결된 뒤 사라졌다. 미국 농산물이 멕시코로 들어오자 멕시코 농민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멕시코의 일부 수출업자들은 큰돈을 벌었다. 멕시코 수출업자들은 할 일도 많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났다.

결국 FTA를 하면서도 자국을 지키려면 자국의 경제기반이 탄탄해야한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은 인력 수준이 높은 나라에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인력의 경쟁력이 약한 국가의 인재들은 오히려 그동안 일자리마저 위협받는다. 우리의 경우 이미 3D업종에는 외국 인력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이어 고급 전문직 시장에서도 외국 인력의 거센 도전을 받을 것이다. 한편, 생산력이 취약한 나라가 생산력이 강한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그 분야의 시장을 생산력이 강한 나라에게 내어 주기 십상이다. 국내로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자국민을 채용하거나 소수 인력으로 운영하는 따위의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해당 분야의 시장을 쉽게 장악하여 우리나라에서 더욱 많은 이익을 낼 것이다. 이는 그저 시장을 고스란히 상납하는 것과 같다.

개방으로 인해 큰 이익을 본 나라들은 다수 존재한다.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연합에 가입한 아일랜드와 스페인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일부 남미 국가들의 경우 무역개방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를 퇴보시켰다는 증거들도 존재한다.

미국은 남미, 중미, 북미 대륙을 합쳐 무려 34개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자국 중심으로 미주 대륙을 경제적으로 통합하려는 야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체결하여 점차적으로 더 많은 체결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큰 타격을 받는 분야가 제약회사인데 미국 병원 시스템이 한국에 진출해 미국제 의료용 기구의 사용 증가할 것이다. 또 약값의 상승과 결국 한국 의사들의 직업 여건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국 FTA를 하면서도 자국을 지키려면 자국의 경제기반이 탄탄해야만 한다. 한국은 너무나 빠르게 성장했다. 무역을 통해 성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FTA 또한 성장의 길이라며 주장한다. 하지만 무역과 FTA는 다르다. 관세가 없어지면 미국 같은 강대국과의 공정한 거래는 불가능하다. 또한 FTA를 하기에 우리나라는 경제기반이 약하다. 강대국 모두 농업 강대국이며 강대국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국을 보호하는 보호정책을 폈었다. 앞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농업은 사라지고 강대국의 잉여농산물들을 받아먹게 될 것이다. FTA로 인해 피해는 점차적으로 들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체감하고 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인 우리들이다.

::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

FTA는 나쁜 걸까? 아님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단순히 장단점으로 FTA를 바라보기 보다 '왜' FTA를 부정하며 '왜' FTA를 긍정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FTA가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세계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나? 농업이 몰락하더라도 '선진국'을 향한 발돋움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인가? 만일 세계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이라는 가면을 쓴 빈껍질이라면 어떨까. 경제성장이 옳은가, 산업보호가 옳은가에 대한 답론은 무의미해진다.

세계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 '선진화'를 위한 게 아니라는 근거는 아이러니하게도 현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멋있고 세련된 영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명명거리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을까?

여러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자유무역을 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권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던 시절,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정책보다는 당시 나라의 산업력과 상황에 적절한 전략적 정책을 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책들은 자국의 약한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며 장려하는 보호주의와 수출보조금 지원과 같은, 근래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금지되거나 비판 받는 무역 및 산업 정책이다.

영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나

영국은 경제력이 그리 높지 않았던 13~14세기, 왕조의 추진으로 자국의 모직 제조업을 발전시킨다. 모직업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내고, 숙련공들을 은밀히 유입하며, 양 원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가 하면 심지어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등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1578년)에 이르러서는 영국이 자국 모직업의 국제 경쟁력에 확신을 가지고 양모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는데, 이는 원래 앞서나가던 저지대 지방의 제조업을 붕괴시키는 일을 불러왔다. 그러나 수입 정책만이 영국 모직업 성공에 기여한 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 사절 파견, 강력한 해군력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영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고, 종종 그들을 식민지화하거나 선점시장으로 관리했다.

이후 1721년에는 강력한 제조업 장려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영국의 산업 및 무역 정책 초점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 정책에는 1. 제조업자들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가 감소되거나 폐지되기도 하였고 2. 수출용 제조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받는 관세 환급분이 50%로 인상되었다. 3. 대부분 제조품 수출관세는 폐지됐다. 4. 수입 제조품의 관세는 완전히 인상되었다. 5. 비단, 화약 상품들에 대한 수출 보조금이 확대 지급되었다. 6. 파렴치한 제조업자들에 의해 해외 시장에서 영국 상품 명성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품, 특히 섬유제품의 품질을 감독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했다. 국내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입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제조업자를 보호하고, 완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보호하고, 정부 보조금과 공제를 이용해 제조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법률들은 세계 2차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 타이완 같은 국가들이 사용한 것과 비슷하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함께 영국의 기술력은 다른 국가를 앞섰지만 19세기 중반까지도 영국의 산업장려 정책은 계속됐다. 높은 관세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사용했는데, 식민지에서 수입된 상품의 품질이 자국 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뛰어들 때 해당 상품의 수입 금지 처분까지 내렸다. 예를 들어 1700년 영국은 우수한 인도 면제품의 수입을 금지했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하는 인도 면직업은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 그 이후로 두 세대가 지난 1873년까지 영국 면제품 수출의 40~45%는 인도에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폴레옹 전쟁이 막을 내린 1815년 즈음 부강해진 영국 제조업자들은 자유무역을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1846년 곡물법 및 제조품들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며 1850년 실질적인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국의 자유무역체제로의 전환은 선진화된 기술을 지녔기 때문이며, 이런 기술력 뒤에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높은 관세 장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영국의 전반적인 자유화는 정부의 감독 아래 관리되고 통제된 사건이며, 매우 점진적으로 자유무역을 도입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게다가 이후 영국의 자유무역체제는 오래가지 않았다. 1880년대 어려움에 처한 몇몇 제조업자들이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였고, 20세기 초에는 미국과 독일이 영국의 제조업 분야에 빠르게 잠식해왔다. 보호주의의 재도입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던 영국은 1903년 더이상 제조업 분야의 최강국이 아님을 인정하고 1932년 관세를 광범위하게 재도입함으로써 영국의 자유무역시대는 그 막을 내렸다.

도둑에서 파수꾼으로

“현 선진국들은 선진국이 되는 따라잡기 기간 동안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의 숙련된 노동 인력을 빼돌렸으며, 선진국들이 수출을 금지한 기계를 밀수입하였고, 산업스파이를 고용하는가 하면, 다른 국가들의 특허권 및 상표를 계획적으로 도용하였다. 그러나 일단 자신들이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면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숙련된 노동 인력 및 기술의 유출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특허권 및 상표를 강력히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한때 도둑질을 일삼던 이들이 하나씩 차례로 파수꾼이 된 것이다.

19세기에는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영국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18세기에 그 어느 국가보다 강력한 유치산업 보호를 실행하였던 영국이 19세기에는 자유무역의

장점을 역설하고 나서는 것이 우선적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

현 선진국들이 최첨단 기술 국가가 되었을 때 이들은 경쟁국가보다 더욱 앞서나가기 위해 여러 정책을 사용했다. 영국이 특히 이런 정책을 많이 썼는데, 그건 경제적 지위가 높았던 기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이다.

또한 19세기 영국과 현 선진국들은 당시의 개발도상국들이 제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지하려 했다. 이때 주로 사용된 방법이 ‘불평등 조약’을 통해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 조약들은 대체로 5%의 균등한 세율이 부과되는 관세 상한선의 설정이나 관세 자주권의 박탈을 수반하였다. 영국은 1810년 브라질을 시작으로 중국과의 난징조약, 시암(현재의 타이), 페르시아(현재의 이란), 오스만제국(현재의 터키) 등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했다. 심지어 난징조약 체결은 1863년부터 1908년까지 한 사람의 영국인이 55년에 걸쳐 중국의 세관장을 역임하는 결과를 낳았을 정도였다. 이런 ‘불평등 조약’은 근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 학자들의 대표적인 연구에 따르면 ‘최빈국에게 적절한 보호 관세율은 최고 20퍼센트 정도이며, 그보다 발전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거의 0퍼센트가 적절하다’는 결과를 주장한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유통비로 인한 자연 보호와 35%의 관세율로 강대국이 되었다는 역사를 되짚어보면 개발도상국에게 권고하는 자유무역이 정말 성장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농업적 관점의 무역정책

책 ‘사다리 건너차기’는 선진국의 성장 역사와 다른 행동이 선진국의 이익만을 위한 ‘사다리 건너차기’임을 증명한다. 저자는 어쩌면 정말 선진국에서 자유방임 정책이 자신들의 나라에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멈춘 지금의 개발도상국을 보았을 때 자유무역정책은 여전히 해가 되는 일이다.

기적에 가까운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발전은 국가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1990년대 금융위기를 지나며 주춤한 경제성장과 함께 더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의 발전이 수백년에 걸친 산업발전과 민주적 제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단 몇십년 만에 급성장을 이룬 개발도상국은 차근차근 선진국의 선진화 역사를 짚어보고 자국에 맞는 무역정책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자유무역을 무조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때에 따라, 자국의 산업 상황에 따라 보호무역을 펼치기도, 자유방임체제를 펴기도 할 때 나라의 산업경제는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걸만 번지르르한 자유무역정책이 아니라, 자국이 보호할 산업과 개방할 때를 잘 짚어 정책을 펼 때 ‘좋은 자유무역’과 ‘좋은 보호무역’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농업적 관점으로 보는 자유무역도 과연 그럴까? 영국이라는 선진국은 경쟁국의 산업화를 저지하기 위해 곡물법을 폐지했다. 그렇다면 농업이 커다란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사실상 곡물법 폐지가 아닌가? 농업이 몰락한 나라는 정말 선진국인가? 결국은 중요한 것은 먹거리다. 우리는 차가 없어도, 핸드폰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좋은 먹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먹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 먹거리를 만드는 것은 농업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농업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은 ‘가치’의 문제다. 나라의 성장과 산업 보호를 위한 적절한 무역정책을 연구하고 떠나갈 때 하는 가치판단이 중요하다. ‘사다리 건너차기’에서 말한 무역정책 고민에 농업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이를테면 먹거리와 농업이 무역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없어선 안될 것’이기 때문에 지켜 나갈지, 농업 역시 여러 산업 중 하나로 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무역정책을 펴 나갈지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만일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라면, 그들의 선진국은 '농업 강국'일 수 있다.

영국의 농업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영국의 도시 공장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그와 동시에 농촌에는 대량 방목을 위해 울타리를 치는 인클로저운동으로 경지를 잃은 농부들이 도시로 몰려갔다.

곡물법(1815년)은 영국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값싼 곡물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지주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법을 폐지한 것(1846년)은 영국 산업 자본가들의 승리와 자유 무역주의의 확립을 의미한다. 이 때 곡물법을 폐지하며 영국의 식량 가격이 내려가고, 제조업이 부흥하며 자유무역이 도래했다. 영국의 산업화를 통한 선진화는 농업과 함께 가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 영국의 곡물법 폐지는 '그릇된 중상주의에 맞서 얻어낸 고전주의적 자유경제론의 최대의 승리'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이 정책 변화에서 경제이론이 담당할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당시 역사학자들은 이런 정책 변화가 "농업상품 및 원자재 시장을 확장함으로써 유럽대륙의 산업화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자유무역제국주의'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은?

미국의 농업 양상은 영국과는 좀 다르다. 미국농업은 경제와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는데, 비옥하고 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풍부한 강우량을 가지고 있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자 미국 농업은 황금기를 맞이했지만 세계2차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과잉생산이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휘발유와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 살충제와 화학비료가 도입되며 생산량이 훨씬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농업은 점차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으로 발전했다. 농업관련산업이란 작게는 가족기업에서 크게는 대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가에서 사용하는 제품 및 원재료를 생산하는 다양한 농업 관련 기업 및 조직을 포함한다. 이 기업형 농장들은 부재주주가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력을 훨씬 적게 사용하는 대신 기계를 많이 사용한다. 1940년에는 600만 개의 농장이 있었고 평균 규모는 67 헥타르였으나, 1990년대 말에는 농장 수는 220만 개로 줄어든 대신 평균 규모는 190 헥타르로 커졌다.

미국은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았다. 하지만 기계와 살충제, 화학비료등의 기술 도입으로 미국 농업의 생산 형태는 점점 더 대규모화 되어간다. 또한 남은 잉여 농산물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 자유무역의 형태로 수출하며 우리나라의 작은 농업을 죽이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미국과 자유무역을 협상한 나라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 멕시코

1#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가 참여한 협정으로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규모의 경제통합 계획으로, 이 협정 발효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히 자유화한다.

2# 간단하게 '나프타'라고도 부르는 이 협약은 멕시코 제조업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주었다. 또 멕시코 북부지역의 채소, 열대과일, 화훼 농가들은 거대시장인 미국에서 몰려오는 주문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으며 옥수수 가루로 얇은 토피아처럼 만든 미국의 주식

토르티아/타코/케사디아 같은 멕시코 전통음식들은 이제 미국 남서부 식당가에서 흔히 보이는 메뉴가 됐다. 황금빛 투명한 병에 담긴 멕시코산 코로나맥주는 하이네켄과 함께 미국 맥주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다. 대신 1억6백만여명의 멕시코 국민들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전세계 최대 콜라 소비시장'을 선물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경제적으로 한 몸이 되어가고 있다.

3# 그러나 그 멕시코의 수출성장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자리하고 있다. 그 예로 멕시코시티 중심 광장에는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없어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이 차린 노점상이 즐비하게 서있다. 모두 불법영업자이며, 6만여명에 이르는 노점상은 대부분 멕시코 남부 농촌 출신이다. 멕시코 통계청 추정대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농업 부문 이탈자 수가 13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나프타 이후 농사를 포기하고 떠밀려나온 사람들이다.

4#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체결 당시 '좀더 많은, 좀더 좋은 일자리'를 약속했다. 실제로 나프타 발효 뒤 2000년까지 7년 동안 50여만곳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 내수위주의 중소기업, 도시 자영업, 농민 등 개방에 취약한 계층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렸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경제의 침체로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도 떨어졌다. 그 결과는 '질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의 양산'이다. 멕시코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지난해 신규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이다. 절대빈곤 계층으로 분류되는 인구도 전체의 31%에 이른다. 멕시코칼리지의 알베르토 아로요 교수(경제학)는 "나프타가 거대 초국적 기업들과 일부 수출 대기업에만 혜택을 줬을 뿐 국가경제 전체로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성장'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5# 규제를 없어진 농업에는 어떻게 할 틈도 없이 수입 농산물이 마구잡이로 들어왔다. 미국과 멕시코 간 농산물의 공정한 경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멕시코 농민 1인당 평균 경작면적은 미국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 농민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실제 생산원가를 밀도는 가격으로 멕시코 시장을 파고든다. 멕시코는 기초 곡물을 제외한 대부분 농산품의 관세를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했고 그 결과 농산물 수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훨씬 큰 결과를 가져왔다. 멕시코 국민들이 한해에 소비하는 농산물과 가공 식품류 가운데 수입품 의존율은 94년 20%에서 2004년 48%로 치솟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멕시코의 '주식'**에 대한 것이다. 멕시코의 생산 비중과 소비량이 가장 높은 옥수수는 나프타 체결 후 10년동안 698.4%나 올랐다. 우리가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밥처럼 먹는 옥수수로 만든 '토르티아'의 가격이 7배나 오른 것이다. 그러나 옥수수 생산농가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나프타 이후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이 증가했으며, 국영기업이 맡아 하던 옥수수 유통/가공산업을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민간기업이 밀고 들어와서다. 나프타 이후 유통/가공단계의 국영체제의 해체는 먹거리의 위협까지 함께 가져왔다.

5# 초기 북미자유협정은 멕시코에게 성장의 길인 것처럼 보였다.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량을 늘리는 등의 이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만 활용할 뿐 대부분 원부자재와 부품을 중국 등 멕시코 이외 지역에서 들여오며 멕시코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다. 농업을 내주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다. 성장 지표를 보았을 때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멕시코 중앙은행이 집계한 연도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면, 94년 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 1.43%에 불과하다. 멕시코가 2차 세계대전 후 70년대 초반까지 강력한 보호무역(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펼쳤던 시기나 76년부터 82년까지 석유수출호황기의 연평균 3%대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 협정을 보류한 스위스

스위스와 한국은 닮은 점이 많다. 스위스는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다. 미국 의존도 역시 비슷하다. 한국의 수출 대상 1위가 중국이고 다음이 미국이라면, 스위스 또한 독일에 이어 미국이 2위다. 농업이 취약하다는 점 역시 공통점이다.

한국이 한-미 자유협정 추진을 발표하던 때, 스위스는 미국과의 협정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정 반대의 길을 간 셈이다. 스위스도 한국처럼 기업인들과 정부가 협정 추진에 적극적이었다. 스위스의 상공인단체 '이코노미스위스'는 "미국이 유럽지역과는 협정이 없어 유럽에 교두보를 필요로 한다"며 "다른 나라보다 먼저 미국과 협정을 맺을수록 얻는 게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위스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스위스는 미국과의 협정으로 미국 수출량이 40% 늘면서 국내 총생산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농업에 대한 의견차는 좁히지 못했다. 에터 경제부 양자통상국장은 "협의 중 크게 15가지 이슈 중 나머지는 합의점을 찾았지만 농업의 개방 방식과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표시 등 두가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고 말했다. 농산물 문제에서 스위스는 협정에서 언급한 것만 개방하자고 했지만, 미국은 모두 개방하고 일부만 예외로 하는 식을 주장했다. 유전자조작식품의 경우 스위스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반대했다. 모두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있는 협상안이다.

이후 스위스에서는 유전자조작 동/식물 국내 사육/재배 허용을 놓고 국민투표가 이뤄졌는데, 투표자의 56%가 협정을 유예하는 쪽에 손을 들었다. 협정을 유예하는데 국민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에도 국민투표제가 있지만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이나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친 안건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식이다. 스위스는 일반시민도 국정 현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스위스는 미국과 협정을 타결하거나 체결한 어느 나라 못지 않게 한국과 교역구조가 유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시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과 기회의 폭이 달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규모는 달라도 무역 구조나 의존도가 높은 것이 비슷한 스위스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아야 한다. 스위스는 농업을 지켰고, 국민의 힘으로 지켰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토마스 플레처 스위스 상공인단체 홍보이사는 농업이 희생된다고 해도 비중이 작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경기 전체로는 미국과 협정을 맺으면 몇 퍼센트 성장하겠지만 농업에서 몇십 퍼센트 큰 타격을 올 수 있다. 그게 문제였다. 양과 질의 차이다. 스위스 정부는 숫자보다 전체적인 질을 택했다. 특히 농업은 먹거리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과 자연경관 등 나라의 이미지를 가꾸고 있다."

◆ FTA로 위협받는 공공서비스/ 캐나다

캐나다는 풍요로운 자연과 탄탄한 공공서비스, 사회보장제도로 매년 유엔이 발표하는 '살기 좋은 나라' 10위권에 들어간다. 그런데 1989년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과 10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의 공공서비스가 흔들렸다. 나프타에 규정된 '기업-국가 소송제도'를 무기로 미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캐나다의 공공정책과 규제에 손을 들이밀었다.

1# 미국의 다국적 소포배달업체인 '유피에스'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면 해당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나프타 제11장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서다. 캐나다의 공기기업인 '캐나다포스트'의 자회사인 소포배달업체가 이 회사의 우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게 특혜라는 주장이었다. 유피에스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포스트의 독점적 지위를

뒷받침하고 있어 소포배달사업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1억6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 또 1998년 미국의 화학제품기업인 에틸은 캐나다 정부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제소했다. 에틸이 생산하는 석유첨가제를 캐나다 정부가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나프타의 투자자 보호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다. 에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억5천만달러였다. 문제의 석유첨가제에 포함된 성분은 1920년대부터 이미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캐나다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판매가 금지된 상품이다.

캐나다 환경법단체 켄 트레이노 연구원은 “나프타 11장이 캐나다 환경정책을 간단하게 무력화시켰다. 캐나다 법정이었다면 적어도 이윤의 공공과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재기구에서 다뤄지기 전에 이미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정책을 무력화시키거나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나프타에 위반되지 않는지 스스로 자기 검열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외국의 한 기업이 정부의 환경정책을 통제하고 무력화시키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역시 멕시코나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나프타 11장에 근거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안 42건 중 미국 정부가 패소한 건은 2006년까지 한 건도 없었다. 나프타 11장은 민간 기업이 정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 공공성까지 위협한다. 나프타에도 환경과 노동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투자자의 이익과 대립될 때는 무력한 조항들이 될 뿐이다.

◆ 유럽연합의 무역정책

유럽연합(EU)의 자유로운 공동시장은 이미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다. 프랑스에 살아도 옆 나라에서 더 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올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이 펴는 무역정책은 어떨까? 북미자유무역협정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등 상대국의 시장을 여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유럽연합은 시장 개방은 물론 협정 당사국 간의 사회적 협력을 중요시 한다고 말한다.

유럽연합이 멕시코/칠레와 맺은 협정에서는 농업과 제조업의 관세 인하 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까지 아우르고 있다. 여기까지는 미국이 두 나라와 맺은 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2003년 발효된 유럽연합과 칠레간 협정문을 보면, 112쪽 가운데 29쪽을 ‘정치적 대화’와 ‘협력’에 할애하고 있다. 정치적 대화 항목은 인권 존중과 개인의 자유, 법치주의 등 민주적 가치를 보호/강화하기 위해 당사국간 정례 정상회담과 주기적 장관급 면담을 개최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한 유럽연합은 ‘협력기금’등으로 불리는 재정 지원을 통해 협정 체결 상대방을 돕기도 한다. 2000년 발효된 유럽연합과 멕시코간의 협정에서 한화로 680억원을 멕시코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칠레에도 경제협력, 기술혁신, 환경보호, 정부개혁 등을 돕기 위해 한화로 417억을 지원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또 한가지 있다. 유럽연합 농민단체협 사무국장 미셀베르거는 ‘유럽의 식품 안전기준이 위장된 교역 장벽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높은 안전기준은 역대 구성원들이 선택한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당장은 넓은 땅 등 좋은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고 있지 않다”

협정을 맺는 당사국에 있어서 어떤 체결이 더 도움이 될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주체별로 나뉘었을 때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식 *유럽연합이 맺고 있는 유럽식 *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하는 남-남 식으로 구분지어진다. 남-남식은 상품 교역에 치중하지만, 미국과 유럽식은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는다. 미국과 유럽식에도 차이가 있다. 서비스시장의 경우 유럽식은 협정문에 열거한 품목만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식은 모두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되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준이다. 미국식은 유럽식과 달리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반면 미국식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시민사회, 인권, 협력기금같은 조항이나 개념이 없다.

자유무역협정은 결코 무조건적으로 기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정책과 사회 정책의 발전이 맞물려야 플러스요소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자유무역협정이 옳냐고 판단하기엔 10년이 넘는 미국-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성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방향 역시 잘 잡아야 할 때다.

부록

<한국이 맺은 FTA>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상품무역협정은 2008년 11월 캄보디아 등 9개국에 대한 발효가 완료되었다. 2011년 현재 한국은 16개국과 5건의 FTA 발효, 29개국과 3건 FTA 체결,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 진행, 16개국과 9건의 FTA 협상 중비 및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한눈으로 보는 한미FTA 체결 사항>

①농산물

쇠고기 검역, 문서화 약속제의

관세철폐 쇠고기 15년, 돼지고기 10년

오렌지 비수확 계절관세(30%)적용-당초관세 50%, 수확기 9~2월

분유, 낙농품 저율관세할당 적용

②자동차

한국 자동차 특소세 5%로 단일화

3000CC미만 관세 양국 즉시 철폐

자동차 부품관세 즉시 철폐

자동차 보유세 3단계로 간소화

③섬유

대미 수출액 61% 즉시관세 철폐

미 안포인트 완화 5개 품목 적용

세이프 가드, 우회수출방지책 도입

④의약품

카피약 시판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약가 결정시 이의신청 독립적 절차 보장

⑤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20년 연장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⑥노동/환경

노동 공중의견제출제(PC)도입
기존 환경보고 수준 약화 불허

⑦무역구제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합의로 조사 종결

⑧서비스

교육,의료 등 개방 제외
법률,회계 각각 3단계,2단계 개방
스크린 쿼터 일수 재확대 불가
전문직 비자쿼터는 의회와 협의
국산콘텐츠 의무쿼터 완화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불허
방송채널사업자 외국인 의제규정 철폐

⑨금융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우체국 보험, 농협공제 감독 강화'

⑩통신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제한 49% 유지-간접투자제한은 발효후 2년내 철폐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정부 정책 권한 인정

⑪투자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
-조세,부동산정책 원칙적 소송 제외

⑫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비핵화 진전시 개성공단 인정 논의

● 본 캠프(29/30) <농업적 관점으로 FTA를 바라보자>

	(취침)오후일정부터 합니다.
아침	만두국
13:30-16:30	-포스팅에 각자의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생각 적어보기 -농업을 꼭 지켜야 할까?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 -농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관점+세계 사례 ‘농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농업이 몰락하는데도 선진국일까? -무역마블<게임> -논밭 걷기(목연) 16:30-5:30
저녁	<밥상 위 지구촌> 장박서 조끼리 요리 한다
20:00-21:00	-‘자연농’ 다큐보기
21:00-22:00	-마무리+소감 나누기

● 29일 ‘농업을 지켜야 할까?’

‘농업을 지켜야 할까?’

<오후>

포스팅에 각자의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생각 적어보기

농업을 꼭 지켜야 할까?

농업일 지켜지지 않는 현재 상황 설명 농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

‘돈으로 농업을 본다면 농업을 지켜야 할까?’/‘우리나라는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광우병 소 수입사건

-쌀 개방

농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관점+세계 사례 ‘농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환경/문화적/경제적/먹는다는 그 자체/자급자족/

농업이 몰락하는데도 선진국일까?

무역마블<게임>(밖에서)

체결을 하기 전 각국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가지의 체결 문을 쓴다.

논두렁 걷기

비정상회담

‘유기농업의 중요성’

<밥상 위 지구촌>

오후 일정 종료 후 다 같이 나가서 저녁 장보기(우리 음식에 얼마만큼의 국가가 있는지 알아보기/ ‘대풍마트’)

미션! 역으로 가장 많은 국적이 들어 있는 조가 우승

〈저녁〉

저녁 먹고 '자연농' 다큐보기

마무리

문제를 알고 전, 후는 다를 것이다. 앞으로 직장을 가지거나 자취를 하며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 먹거리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글 써서 얘기해보기

돈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먹을 걸 선택하는 것 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소감 나누고 마무리

취침

- 30일 '어떻게 농사 지으면서 살까?'

아침	프렌치 토스트, 우유
9:30-11:00	농활
11:00-12:00	범수오빠부모님 강의
12:00-12:30	한승희 PPT 설명
12:40-13:30	학교 농사 교육과정 개편해보기+마무리
점심	라면
오후	인문학캠프 다 같이 마무리
저녁	고기파티

- 〈오전〉

농활

강의〈우리 동네 농부와의 만남〉

유기농업 하시는 김범수 아버지께 유기 농업에 대한 강의 듣고 같이 농활하기

우리학교 농사 교육과정 개편 해보기

〈발제〉

농업을 지킨다는 것은_

농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국내 농업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커다란 농업 산업, 단일 재배되는 것도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기업의 농업 체제는 자본체제에 맞게 농산물을 경제력으로 만 본다. '자유'무역 협정 정책에 맞추어 농부들을 전 세계의 다른 농부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다. 수출 지향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경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환율 변동이나 불황 때문에 판로가 갑자기 막혀버릴 수도 있다.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공동체보다는 시장을 위한 농산물을 재배하라는 상품화 압력은 단일 작물 재배를 낳고, 이것은 더 큰 불안정성을 낳는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보통 남자들)은 현금 경제 속으로 들어가 노동력을 팔라는 압력을 받으며, 결국 농토를 떠나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기업은 농업을 독점하는 모양새를 띤다.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농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대기업의 이익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본토에서

나는 종의 다양성, 농촌의 문화, 전통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농업은 질적으로 원거리 시장을 위한 농산물 재배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가도 떨어뜨린다. 영양가보다 단일재배 경작 조건에 얼마나 잘 견디는가, 운송과 처리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점이 영양가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산업화된 농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시각적인 완벽성'

농업 관련 산업과 슈퍼마켓들이 수십 년 동안 내놓은 광고들과 수많은 몰상식한 규제들이 맞물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과일이나 채소가 크기, 모양, 색깔 면에서 좁은 기준에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오직 선홍색의 흠 없는 사과만을 사려고 한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특이한 형태나 색깔을 지닌 변종들은 널리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상 농산물로 취급되지도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을 지키는 길은 소농을 지키고 자급자족을 하는 것이다. 농업의 산업화를 막아야 한다. 농업을 산업의 도구로 볼 때 우리의 농업은 결국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힘의 논리로 좌지우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의 유통체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있어서 이익이라는 단어는 아예 발붙일 곳이 없다. 이익은 중간상인과 유통업자, 가공 처리업자가 독식하는 체제다.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 여기에 지불되는 1달러당 21센트만이 농민에게 가고, 나머지 79센트는 중개인이나 상인에게 간다는 충격적인 보고에 놀랄 제3세계 농민은 없다. 이미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마이너스의 삶이기 때문이다.

농업을 지키는 일을 개인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자급자족이라는 개념을 국가로 넓혀 국가에서부터 환경과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무리 경제성장이 중요할 지라도 무역에 있어서 농업적 관점의 FTA를 해야 한다. 소장인 캔자스 농부는 자신에 찬 어조로 확실하게 말했다. "이보쇼,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은 자유 무역 협정들이오. 농업은 FTA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농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 정부가 알아야 하는 것은 농업을 지키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농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

- 요즈음과 같이 무엇이든지 수입이 가능한 시대에 왜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우리' 땅에서 생산하여야 하는가?

"우리 쌀농사를 스스로 지키고 지어야 할 일차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경제적 자립과 주권을 지키는 데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문화적 자주와 정치적 자치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다. -천규석 <쌀과 민주주의>-

농업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본다면 우리에게 불리한 산업이 맞다.

그러나 농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농업을 지켜야 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알아보자.

환경론으로 농업을 바라본다면 **농업은 사람을 자연과 연결시키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람은 농산물을 재배하여 먹은 다음 그것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고 찌꺼기를 배설한다. 자연은 그 찌꺼기를 밑거름으로 하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사람은 다시 그

위에 농작물을 경작한다. 우리 국토와 우리 환경에 대한 참된 인식은 농업을 통하지 않고는 얻기 힘들다.

우리에게 오기까지 2,400km

수입산 농업을 먹게 되면 **푸드 마일**이 늘어나며 화석연료 탓에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어마무시 하다.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 정책은 사람들이 이웃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것을 소비하도록 장려한다. 미합중국에서 보통 소비하는 음식 한 접시가 출발점부터 식탁까지 운반되는 거리를 다 합치면 약 2,400킬로미터가 된다. 현재 농산물 한 품목은 평균적으로 1979년보다 50퍼센트 더 이동한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불필요한 수출과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과도한 운송은 소수의 대규모 농업 관련 산업과 투기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줄 뿐이다.**

또 우리나라 주식인 쌀농사를 예로 들면 쌀 농업이 **홍수를 조절하고 공기를 정화시켜주며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며 수질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는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자.

농업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은 우리 농업과 농촌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쌀 농업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참여하고 농촌지역 공동체 유지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농사이다. 또한 쌀에서 얻는 소득이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곡창지대의 경우 거의 쌀에서 소득을 얻고 있어 농가소득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작물이다.

우리 농업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살아오면서 한반도의 자연을 이용하는 최선의 지혜를 집적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민족 정체성**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말이 우리 생각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면 우리 농업은 우리 삶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세계화가 진척되어 인류 생활방식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우리 농업을 지킬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먹는다는 것, 식량주권으로 농업을 바라본다면

우리 민족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벼농사를 지으며 **‘쌀’**을 먹고 살아가는 민족이다. 식생활의 다양화로 옛날보다 1인당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쌀밥이 없는 우리의 식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가 먹는 쌀의 품종이 **단립종**(우리가 먹는 찰진 쌀)으로 생산과 소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단립종의 쌀을 생산하여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만약 우리의 쌀농사 생산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면 우리 국민들이 1년간 소비하는 쌀 약 400만t을 수입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호주,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 있는 단립 종 쌀은 통틀어야 200만t 정도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2.8%정도이며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2.0%도 안된다. 쌀 자급률마저도 2013년에는 86%대로 떨어지고 있다.

농업은 먹는 것을 생산하는 유일한 산업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카길, ADM, 프랑스의 드레퓌스, 아르헨티나의 병기 등 5대 곡물메이저에 세계 교역량의 약85%가 장악된 현실이다. 이미 2007~2008년 세계30개 나라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으며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빈민, 빈곤여성, 빈곤아동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국내 자급 25%,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25%로 50% 가량의 자급율을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해외농업개발은 WTO 규정상 수입농산물로 해당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전쟁, 천재지변 등 위기상황에서 또 **절대적인 식량부족상황**에서 안전하게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종 다양성의 파괴

먼 시장을 겨냥하여 생산하는 농민이 점점 늘어나면서 농업의 생물 다양성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중국에는 1949년에 10,000가지 품종의 밀이 있었으나, 1970년대에는 불과 1,000가지 품종만 남았다.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세기에 다양한 농산물 품종 가운데 약 75퍼센트가 전 세계에서 사라졌다. **단일작물을 심은 경작지는 병충해에 취약하다.** 1970년 미국에 심은 옥수수 가운데 80퍼센트는 유전적으로 공통된 뿌리를 가진 것이었다. 그 결과 옥수수 마름병이 닥치자 순식간에 천만 에이커 이상의 옥수수 밭이 피해를 보았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 전국에 단일 종의 감자를 심었다. 그런데 그 종이 취약했던 병균이 돌아 그 해 병균에 이기지 못한 감자는 수확하지 못했고 그해 농부들과 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토종종자

-종자자급이 중요한 시대

종 다양성에서 설명을 덧붙여 토종종자의 중요성의 중요성은 단일작물 재배로 인한 병충해 외에도 식량자급에 있어 토종종자를 키워야 한다.

토종 종자는 그야말로 5천년의 농사를 통해 살아남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또한, 농가 내에서 선발하거나 육성한 품종과 외국에서 도입되어 국내에서 적응한 품종 및 새롭게 개발된 품종이라도 종자의 자급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농업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토종은 환경적응성이 높다. 오래 재배하면서 좋은 것만 선발해서 종자로 하니까 절로 그렇게 된다. 내재해성도 높다.

적은 비료에 높은 적응성을 갖고 맛이 좋다. 신토불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다. 신품종은 내병성이 강하긴 하지만 특정레이스는 특정한 병에 또 약한 특징이 있다. 토종은 병에 골고루 걸리지만 다 절단나지는 않는다. 토종은 종자 주권을 지키는 첫길이다. 또한 씨앗을 상품화하는 바람에 자연에 있던 씨앗과 종자를 개인 또는 국가에서 자기 소유로 특허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등록된 종은 계속해서 돈을 주고 사야하는 꼴이 되었다. 특히 소농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다. 대를 이어 지켜오던 토종종자를 포기하고 돈을 더 벌기위해 택했던 외국 종자를 사게 되며 매년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왔다. 앞으로 큰 종자회사들이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더욱 올리게 되게 되고 종자시장을 좌지우지 한다면 크 피해는 소농 그리고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GMO

GMO의 피해 또한 생각해야 한다.

특화된 작물, 기존 작물 보다 몇 배의 생산력 보장, 세계 기아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GMO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생태계의 교란, 식품의 안정성 위협, 세계 식량 독점 등 그 피해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가까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녹아들어 있다.

유전공학이 생물 다양성, 야생 생물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생태계의 새로운 위협 요소라는 증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전공학의 비판자들은 일단 **유전자 변형 유기물이 환경 속으로 방출되면 자신의 특징을 다른 유기물로 옮기는 것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농산물 관련 생물공학 산업은 식품, 첨가물, 약품, 화학제품, 종자를 취급하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유전자 변형 유기물의 세계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촉진되는데, 이 때문에 설사 새로운 생산물이나 테크놀로지가 건강이나 환경에 주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나라라도 그것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기업들은 유전공학적 처리를 한 새로운 변종에 대하여 특허를 낼 수 있고, 이 특허권을 통해 시장의 막대한 부분을 통제한다. 새로운 농작물을 다시 연구하여 개발하고 특허를 내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계속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GM농산물은 인류와 환경·생태계에 대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다국적 농 관련 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없다.

농촌이 사라진다._

농촌 공동체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구성원들 역시 손해를 본다. 경작지가 합쳐지고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던 지역 경제의 소비자 기반은 축소된다. 소도시의 중심가는 점점 활기를 잃고, 남아 있는 주민을 상대로 월마트와 같은 대형 체인점이 문을 연다. 이런 대형 소매점은 넓은 지역을 상대하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은 기본적인 쇼핑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훨씬 멀리까지 움직여야 하며 이것은 해당 지역의 소규모 상인들에게 심각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영국에서는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약 6천개나 되는 점포가 모조리 사라져버렸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점은 영국 채소 시장의 12퍼센트만 차지할 뿐이며, 슈퍼마켓의 비중은 1969년에 8퍼센트였다가 1995년에는 72퍼센트로 늘어났다.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게 된 이유는 농촌 지역 소외 '교육' _ '자녀 교육을 위해서'가 2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득이 적어서' 25.8%, '농사가 어려워질 것 같아' 15.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또 대졸 이상 고학력일수록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이유로 농촌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난다. 그래서 도시에 사람이 점점 몰리며 도시학교는 24.4%가 늘었다. 반면 농촌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도 매우 적어 2009년 8월 현재 전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1,765개에 이르며, 이는 전체 농촌학교(4,972개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학급 구성이나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과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특히 학생 수 10명 이하 학급에서는 교사 한명이 2~3개 학년을 맡아 복식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도 작은 학교를 불신하거나 기피하고 있다.

농촌학교의 과중한 행정업무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규모 학교 운영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와 교사들의 근무 기피, 학교 외 사교육 시설 등의 부족은 도·농간 학력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면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합쳐서('적정 규모 학교')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또 농촌학교의 성공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전원학교도 육성한다. 면

소재 학생수 61~200명 규모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력을 배치, 지역사회와 연계해 영어 등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농촌 주민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오히려 농촌학교 교육의 질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린 강원 정선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거점학교 육성으로 인근의 작은 학교가 사라지면 가뜩이나 먼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더 멀어져 불편이 가중되고, 부모들의 학교 운영 참여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특히 농촌에 다문화가정이 급증, 이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2009년 4월 현재 1만860명에 이르며, 2006년부터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생활하는 탓에 언어 발달이 늦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촌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전담 교원과 학력 수준 분석자료 등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의 교육 정책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에 편중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자녀들이 새로운 소외계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_ 전국 어느 지역이건 농협 조합원 10명 중 3명은 70세 이상의 고령농민인 셈이다.

이제는 농촌도 경제적인 게 없으면 제대로 살기 힘들고, 소득 격차가 심해서 밥은 안 굶어도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려주었다. 또한 자살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대부분 의료나 문화 시설도 없고 도움 요청할 곳도 없을 뿐 아니라 노인들만 남아 젊은이들의 왕래가 없는 고립 지역이었다.

비용문제로는_

농업은 9%의 인구가 국내총생산의 4%의 만족하며 국토의 19%를 돌보는 그 나름대로 효율적인 산업이다. 우리 농업이 담당하고 있는 노동력 흡수, 지역사회 유지, 식량 공급 등의 공익적 기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정치적 무기_

세계 곡물수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몇 안되는 초국경 다국적 대기업들이 담합하여 식량수출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했던 지난날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둘째,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식량부족 신흥국가들이 경제발전에서 따른 육류 수요의 급증으로 곡물수요가 지금보다 몇배 늘어나 국제곡물시장이 만성적으로 불안정화 돼가고 있다. 셋째, 한편에선 곡물의 공업용으로의 전용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기아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 국제 정치사회가 대혼란에 빠질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문제는 선거 때만 존재하는 대표용 홍보사항일 뿐이다. 보통 때는 3농

이 어떻게 되든, 무슨 정책이 행해지든, 별로 관심이 없는 잊혀져가는 산업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 이후 계속되는 농업경시 정책환경이 이대로(Business As Usual) 계속될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식량(곡물)자급율은 현 23%에서 15% 이하로 툭 떨어져 세계에서 최하위 영구적인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경고해도, 최고통치권자를 포함한 정치사회 지도자들은 눈 하나 꿈쩍을 안한다. 이미 나라의 식량주권이 미국등 극소수 수출국들에 넘어가고 있는데도 한가하게 "창조농업, 미래성장 산업" 운운하며 경제영토가 확대됐다고들 모두 황홀한 말잔치에 젖어있다.

FTA는 국가의 산업 규모와 세계정세를 분석하고 그에 맞게 무역정책을 펴고 그에 맞게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또한 '농업'과 '환경'은 인간에 있어 폐놓을 수 없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토대다. 농업은 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래대상과 똑같이 봐서는 안된다. 하지만 자유무역은 피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어졌다. 지금이라도 FTA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자국을 살리는 방향으로 농업과 환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야할 때이다.

“노새는 결국 트랙터에 패했다. 그리하여 기계와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농민은 '땅의 청지기'이자 '신의 신비를 분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의 농식품 유통시스템의 가장 밑단에 자리잡은 노동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먹거리는 '돈'과 '석유'와 '기계'와 '규모'가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이 견뎌내야 하는 전례 없는 외로움이었다.

햄버거 하나, 뜨내기 드난살이처럼 홀로 식당 구석에서 **우걱우걱 씹어 넣는 밥 한 그릇**,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온갖 착색료와 향을 뒤집어쓴, 유전자를 조작했는지 무엇으로 코팅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자연의 모습은 하나도 담지 않은**, 공산품에 다름없는 오늘날 우리의 먹거리들.”

본 캠프 마무리 평가

-자연농 다큐를 보고

명아- 나다울 수 있는 건 자연 속에서 뿐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시골을 싫어하고 관광식으로 다니는 여행이 좋았는데 요즘은 좋고 공감이 돼.

형규- 사람들이 평화로워보였어. 나이 먹으면 자연농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승희- 농사지을 때도 자연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 다큐에서 멧돼지가 농작물 다 파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보고 온화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어.

명아- 애 교육에 돈이 필요하거나 하면 농촌에 사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효연- 작아 언니가 이런데 관심이 많아서 자연농 다큐도 보러 다니고 주말에 농사도 지으러 다니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언니가 왜 땅을 밟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맘이 아프다고 그랬던게 생각나.

채은- 학교에서 6년 동안 살아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 도시가 그렇게 나쁜 걸까? 그냥 도시가 맞는 사람이 있고 농촌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거 아닐까?

우정- 엄청 사소한, 우렁이 알이 핑크라는 걸 아는 거라도, 도시 애들은 이런 걸 모른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완전히 자연에 들어갈 용기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대자연 속에 있어도 좋은듯...

채은- 나는 요즘 자연이 아름다운데, 다른 애들은 모른다는 게 슬플 것 같아
우정- 자연과 도시, 어떻게 더 자연스러운 걸지 잘 모르겠어
안다- 땅을 갈지 않고 농사 짓는다는 게 새로웠어.

본캠프 마무리 소감

륜근- 머리로는 잘 와닿는데 잘 모르겠어.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FTA에 대한 공부도 했는데 주변에 와 닿을 게 적었던 것 같아.

익준- 수입으로 우리나라 환경/문화가 없어지는 걸 늦게 알게 된 것 같아. 제대로 알게 됐어. 요리 만들어 먹을 때 국산을 찾으려고 하니깐 잘 안찾아졌어. 수입산이 많은 게 안타까워. 음식이 맛있어서 좋았어.

하린- 나는 할머니 생각이 났어. 외할머니가 밀양에서 20년 가까이 농사를 짓다 우울증에 걸렸는데, 지금은 부산 병원에 계시거든. 다큐에서 원숭이랑 오소리가 농작물을 다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농약을 치면서 농사지으셨거든. 근데 자연자연하게 살려고 했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져.

나중에는 쌀도 없어지고 소도 팔고... 현실적으로 다가왔어. 옛날에는 별레도 좋아하고 진흙탕에서 놀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왜 다시 싫어하게 됐을까?

채은- 우리 할머니는 60년 가까이 도시에 살다가 가평으로 이사가셨거든. 근데 시골에 가서 더 바쁘셔. 농사짓고, 김치 담구고, 사람마다 시골이나 도시가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졌어. 나도 우리 집이 옛날에 계곡쪽에서 식당했을 때 계곡에서 엄청 잘 놀았었는데.

익준- 나도 할머니 밭일 도와드리고 먹은 수박이 엄청 맛있었던게 기억나. 그만큼 먹는게 자연에서 온다는 사실이 와닿았던 것 같아.

효연-저녁 장보면서 음식이 아니라 상품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인상적이었고, 토종씨앗 축제에 갔을 때도 토종 무꽃이 기억나. 깔끔하게 진열되서 나오는 채소만 봤는데 내가 먹는 음식물들이 간혀 있는걸 보면서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고,,

채은- 이승기가 딸기 따면서 백화점에서 나는 줄 알았다 그랬을 때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왜 멍청한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

명아- 텃밭같은거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가원- 무조건 자연이 좋다 이렇게 아니라 농업에서도 부딪힐만한 사안을 얘기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

농사

-사전캠프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할까?

옛날에 비해 우리는 먹거리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워졌다. 옛날과 같이 더 이상 집집마다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매끼 쌀을 먹을 필요도 없고, 농산물은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는다. 사실 타 직업에 비해 농부는 더 이상 끌리는 직업이 아니다. 이런 구조 속에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할까?

1. 조영준선생님 강의 및 토론

위에 이야기한 고민을 가지고 농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본다.

주제-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할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까닭

2. 본 캠프를 대비한 공부

유기농과 관행농

대한민국에서 농사짓기란? (농업정책과 현황을 보고)

-본 캠프

1. 농활

-김성열 선생님 밭

관행농업 농부의 밭에서 일하면서 몸으로 느낀다. 관행농으로 살아가는 농부의 삶 체험하기.

김성열선생님 밭에서 울무 나르기, 울무 탈곡 등 도와드림

농부의 작업현장, 삶의 터전 둘러보기

왜 관행농으로 살아가는지 이야기 듣기

2. 우리동네 농부와의 만남

07김범수 아버지 김승진님(유기농업)

덕산지역에서 오랜 기간 친환경적인 유기농업을 하고 계심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부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듣기

유기농이 필요한 이유에서 관행농과 비교해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유기농부의 이야기를 들었다.

3. 발제 강연- 우리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까?

지금 시대에,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까?

전세계 인구 74억명 시대에, 인류는 효율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 그로 인해 화학비료나 농약,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성행하게 되었다.

더 이상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은 없어져만 간다.

간디학교를 다니며, 생태적으로 사는 법, 유기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들을 공부했다.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농사를 생업으로 삼는 분들을 보며, 관행농이여만 하는 이유들을 배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까? 당장 생계가 어려워도, 유기농을 고집해야 하는가? 아니면 관행농도 괜찮을 것인가?

소감

-

효연 민정 예림 태우 영빈 명아 하린 채은
륜근 다연 가원 우정 익준 하한 형규 승희

효연

-

내게 인문학이란 무엇이었을까. 처음엔 마냥 ‘내 인생을 바꿀 획기적인 공부’, 혹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과 질문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인문학이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이 강했다. 때문에 우리 조와 나는 이 주제, 저 주제 해맸다. 공부를 시작하기보단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토론하는 시간이 더 많은 나날이었다.

어쩌면 ‘언어’라는 주제가 정말 공부하고픈 주제는 아니었기에 더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인문학 중반에서야 내가 노동하는 것과 여성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미 언어를 주제로 많이 파고든 시점이었기에 주제를 틀 수 없었다. 한 명씩 주제를 맡아 공부, 발표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합쳐 준비했던 옛날의 방식대로 갔더라면 하고픈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인문학캠프는 여지껏 학교에서 해오던 평화, 생명 프로젝트, 논문과는 다르게 함께 한가지의 주제로 공부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다른 친구들의 주제까지 폭 넓게 관심을 가졌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인문학을 왜 함께 공부해야 하는지는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친구들이 의견을 듣는 것이 즐겁고 재밌었다. 인문학 캠프 시작 전에 ‘오래 지내서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할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었는데, 내 예상이 틀렸다. 혼자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던 회의도 함께 하는 친구들의 의견 덕분에 빨리 끝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물론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었다.)

본 캠프 일주일 전에 새롭게 공부하고, 나누게 된 <특정집단 비하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말의 힘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와 닿게 볼 수 있었고, 관심 있던 ‘여성학’과도 관련이 있는 주제였다. 그 공부를 하면서 말을 통해 사회의 권력이 어디에 쏠려있는지 보았다. 현재의 혐오는 ‘잘못한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혐오는 공평하지 않다. 언제나 약자에게로 향한다. 또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는데, 그중 말로 할 수 있는 혐오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한창 <인문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수자 쌤이 했던 대답을 이제야 받아들 이게 되었다. 인문학은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꾸 물어가는 공부다. 내가 어디에 서있고, 왜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사람이 오직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선 인문학 공부가 필요하다. 그 때까지 계속 공부할 것이다.

민정

문제의 인문학을 위해 쏟았던 내 시간들과 골머리를 앓으며 근심 가득했던 나날들을 돌아보니 결코 헛되지만 앓은 것 같다.

당시 인문학이라는 말에 맴돌아 인문학의 상을 만들고 거창한 질문이 별처럼 쏟아져 내려야 할 것만 같았다. 또 6년간의 소홀한 책읽기와 사회이슈에 대한 무관심, 무지에서 오는 막연함도 컸다. 왜 이토록 궁금증 없이 아쉬울 것도 없이 살았을까 싶다. 내가 생각하는 인문학이 무엇인지 그려진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개별마다 생각하는 인문학은 다 다르겠지만 이번 인문학 캠프에서 내가 느꼈던 인문학은 사회이슈와 나의 연결지점을 찾고 내 주변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농사라는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주제를 잡아 FTA를 공부하게 되고, 자급의 중요성,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공부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멀고 먼 여정까지... 결국 당위적이라고 생각했던 처음의 물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6년간 학교생활에서 배움의 기쁨을 이제 서야 알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인문학을 통해 느낀 점은 많지만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 인문학을 외부자 없이 반 내에서 하게 되며 원래 취지에 부응하기 어려움이 많았다. 처음 바라던 대로 다들 적극적이었다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이번에도 지금 시기에 인문학이라는 과정이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고 긴장감 없는 분위기에 덩달아 쳐지기도 했다. 또 개인적으로 모두 다 같은 의견으로 이끌어 가야하고 꼭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져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 동시에 반복되는 회의 속에 회의감만 넘쳐났다. 그렇다고 열정이 없는 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같이 해야 하는 필요성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인문학을 개개인에 더 초점을 맞춰 하고 싶었던 주제로 했어도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분명 조 활동과 같이 이끌어가며 좋았던 점도 있다. 우리조가 준비한 발제를 함께 공유하며 공부도 되고 나의 공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고민으로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 반 맞춤형 강의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다. 인문학의 결과보다 과정에서 배운 점이 많다. 조 활동을 하면서 구성원 중 나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개인이 중요한 6학년 교육과정에서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나의 태도는 아주 걸림돌이 되었다. 하지만 조원에 민폐만은 되지 말자는 마인드로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조원들에게 보고 배우는 것도 많았다. 이번 인문학은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한마음모여 당일에 결정해 민중총궐기에 가기위해 있던 일정들을 미뤄두고 서울행을 택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인문학을 삶으로 다가가는 과정이랄까? 우리의 인문학 주제들은 살아가며 모르고 지나가거나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 드린다. 언제 종교, 언어가 주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살면서 내 앞가름 하랴 이것보다 우선적인 일들이 넘쳐날 것이고 이리저리 치여 살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문학은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학문으로써 놓치지 않고 평생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학교에 꼭 필요한 근본적인 수업이 아닐까싶다.

예림

인문학이라는 교육과정 자체는 특별할 게 없었다. 나는 대단한 것을 바라기만 했고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얻은 게 없었다. 그러나 그 방황과 하기 싫음, 거의 인문학캠프 내내 되물었던 공부해야 하는, 고민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것들은 내게 필요한 것을 고민하게 했다. 질문을 던지는게 너무 어려웠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타당한 논리와 사실만으로 충분하는데, 자꾸 고민을 하라고 하니 자꾸 진흙탕 속에 빠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게 되고, 그냥 대충 하자고 다짐하게 되고, 얻을 게 없을 것이라고 체념하게 됐다. 교육과정에 나름대로 잘 적응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인문학의 자유로움과 질문을 던지라는 모호한 말들이 아직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이 어떻게 6년이나 이려고 지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왜 그렇게 물음을 만드는 게 힘들었을까? 농사는 중요하다, 고 생각했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어떤 돌파구를 찾긴 해야 하나까 FTA라는 주제를 잡았다. FTA라는 다소 뜬금없는 길로 들고 돌아 농업이, 먹거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찾게 된 것 같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들고 돌아왔다는 건 본캠프를 준비하며 알았다. 시간은 없고 자료는 부족하던 집 가기 전날 저녁, 문득 여전히 당위적이고 주제를 잡지 못했던 9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책 읽고 정리한 자료들이 떠올랐다. 다시 본 자료는 그 때보다 더 뚜렷하게 보였다. 껍질에 퐁퐁 싸매져서 무슨 얘기인지도 알쏭달쏭하던 때 정리했던 자료들이 꼭 과일 껍질을 깬 것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 때 알았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다양하게 고민하고 설명할 수 있구나. 정말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많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구나. 또 같이 했던 김민정이랑 한승희한테 미안한 게 많다. 같이 공부한다는 건 어쨌든 얘기를 나누고 부족한 걸 채워가며 진행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인문학 질문을 고민하며 그랬듯 관계에서, 9월과 10월을 보내며 내 관점에서 밖에 보지 못했다. 또 신문 만든다고 설치거나 내 뜻대로 고민이 되지 않을 때 맥이 풀린 내 모습도 답답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도 하기 싫은 걸 끝까지 붙잡고, 마주치기 싫은 것들을 계속 마주치며 잘 끝낸 것 같아 다행이다.

어릴 때 엄마한테 공부를 왜 해야 하나고 물어본 적이 있다. 지금과 달리 자존감이 너무 높고 질문이 많았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수학 원리를 하나 배워도 이게 왜 그런 지가 궁금했다. 엄마는 내 질문에 -될 하든 필요한 지식이 있는 거야. 네가 만화가를 해도 칸을 그리려면 수학을 알아야 하고, 연예인을 해도 토크쇼에 나가려면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해.-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인문학을 하면서도 정환쌤한테 같은 질문을 했다. 이렇게 피곤한 걸 자꾸 왜 해야 하나고. 정환쌤은 이렇게 말했다.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운명들, 이를테면 국가, 성별, 집안, 재산과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공부 뿐이야. 그렇지 못하면 그냥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사는 거지.- 비록 인문학에서는 부족한 공부를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학교에서 이정도 밖에 할 수 없나, 하는 회의를 느꼈을 때나 신문에서 여전히 암울한 농업에 대한 기사를 봤을 때,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등장했을 때 그랬다. 공부를 해야 내가 무기력한 집단의 일원임을 자각할 수 있고, 직접 운명을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정해진 대로 사는 건 폼이 안 난다. '멋지게' 살고 싶다. 멋지게 사는 방법이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싶다.

인문학이 끝났다. 졸업생 강연에서 백동훈오빠가 했던 말처럼 지나고 나면 폼장어만 기억나는 게 인문학이었다. 이렇게 지난하고 힘들었는데, 겨우 한가지만 남는다. 그렇지만 김민정과 지센 새벽만 남아도 충분히 의미 있다. 사실 아무 의미 없어도 괜찮다. 이 시간 그대로 내 인생 한 편에 쌓아 두어야지.

태우

-

인문학이라는 수업의 의미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임했거나 반 친구들과 민주화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달라졌을까? 후회되는 부분은 없다. 할애한 시간에 비해서 민주화운동조가 만들어낸 자료가 부실한 건 사실이지만...

인문학이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아직도 뭐가 인문학인 건지 깨닫지 못했고,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지도 않았다. 그냥 아직은 궁금하지 않다. 차라리 전체가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조금 더 의미 있었을 것 같다.(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익준

-

솔직히 처음 시작 할 때 는 솔직히 될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고 감도 안 잡혀서 말도 안되는 주제를 생각하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해서 좀 고통스러웠는데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솔직히 좀 우리반 애들에게 미안했다.

여름 방학 중 회의에도 참여 못하고 날로 먹는거 같아서 미안했던 것 같고 역사라는 주제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선택했었고 처음에는 좀 불안했다. 우리 조가 나혼자 남자라서 혹시 우리 조에게 패가 되진 않을 까 하고 걱정 했던 것 같다. 근데 진행하면서 서로 잘 열심히 해서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운도 좋아서 정말 잘 된 것 같아서 다행히 였다.

모두 다 수고했고 다신 인문학캠프 따위 하지말자^^

형규

-

인문학을 시작할 땐 ‘아...’ 이었는데 끝난 후 지금은 ‘오!!’ 이다.

시작하고 준비할 땐 하기 싫었는데 막상 본 캠프를 시작한 후부터는 각 주제마다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사전캠프 때는 느낄 수 없는 흥미와 재미를 본 캠프에서 느낄 수 있었다. 사전캠프 때 느낄 수 없었기에 당연히 본 캠프도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재밌고 흥미로워서 본 캠프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 또는 관심 있었으나 잘 몰랐던 분야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물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인문학은 정말 살아가면서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 같다.

많은 후배들이 인문학을 준비하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 같다. 인문학을 준비하면서 좋거나 행복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나중에 ‘오 !!’ 를 느끼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재밌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인문학... 대충해도 괜찮아요...

영빈

올해 초부터 시작한 인문학 캠프, 인문학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기도 하고 인문학 공부를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럿이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지 캠프의 방향과 구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다. 모일 때마다 큰 진전은 없었지만 인턴십과 병행하며 많은 고민을 하였고, 끝끝내 방향이 돼서야 인문학 캠프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일까. 다들 반복되는 회의에 지친 기색은 역력했고, 지나고 나서 놓친 부분들을 발견하며 그 때 조금 더 고민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 마냥 아쉽기만 하다.

나는 저마다 준비해온 브리핑 중 가장 흥미로웠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물음과도 닿아 있었던 언어(문화)를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궁금했고 그러한 영향이(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과 사회 그리고 세상에 다시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또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공부하고자 했다.

이후 조원들과 소주제를 정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중등시절에 했던 주제 프로젝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 이전과는 다르게 더 주체적으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제 선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공부·우리와 맞닿아 있는 공부를 찾아다녔으며 서로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얘기를 나누며 공부를 이어나갔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았다.

거의 매일 모여 가며 회의랍시고 수다 떨던 모습이 공부의 깊이나 캠프 준비를 더욱 완벽하지 못하게 했을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궁금하거나 같이 얘기해봤으면 하는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고 사소한 문제들도 다 같이 고민해온 과정이 더욱 값지지 않았나 싶다.

우리조(언어)는 캠프에 ‘말에는 무엇이 담겨있는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를 가져갔다. ‘말에는 무엇이 담겨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전 캠프에서 현재 생활하는 공간과 다른 공간인 숲에 가서, 숲과 관련된 잊혀 가는 말을 직접 찾아보고 그 말들을 사용해보는 프로그램을 했다. 숲에 다녀와서는 앞에 했던 프로그램과 나와 연결 지어보는 활동을 하여, 말이 주변 환경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캠프에서는 특정 단어를 제한한 채 토론을 진행하여, 말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사고하는 것도 같이 제어되는 등 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알아보았다. 또, 같은 뜻의 말이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고 번역되는지 직접 번역해보고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에는 앞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같이 경험한 내용인 말에 담겨있는 것들을 실생활과 관련된 예시로 다시 한 번 쉽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다면 말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으니 저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글을 적어서 나누는 것으로 언어조가 준비한 인문학 캠프를 마쳤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일상의 대부분을 인문학 캠프에 투자했었기에 끝나니 시원섭섭했다. 반 친구들에게 좀 더 알려주지 못해서 아쉬웠고, 준비에 공을 더 들였다면 우리조가 의도한대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도 했다. 그럼에도 인문학 캠프는 끝이 났고,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하며 학교에서 보낸 시간들을 정리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인문학 캠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는 끝난 지금도 모르겠지만 뭔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하며 우리의 인문학 캠프를 정리해보려 한다.

명아

인문학 캠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 ‘인문학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다. 또, 우리는 왜 함께 캠프라는 방식으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인지, 캠프 후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 것인지를 고민했다. 인문학 캠프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내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지점은 모든 공부가 나의 경험과 연결지어진다는 것이었다. 내가 관심이 있어 택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 주제에 관련해 겪은 ‘내 이야기’가 있었다. 민주화 운동을 공부하면서는 말도 안 되는 중복 소리에 움츠러들었던 나를, 농업을 공부하면서는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에 공감하지 못했던 나를, 종교를 공부하면서는 어릴 적부터 접해온 기독교를, 언어를 공부하면서는 평소 내가 내뱉는 말들을. 결국엔 항상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가 인문학 캠프를 함께 했던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캠프를 준비하며 인문학은 말 그대로 답이 없는 ‘인’문학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공부를 하다간 나의 ‘경험’에만 갇혀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공부했던 인문학은 혼자 공부를 하고 나만의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조의 주제였던 통일/분단은 잘 모르고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객관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경험을 나누며 그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할지는 각자가 판단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 과정이 힘들었지만 좋았다.

평소의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두려웠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로 내 이야기를 반박하면 어떡하지, 내 이야기가 틀린 것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인문학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 봐야했던 과정이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틀리고 맞고를 떠나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 부딪히는 것이 재밌다는 생각을 했다.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 인문학이었지만, 그 만큼 얻은 것도 많았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나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고민해볼 수 있었을까. 인문학 캠프가 내 삶의 터닝포인트였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가진 의문들과 호기심으로 앞으로의 내 삶이 (아주 조금) 더 풍요로워 질 것 같기는 하다.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살아야지.

하린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인문학이 끝났다... 인문학 때 뭘 했건 말건 일단 인문학이라는 교육과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수 있게 되어 정말이지 기쁘다. 사실 이 지긋지긋함은 어디에서 온 건지 아무도 모른다.. 그저 다들 이 필수 학점따기 과정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끝도 없는 회의의 연속,,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교육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인문학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끝없는 소용돌이 폭풍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휩쓸려 버렸다는 점이다. 어떻게 된 걸까? 그냥 처음 선배들과의 만남 했을 때 아니 그 전에 일단 뭐라도 먼저 하고 보는 거였는데.. 선배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그래도 지긋지긋한 과정 속에서도 외부인 참가자를 두지 않기로 한 덕에 쓸데없는 곳에 신경을 들이붓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과 현장체험 위주로 캠프를 진행해서 (크게 뭘 막 느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곳저곳 다니며 현장의 생동감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만족스러운 캠프였다. 또 6년 동안 오만 일을 다 겪어봐서인지 숙소 예약 등의 자잘한 문제들을 6년 내공으로 잘 헤쳐나간 것도 만족스럽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당장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아직 제대로 적정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서 캠프 전체의 진행과정이 상당히 더뎠다는 점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다. 내 주제의 퀄리티를 높일 시간을 할애하여 그들의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나? 그들은 왜 그들의 몫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점은 마지막까지 아쉬웠다.

비록 캠프 준비과정과 공부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일주일 동안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은 피곤해도 재미있게 할 만했다. 모두가 다함께 수고한 덕이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륜근

이번 인문학은 늘 해오던 인문학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인문학 했던 것을 돌이켜 보니까 원래는 주제와 많은 연관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이동하면서 인문학을 하는 거였던 거 같은데 막상 하고 보니까 그렇게 처음 취지와 맞게 한 조는 통일, 민주화, 농사 조 정도인 거 같다. 종교나 언어 조도 주제에 맞는 장소를 갔으면 좋았을 거 같아서 아쉽다. 그래도 몇 장소를 돌아다니니까 좋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막힌 타이밍으로 광화문 광장 집회에 간 것이었다. 그곳에서 ‘6월 민주 항쟁이 이런 모습 이었겠구나.’를 느꼈다. 확실히 장소들을 돌아다니니까 체력적인 문제는 발생하는 거 같다. 그래서 중간에 휴식 기간이 있었던 게 좋은 선택이었던 거 같다. 아직도 인문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인문학 캠프를 했음에도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우리가 배운 것이 인문학이었을까? 의문이 들었다. 각 주제들에 대한 약간의 지식들을 배우고 나서 토론 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이런 방식이 인문학 맞을까? 굳이 인문학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내가 세상을,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 지게 된 계기가 된 거 같아서 좋았다.

채은

-

나를 늘어지게 붙잡고 있던 인문학이 끝났다. 후련함이 제일 크지만 한편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내 모습이 아쉽기도 하다. 난 왜 그렇게 인문학이 하기 싫었을까.

인문학이란 내게 처음엔 막막함으로 다가왔었다. 그래서 인문학이란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에게 답답함만 안겨줬었다.

막상 주제를 잡으려니 그것 또한 어려웠다. 나름 많은 시간을 들여 진행하는 인문학인데 설부르게 주제를 선택하고 싶진 않았다. 이왕 하는 김에 궁금했던 걸로, 하고 싶었던 걸로, 생각해 보면 좋았을 걸로 공들여 인문학을 하고 싶었다. 근데 모르겠다. 난 도대체 뭘 해야할지,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 너무 어려웠다.

결국엔 주제를 선택하는데 무작정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지 정작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통일에 대해 공부하기로 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난다.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굳이 해야하나 싶었다.

결국 빙빙 도는 질문들 속에서 난 인문학 내내 휘둘렸던 것 같다. 남하는 것만큼만 하자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참여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이 문제들을 짚어보며 알 수 있는 건 '모름'이다. 일단 모르기에 어떻게 해야할지도, 뭔지도, 당장 하고 싶지도 않은 인문학은 내게 짐일 수 밖에 없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인문학을 해왔을지도 모르겠다. 양썸의 큰그림에 내가 그려진 걸지도 모르겠다.

다만 지금 드는 생각은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모든 학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내 존재인 사람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라 하면 당당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다. 이 지구 속에서 살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간인데 난 내 존재에 대해 몰랐다. 인문학을 하며 사람 자체에 대해 공부해도 괜찮겠단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도 그런 인간의 한 종류인 '나' 자체에 대해 나란 사람이 인간의 한 종류로서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에 대한 답은 좀 구한 것 같다. 통일을 공부하면서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같은 방향을 얻을 수 있었다.

결국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공부로 인문학을 꾸렸고 다른 친구들의 인문학도 마찬가지로 같다.

앞서 말했었던 명칭한 질문들 속에서 결국 끝내 내가 찾은 답변은 미래인 것 같다. 난 앞으로를 꿈꾸면서 '어떻게' '잘' '살까'란 의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공부했던 것 같다.

후회는 있다. 굳이 좀 더 어려운 걸 공부하고자 했던 나를 원망하며 다음 번에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재밌고 위트있는 주제를 공부해보고 싶다. 무거운 주제를 공부한 만큼 지식이 쌓이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재밌고 위트있는 주제를 공부하면 재밌고 위트있는 미래를 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본다.

다연

인문학을 시작했을 때에는 주제를 정하는 것이 너무 막막해서, 지금 돌아보면 별게 아닌 것에 시간을 쏟고 매달렸던 거 같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고 욕심을 나는 만큼 인문학을 할 수 없었다. 다른 조들보다 주제의 대해서 많이 이야기 했고 주제를 제대로 정하기 못 해 갈팡질팡 했었던 거 같다. 역사라는 큰 주제를 선택했고 그 주제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이 다들 달라 그 합의점을 보는 데에서도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 같다. 인문학을 마친 지금은 혼자 인문학을 했어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물론, 누군가 같이 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만 말이다. 하여튼, 주제의 대해서 끝없이 토의한 결과, 정해진 주제는 '통일'이었다. 사실 그렇게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 번 정도는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그 주제를 선택했다. 주제를 정한 만큼 빠르게 계획을 짤 수 있었다. 아주 초반에는 감을 못 잡았지만 금방 계획을 짤 수 있었다. 계획이 빠르게 생기는 것은 좋았지만 동시에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공부해야한다는 것이 힘들고 부담되었다. 욕심은 욕심대로 많고 시간은 시간대로 부족하고 공부해야할 건 공부해야할 것대로 너무 많아 힘들었던 거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욕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상태가 내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의 비하면 내가 했던 우리조의 비중이 적었던 거 같다.

인문학의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걸까, 아니면 반대로 아무 기대가 없었던 걸까. 이 점의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내가 기대한 만큼? 아니면 생각했던 것만큼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고, 생각보다 내게 인문학이 큰 무언가가 되지 않았던 거 같다. 물론 내게 오는 것이 없는 만큼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거 같기도 하다. 의욕이 활활 타오르다가 사르륵 꺼져버리는 상태가 다른 친구들 보다 빠르게 왔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무척이나 아쉬운데,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상태가 올게 분명해서 후회하지는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여튼, 내게 인문학은 내 간디학교 6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 했다. 다만, 가장 열심히 준비한 수업, 탐 쓰리에는 올라가게 되었다.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말이다. 이 점의 대해서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난 열심히 한 걸까? 아님,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일단 전자라고 치자. 전자라고 치자면 열심히는 준비했지만 느낀 것이 별로 없다. 이상하지만 사실이다. 인문학을 하면 세상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질 거 같아 무척이나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넓어지지 않는 시야에 실망했었다. 시야가 넓어지지 않는 이유를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거나' 혹은 '내 욕심만큼 시야를 스스로 넓히지 못 했다'라고 안 하려 하고 계속 실망감의 대해서만 생각하니, 평가가 긍정적이게 나오지 않는 거 같다. 성인으로 넘어가서 그런가, 조금밖에 남지 않는 미성년자의 시간에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이런 내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인문학을 하면서 나의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 수 있었다. 내가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며 글이나 강의 요약할 잘 못 하고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머리로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나, 하는 걱정도 생겼고 쉬운 일만 골라하려는 내가 불쌍하기도 했다. 그래도 그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볼 수 있는 의지가 생겼다. 앞으로 피하지 않고 부딪치기로 마음먹었다. 인문학을 하면서 평소 관심 없는 것에 눈이 뜨고 기사나 뉴스를 자주 보게 돼서 현대를 볼 수 있었다. 인문학 공부 보다는 이런 면으로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된 거 같다. 내가 공부 한 것 말고 친구들이 공부했던 인문학을 들으며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관심 없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주제 통일, 언어, 종교, 민주화, 농사가 다 이어진다는 사실이 신기했었고 그 것들을 공부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덕분에 마지막 6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마지막은 뜻 깊었던 거 같다. 늦게 시작해서 어쩌면 짧고, 힘들어서 어쩌면 길었던 이 인문학이 아직까지 느껴지는 건 별로 없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고 많은 것을 배웠기를 바라며, 내게 큰 무언가가 되길 바라며 인문학 평가를 마친다.

가원

-

인문학캠프를 처음 시작할 때, 대체 인문학캠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지 감이 전혀 안 잡혀서 한참을 헤맸던 것 같다. 과연 내가 공부해야 할 인문학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혼자 공부하는 것과 다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본질적으로 인문학캠프를 왜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않았다. 무작정 시작했다가 실패를 겪을까 두려운 마음도 컸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시작했든, 인문학에 대해 여러 고민을 했든, 나는 많은 실패를 겪었고 주제를 계속 해서 바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실패하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었을 것 같다. 과거로 돌아가 한 번 더 인문학 캠프를 진행하게 된다면 괜한 고민 하지않고 무작정 시작해보며 감을 찾아볼 것이다.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인문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회의한 시간이 길었던 것이 아깝다.

인문학 캠프를 다른 학번과는 달리 우리끼리 진행한 것이 나에게서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분위기가 쳐져서 좀(아니 많이) 게을러졌지만. 만일 인문학 캠프에 외부인을 참가 시켜 강의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면 인문학캠프의 의미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공부의 방향도 우리의 궁금증을 푸는 쪽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 위주로 틀어졌을 것 같다. 다행히 외부참가자를 받지 않았고, 언어라는 주제가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우리 조의 공부는 책이나 인터넷의 지식보다는, 인터뷰와 많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치열하게 대립하고, 서로의 의견 사이의 타협점을 찾고, 조원 뿐만 아니라 반전체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는 과정에서 나는 함께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내 의견을 남에게 설득 시키려면 나도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한다는 것, 내 의견을 보편적인 의견으로 바꿔 나간다는 것, 매일 치열하게 토론한다는 것을 알아갔다. 또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을 땐 책보다는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도움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과 인문학캠프의 형식이 달랐더라면 느끼지 못했을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다.

인문학 캠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말하던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만 할 수 있겠냐'는 끈대 같은 말이 이제야 공감이 간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언제 또 이렇게 다른 것 다 놓고 공부만 할 수 있을까. 할 때는 힘들고, 오만 정이 다 떨어졌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 마음 한 켠에 아쉬운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졸업하고 나서도 간디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두고두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

우정

-

‘이름은 인문학인데, 여태 학교에서 했던 논문이나 프로젝트 수업들과 다른 게 뭐지?’, ‘내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지?’, ‘인문학이 도대체 뭐지?’

인문학캠프에서 풀어갈 주제를 정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 수도 없이 들었던 의문들이다. 인문학이 뭔지도 모른 채 시작돼버린 인문학캠프는 괴로웠다. 졸업생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쌤들께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사실 모든 게 끝난 이 시점에서조차 인문학이 뭐냐고 묻는다면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가 없다. 내가 느낀 건, 내 주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것을 통해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어떤 주제를 통해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각각에게 의미하는 것과 기여하는 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자의 시기에 따라 필요한 인문학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의 나에게는 인문학이 주제를 통해 공부하며 알아가는 것들을 내 삶에도 대입해보며 ‘나’라는 개인과 여태 살아왔던 내 모습,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와는 무관하다고 느끼던 주제로 공부를 하다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걸 느끼면서 무언가 막혀있던 게 탁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 내가 형성한 세상 안에서만 갇혀 살고 있었던 듯한 느낌. 그래서 앞으로 내가 모르던 것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모든 장벽이 무너진 넓고 끝없는 세상 속에 살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 웬지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훨씬 굵고 높은 장벽들이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들지만, 이번에 느꼈던 것들로부터 시작해 끝없이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으로 캠프를 진행했는데, 여러모로 혼란이 많았던 시기에 적당히 해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나 싶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서 외부와 또래친구들 등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선 등을 접할 수는 없었지만, 이 안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이 더 많은 고민의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승희

-

인문학캠프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막막하고, 하기 싫었다. 그래서 대충했다.

팀을 나눠서 같이 공부하고, 기획하는 방식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 불편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나누는 것이 나에겐 더 알맞은 공부 형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조별로

인문학을 진행하면서 나름 얻어가는 것도 많은 것 같다. 졸업 전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삶을 살 때 가지고갈 철학이나 지향성을 많이 얻은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고, 다시 하라고 해도 열심히 하지 않을 거지만, 그런 것 치고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많은 친구들이 인문학캠프를 하겠지만, 열심히 하며 즐겁게 공부하는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친구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한

-

앞의 힘

종교를 몰랐다. 신, 믿음과 같은 단어들의 첫인상은 부정적 수사로 표현됐다. 주제들이 놓여졌고, 반신반의하며 가장 미지의 영역인 종교공부를 택했다. 나와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종교를 선택한 우정과 인턴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길이 확고했던 하린이. 이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순수하게 주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모인터라 모이고 난 후에 어색함은 상당했다. 불편함이 전제된 어색함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같이 할 수 있겠느냐를 이야기 하며 2, 3주를 보냈다.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고, 남은 기간 허리띠를 졸라매야했다.

셋 모두 종교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신학적인 종교부터 문학에 자리잡은 종교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했다.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지식공부를 바탕으로 종교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종교인 이해하기를 목적으로 종교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취지였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인문학캠프 진행과정에서 이 과정이 가장 의미있고,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을 믿는 사람, 신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만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지만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종교인 이라고 하면 목사님, 스님, 수녀님, 신부님과 같은 사제들과 도를 아십니까라며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났다. 하지만 신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종교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같은 모듈 친구들과 믿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종교를 전반적으로 믿지 않는 11학년 친구들이 종교에 대한 편견을 타파할 수 있었으면 했다. 본캠프 일정은 그것을 기준으로 셋팅되었다. 종교공부가 필요한 이유, 우리의 깊은 편견인 사이비를 통해 나의 믿음에 대해 의심해보고, 신학적인 신에 대해서도, 신화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정서와 신의 관계도 알아보았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어색하게 긴 버스를 타기도 했고, 다리 끊어진 회의도 여럿 했다. 신이 있다면 우리가 모여 공부하고 있는 데에도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했다. 똑똑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게 된 것도 신의 가호가 있었던 걸까. 결과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마음 먹은 게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종교는 알아갈수록 많은 부분을 나에게 시사했다. 작게나마 위로도 받았고, 웅장한 느낌 앞에 위축되어도 봤다. 종교에 대한 편견이 조금 트이고 나니 더 알아가는 것에 부담감이 사라졌다. 함께한 종교조 친구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어디에서나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활동사진



-언어조 본캠프/ 번역 프로그램 진행



-통일조 본캠프/ 파주 현장 방문(오두산 통일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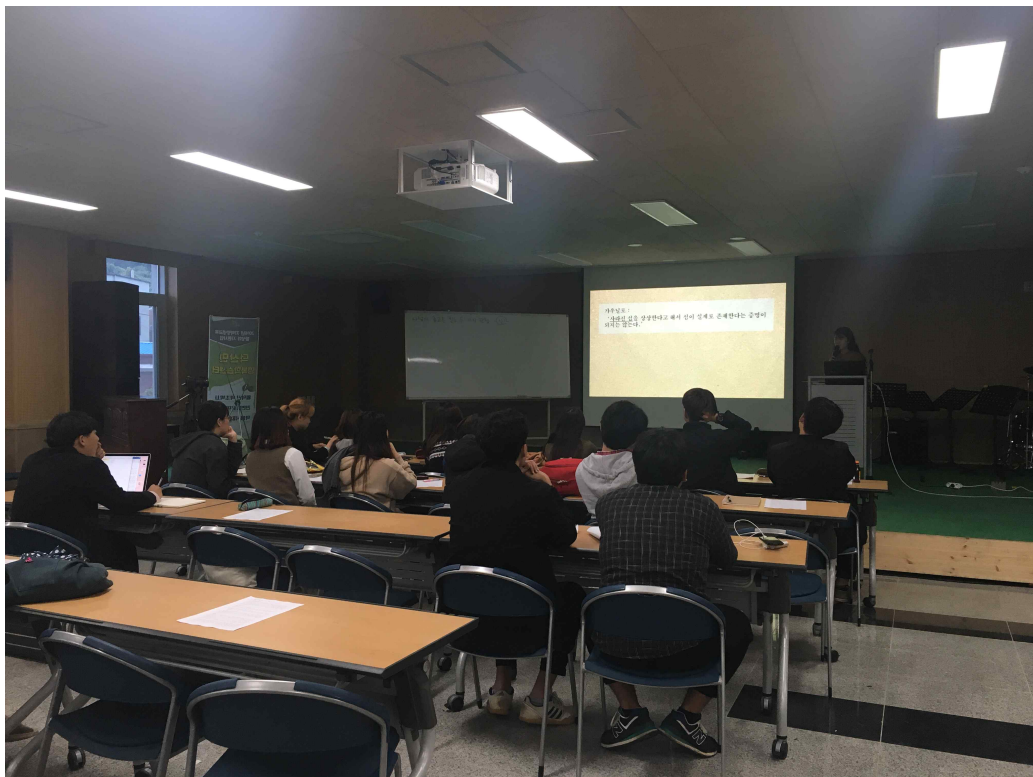
-통일조 본캠프/ 강사 강의(통일을 왜 해야 하나?)



-민주화 본캠프/ 남영동 소개



-민주화 본 캠프/ 명동성당 설명



-종교조 본캠프/ 발제 (인간은 왜 신을 믿는가?)



-종교조 본캠프/ 태썬 강의 (종교공부가 필요한 이유)



-11월 29일 민중 총궐기



-FTA조 본캠프/ 발제 (농업적 관점으로 바라본 FTA, 농사가 중요한 이유)



-농사조 본캠프/ 성열 썸 울무 밭 일손돕기 (관행농 체험)



-농사조 본캠프/ 범수빠 강의 (유기농에 대하여)



-마지막 소감 나누기

